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 최고조에 달한 2025년, ‘Economic’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新) 성장 동력을 ‘Social’에서 찾아야 할 때

2025년, 한국 경제는 사상 처음으로 잠재 성장률 1%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다 보니, 소득 불평등,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복합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불안한,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태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의 지난 6년간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2025년, 한국의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가 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이었고 개인 행복 수준은 하락한 한편, 사회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지만 사회문제 해결 의지는 가장 낮았습니다. 2025년은 한국에 드리워진 저성장의 그림자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높이는 등 부정적 전이(Negative Spillover) 효과를 크게 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약화시켜 공동의 노력을 요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국민의 삶을 또 다시 힘들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저성장에서 촉발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전이(Negative Spillover) 효과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업의 상황은 또 어떨까요? 성장 둔화,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2015년 대비 2025년, 중국 기업보다 한국 기업의 성장 속도가 6.3배 느리다는 통계가 한국 기업의 위기를 실감케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기업이 ‘성장’도 하면서 ‘ESG 관리’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압력(Dual Pressure)의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회문제 해결로 돈도 버는, 보다 영리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전략’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속가능성 맵(Sustainability Map)’을 제시하여 온실가스, 대체에너지 부족, 산업재해 등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사회문제 해결 영역을 도출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맵(Sustainability Map)을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그 누구보다 잘 이겨낸 한국이지만 2025년은 저성장-고비용의 장벽 앞에서 힘을 잃은 듯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대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제고로 개인, 기업, 사회, 경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breakthrough)를 빠르게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사회현상에 집중하고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조사가 사회문제 뿐 아니라, 사회현상을 다각적으로 관찰하고 기업과 사회에 필요한 해법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표이사 나석권

CSES | 사회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은 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 연구재단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이를 함께 할 사람들을 연결하고 확장합니다.

모든 격차와 갈등을 뛰어넘는 경계를 허무는 통합으로

전 세계가 소득·자산 불평등, 노동 시장 이중구조, 교육 격차, 지역 불균형 등 복합적인 위기가 얹히고 증폭되는 ‘다중격차(Poly-disparity)’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6년차를 맞은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재정의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해법을 고민해보고자 했습니다.

2020년 이후 한국은 인구구조 변곡점을 맞이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넘고, 예상보다 빠르게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경기 침체와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해보니 6년 만에 자신과 주변,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관점과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세대·연령·지역 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따라 사회문제를 향한 인식 격차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020~2021년 소득 양극화와 집값 불안정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국민은 2023년 이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과 일·생활 불균형에 주목했고, 올해는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증가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환경 및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슈로 ‘폭염·한파 증가’가 3위로 올라왔고, 2020년과 비교해 국민들은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비중을 가장 늘리고자 했습니다.

올해 국가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평가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민의 절반이 자신을 중하위층 또는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로 ‘물질적 안정(돈)’을 꼽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행복감이 가장 낮고, 한국을 살기 좋은 사회로 보지 않는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 경영자·노동자간 갈등,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했고, 사회 갈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사회문제도 심각하게 여기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나와 우리 모두의 협력과 통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기부·봉사·세금·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국민들은 경제·환경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결과 지지체계가 강화될 때,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고 모든 종류의 격차와 갈등을 뛰어넘는 통합이 절실한 지금입니다.

 **TripleLight**

트리플라잇은 우리 사회에 해결이 시급한 ‘진짜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과 마인러닝을 기반으로 한 발 앞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임팩트 전략 허브(Impact Strategy Hub)’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과 사업이 만드는 변화를 측정하고 임팩트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HAPTER 1

Overview 연구 개요	8	Purpose & Approach 배경 및 목적
	9	Key Highlights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핵심 요약 - Impact Issues: Present & Future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 Impact Trend of 6 Years 2020-2025 국민의 사회문제 인식과 행동 변화 - Impact Perception Gap 사회문제 인식 및 행동 격차 - Sustainability & Issues Analysis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기업
	22	Process 연구 방법

CHAPTER 2

Perception of Social Problems 2025 사회문제 인식	28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 Social Perception 사회인식 조사 - Impact of Issues: Looking back and forward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35	Difficulty Level of Problems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 Korean Social Problems & Difficulty Level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사회문제 심각성과 해결 수준 - Issue Tracking 이슈별 한국의 OECD 주요 순위
	39	Public Perception of Solutions 사회문제 해결 인식 - Collective Impact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 - Impact Action Analysis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행동

CHAPTER 3

Impact Perception Gap 사회문제 인식 격차	48	Perception Gap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격차와 원인
	65	Action Gaps 사회문제 해결 액션 격차

CHAPTER 4

Sustainability and Business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74	Sustainability & Issues Analysis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기업
	74	Public Perceptions of Sustainability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77	Sustainability Map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사회문제 해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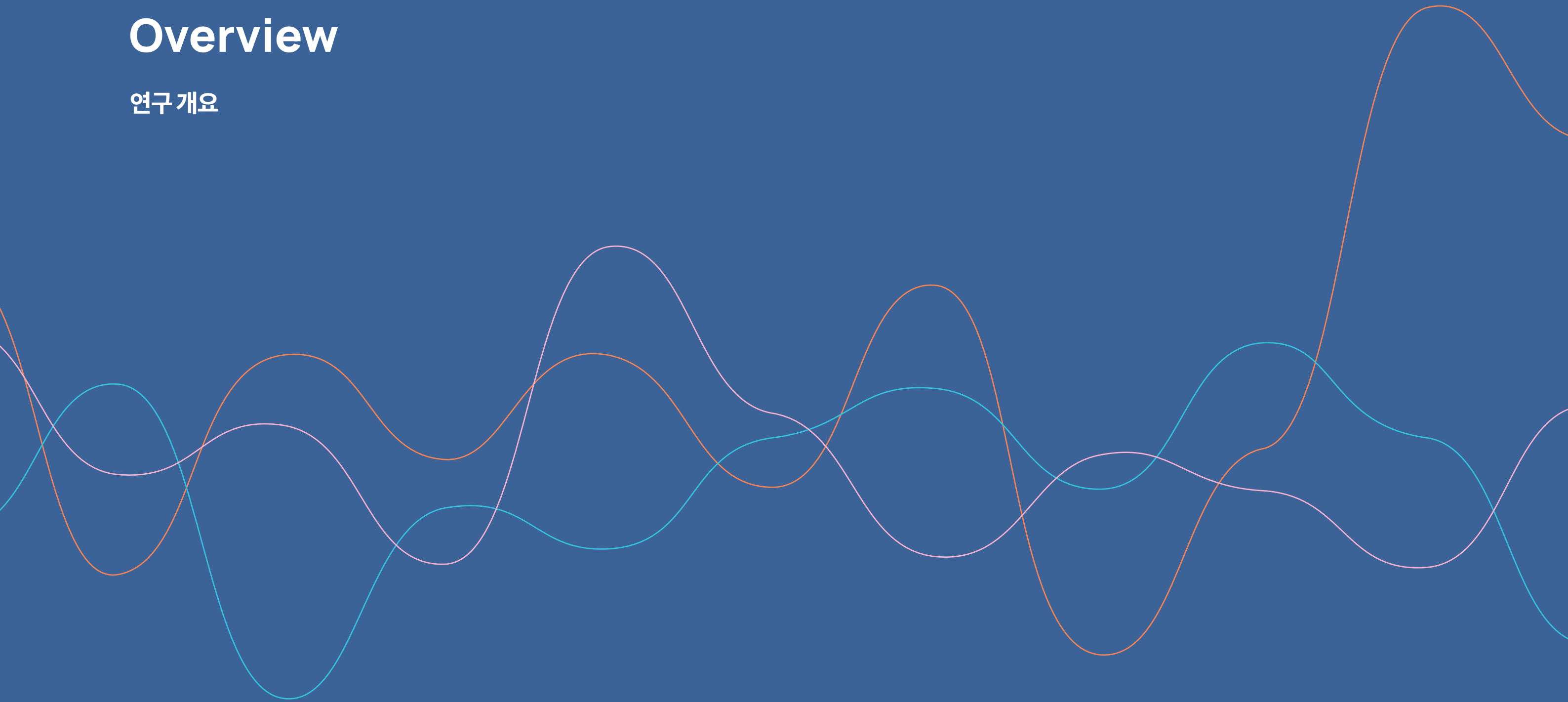
CHAPTER 5

Beyond 2025 우리가 만드는 미래	84	Conclusion 사회문제 해결 방향성 및 종합 제언
---------------------------	----	--

CHAPTER 1

Overview

연구 개요



트렌드 전 세계적으로 다중격차로 인한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자산 불평등, 노동 시장 이중구조, 교육 격차, 지역 불균형 등 이슈가 서로 얹히며 더욱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에 나타난 위기를 재정의하고 미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경제 불안과 사회 불신

국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심화되는 동시에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도 유례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사회에 대한 평가는 다른 세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부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문제 해결 참여와 의지를 저하시키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희망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갈등과 격차 심화

소득, 자산, 교육, 지역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 인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념, 세대, 지역 등으로 분절된 갈등은 이러한 격차와 얹히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이 분산되고 사회적 신뢰를 악화시켜 합의가 지연됩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협응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역할과 책임 변화

기후변화,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위기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기업의 핵심 역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 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경영 전략의 핵심에 두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연구 목적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지난 6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하는 핵심 어젠다와 전략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극화·불신·갈등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인식 격차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되어왔는지 심층 진단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언을 담고자 합니다.

핵심 연구 키워드



현재와 미래의 연결

현재는 미래를 구성하며,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상호구성성(Inter-Construction)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미래 위기와 기회 고려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로 야기될 리스크를 파악 및 대비하고, 기회요인과 지속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갈등과 격차를 줄이는 해법

상호 이해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와 포용적 문화를 통해 복합적인 원인으로 얹힌 갈등과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과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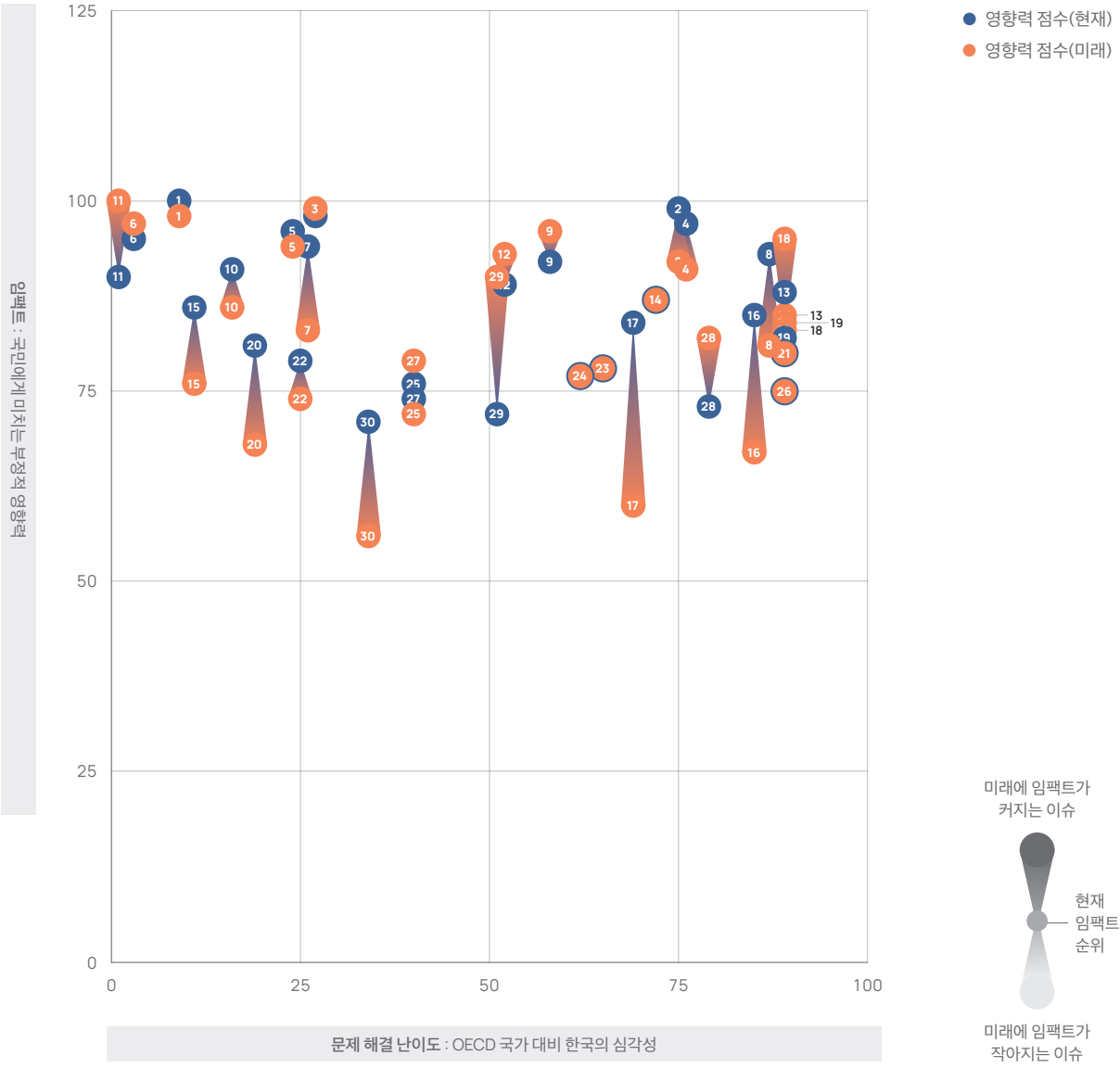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문제 해결을 통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Key Highlights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핵심 요약

Impact Issues: Present & Future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2025년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현재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10년 후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하는 심각한 이슈를 진단했습니다.



Note ‘임팩트(부정적 영향력)’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슈 데이터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한국이 주목하는 100개 사회이슈’ 중에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10년 후(미래)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 거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Y축은 ‘현재’ 임팩트 점수를, X축 ‘문제 해결 난이도’는 100개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이다.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해결 난이도가 높아진다.

▲▼ 작년 대비 점수 변동

No	테마	이슈	영향력 점수(현재)		영향력 점수(미래)		난이도
1	사회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100	▲4	98	▲3	10
2	사회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99	▲1	92	▲6	79
3	환경	폭염·한파 증가	98	▲1	99	▲5	27
4	사회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97	▲5	91	▲11	55
5	경제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96	▼3	94	▼6	53
6	경제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95	-	97	▼1	3
7	사회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94	▼6	83	▼13	29
8	사회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93	▲8	81	▲7	89
9	환경	지구 온난화	92	▲1	96	▼1	44
10	경제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91	▲3	86	▲4	18
11	경제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90	▲3	100	▲1	1
12	사회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89	▲3	93	▲6	21
13	사회	저출생 문제	88	▼1	85	▼4	90
14	사회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87	▼7	87	▼3	75
15	사회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86	▼4	76	▼3	12
16	경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85	▲2	67	▲2	87
17	경제	청년 일자리 부족	84	-	60	▼21	65
18	사회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83	▲4	95	▲2	90
19	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82	-	84	▼7	90
20	사회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81	▲3	68	▼4	21
21	경제	가계부채 증가	80	▼13	80	▼8	77
22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79	▲10	74	▲7	55
23	사회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78	▲2	78	▲2	69
24	사회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77	▲4	77	▲18	34
25	환경	대형산불 증가	76	▲51	72	▲38	33
26	사회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75	▼2	75	▲9	90
27	사회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74	▲3	79	▲6	41
28	경제	어려운 재취업	73	▼8	82	▼2	81
29	사회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72	▼8	90	▼2	57
30	사회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71	▼4	56	▲9	37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개인정보 유출 전국민이 우려하는 1위 이슈로 부상

2025년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27위였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2023~2024년에는 5위로 올랐다가, 2025년 1위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총 307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56%에 달하는 171건이 해킹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방 어 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SK텔레콤·KT·롯데카드·락앤락·GS샵·모두투어·알바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가장 심각한 이슈로 조사됐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시급한 과제로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의 상승폭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폭염·한파 증가(현재 임팩트 98점)’, ‘지구 온난화(현재 임팩트 92점)’ 모두 전년 대비 현재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임팩트가 커지며 각각 3위, 9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현재 임팩트 79점, 22위)’은 전년 대비 10점, ‘대형 산불 증가(현재 임팩트 76점, 25위)’는 전년 대비 51점이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3월,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1조 818억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1987년 이후 역대 최대 피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해져 2020년 조사에서는 30위권 밖으로 평가된 기후 위기 이슈들이 6년새 상위권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불균형 갈등 격차로 인한 사회적 신뢰와 구조 회복 필요

일·생활 불균형 문제는 2020년(4위)부터 2025년(3위)까지, 지난 6년간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며 해결되지 않는 만성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갈등과 격차로 인한 우려는 급격히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문제는 2020년 19위에서 2023년 14위, 2024년 9위에서 2025년 4위로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2번 진행된 6년 동안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진단됩니다.

특히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가 2020년 20위(현재 임팩트 81점)에서 2025년 8위(현재 임팩트 93점)로 급상승한 점도 눈에 띕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추락 문제를 비롯해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후 고령화·갈등·기후 전반의 대비 필요해

국민들이 10년 후 미래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꼽은 이슈는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미래 임팩트 100점)’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 생활(미래 임팩트 95점)’,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미래 임팩트 93점)’ 역시 상위권에 오르며 고령화 및 노후 대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 다가올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복합적인 위기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미래 임팩트 98점)’, ‘집값 불안정 및 주거 부담 증가(미래 임팩트 97점)’, ‘지구 온난화(미래 임팩트 96점)’,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이 근소한 차이로 2~5위에 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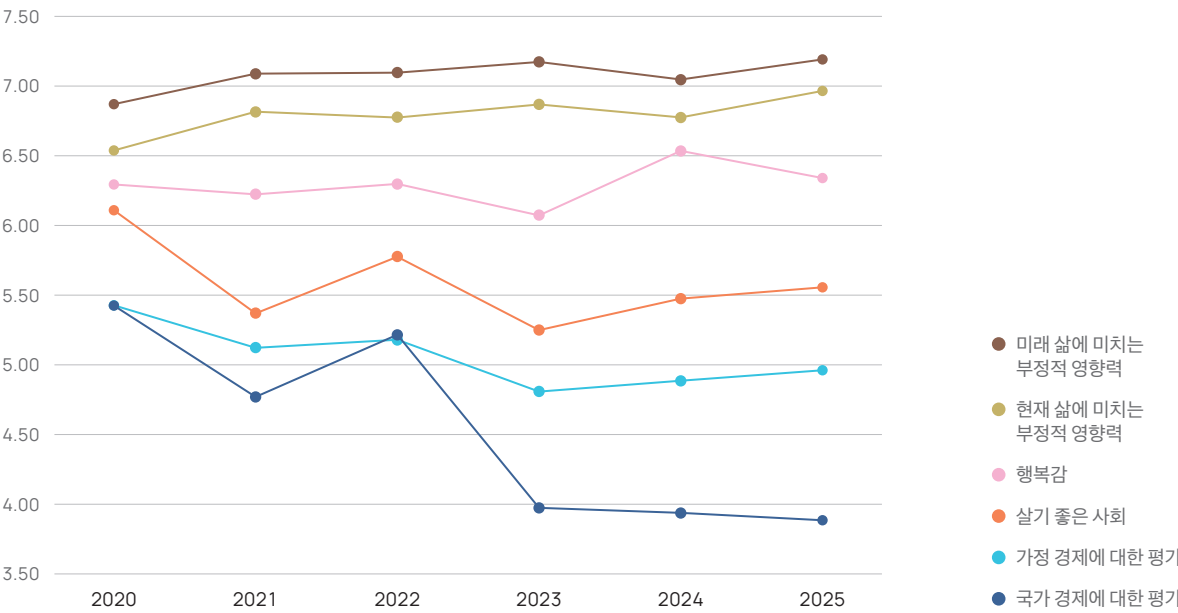
갈등과 인식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현재보다 미래에 더 심각해질 이슈(미래 임팩트-현재 임팩트 > 0)로는 ‘세대 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미래-현재 임팩트 18점 차이)’이 꼽혔고,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로 인해 미래에 나타날 부정적 임팩트도 지난해 보다 11점 오르며, 10위권에 들었습니다.

Impact Trend of 6 Years 2020-2025 국민의 사회문제 인식과 행동 변화

지난 6년간 한국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0년부터 진행된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인식조사의 6년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2020-2025 국민의 사회 인식 변화

단위: 점(각 항목에 대한 평가, 10점 만점)



미래 삶과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 커져

국민들은 미래의 삶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사회문제가 10년 후 미래에 나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11점 척도(영향이 없다 0점 - 매우 영향이 크다 10점)로 물어보니, 2020년 평균 6.87점에서 2025년 평균 7.2점으로 국민의 우려가 꾸준히 커졌습니다. 현재 사회 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2020년 평균 6.54점에서 2025년 평균 6.97점으로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감은 2024년 가장 높았다가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국을 살기 좋은 사회라고 평가한 국민은 2023년 가장 적었고 아직 202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3년을 기점으로 가정 경제에 대한 평가와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가정 경제 수준은 작년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국가경제 수준은 2023년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올해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3.89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이슈…사회, 환경 이슈에 대한 우려 더욱 커져

지난 6년간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Top10 사회 이슈를 분석한 결과, 1~4위 상위권을 경제 테마가 아닌 사회·환경 이슈가 차지했습니다. 소득 및 주거 불안 문제 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일·생활 불균형, 폭염 및 한파 증가,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와 같은 삶과 연결되는 안전과 균형, 갈등과 기후 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한편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이 올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오르며, 앞서 나타난 국민의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진단됩니다.

2020-2025 Top 10 이슈 변화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위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2위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3위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폭염·한파 증가
4위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폭염·한파 증가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5위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	미세먼지 증가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6위	노후 주거지 및 주거 생활권 불안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7위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폭염·한파 증가	폭염·한파 증가	가계부채 증가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8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가계부채 증가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9위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청년 일자리 부족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청년 일자리 부족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지구 온난화
10위	청년 일자리 부족	노후 주거지 및 주거 생활권 불안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지구 온난화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Impact Perception Gap 사회문제 인식 및 행동 격차

사회 갈등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 사회문제로 인한 어려움 가장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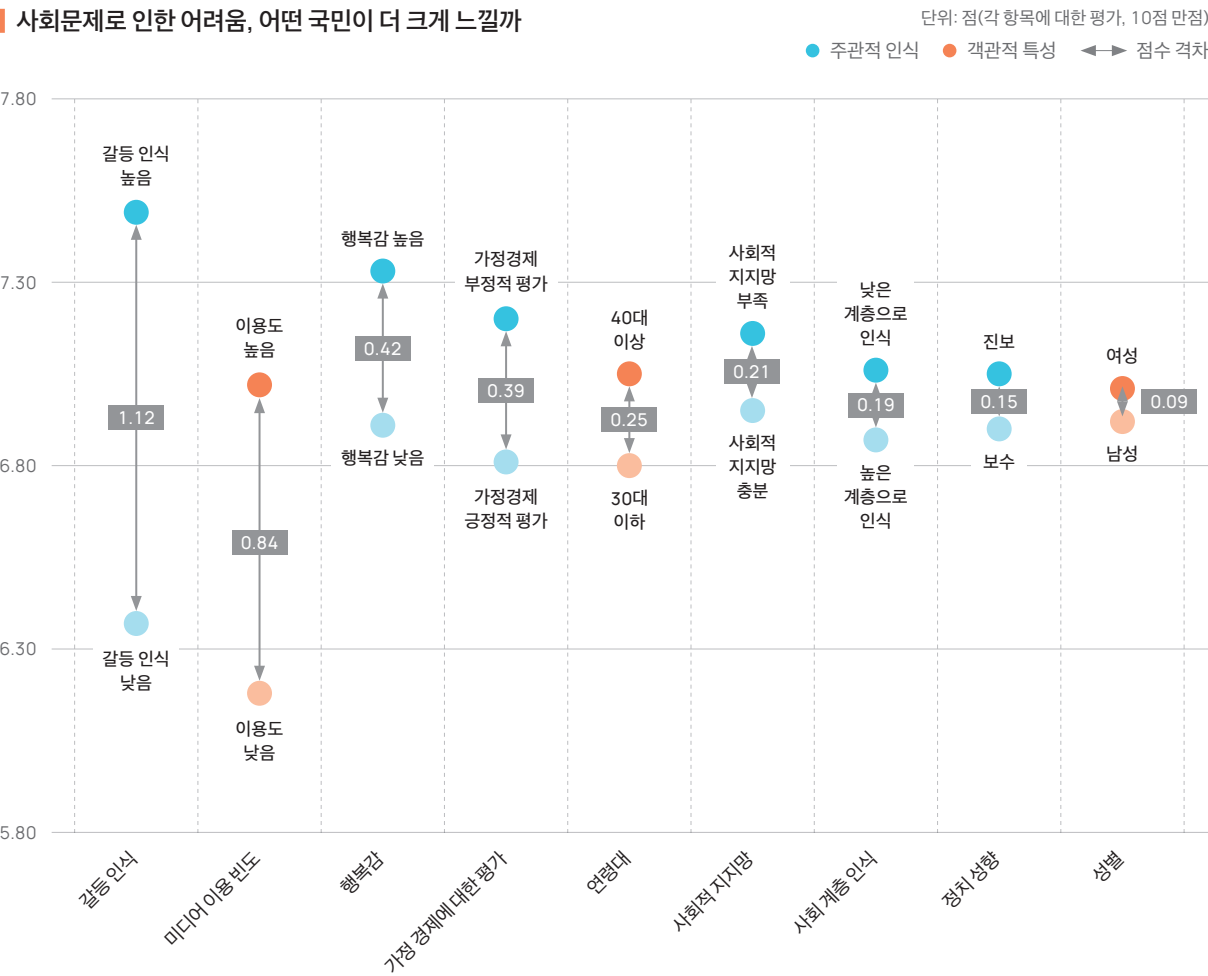
어떤 국민들이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을까요. 갈등 인식, 행복감, 사회적 지지망 등 가치관 및 관점에 따라 사회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10대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 격차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빈부·세대·정치·지역·노사 갈등)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행복감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여유와 경험이 쌓일수록 경제와 고용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자신을 중하위층 이하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가정 경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국민들이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과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더 크게 체감하는 모습입니다.

사회문제로 인한 어려움, 어떤 국민이 더 크게 느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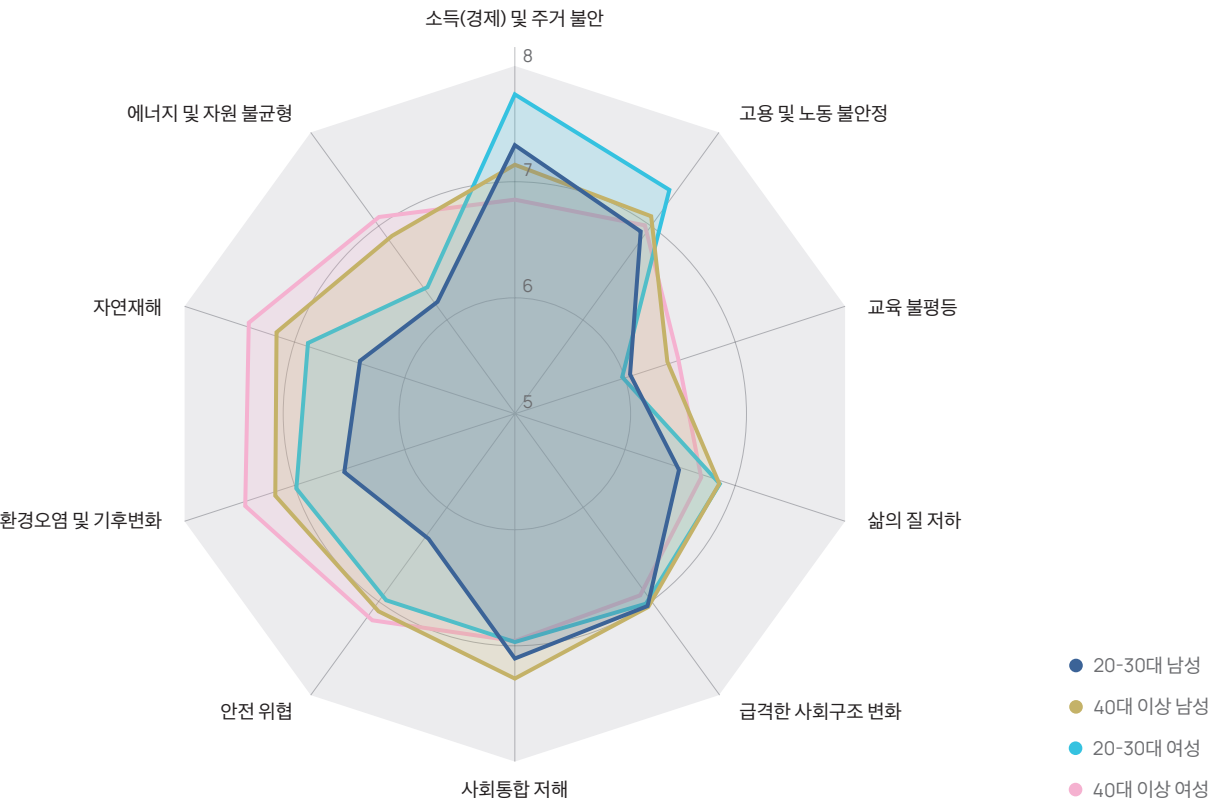
*X축은 국민의 인식 및 특성, Y축은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Y축의 점수가 커질수록 국민이 사회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2030 남성과 40대 이상 여성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달라

국민들이 주목하는 사회문제는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인식 격차가 두드러진 4개 그룹(2030대 남성, 2030대 여성, 40대 이상 남성, 40대 이상 여성)의 응답을 분석했습니다.

10대 사회문제 테마별 인식 격차

단위: 점(10대 사회문제별 부정적 영향력, 10점 만점)



인식 차이는 주로 환경 문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과 2030 남성의 경우 이러한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자연재해’ 이슈에 대해 40대 이상의 여성이 평가한 부정적 영향력은 7.54점으로, 20~30대 남성의 평가(6.48점)와 가장 큰 차이(1.06점 격차)를 보였습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이슈에 대해서도 40대 이상 여성의 점수가 2030 남성 보다 각각 0.95점, 0.9점 높았습니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고용 및 노동 불안정’ 이슈에 대해서는 2030 여성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 책임과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소득 및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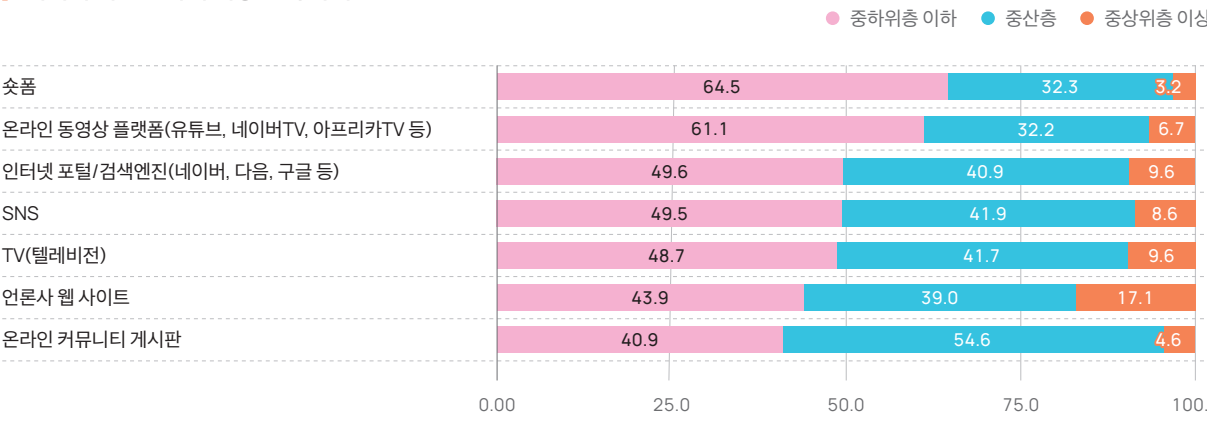
반면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 및 성별과 관계없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진단됩니다. 한편, 40대 남성은 ‘사회통합 저해’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디어 활용에 따라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격차 드러나

미디어 채널 활용도에 따라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주관적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가능성,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해 국민이 인식하는 정도와 채널 활용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살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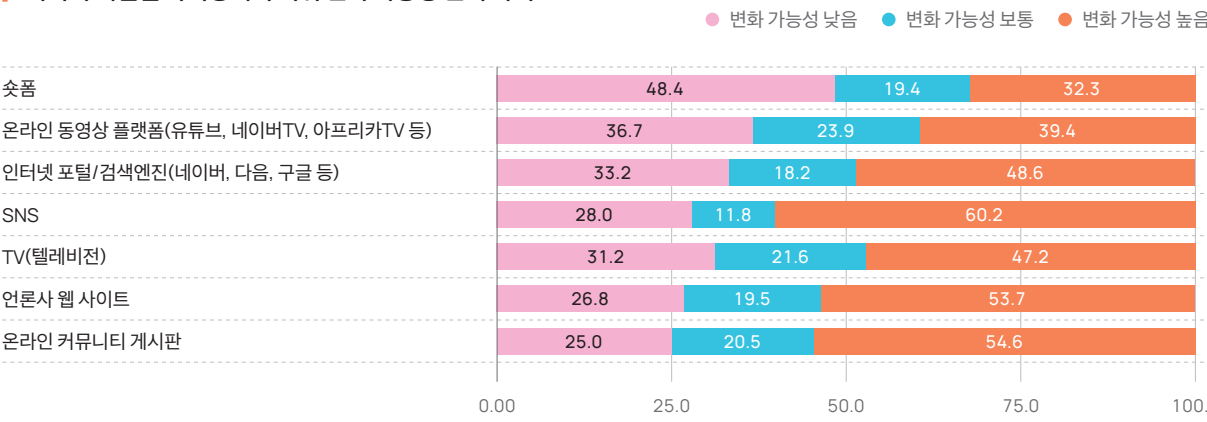
미디어 채널별 사회 계층 인식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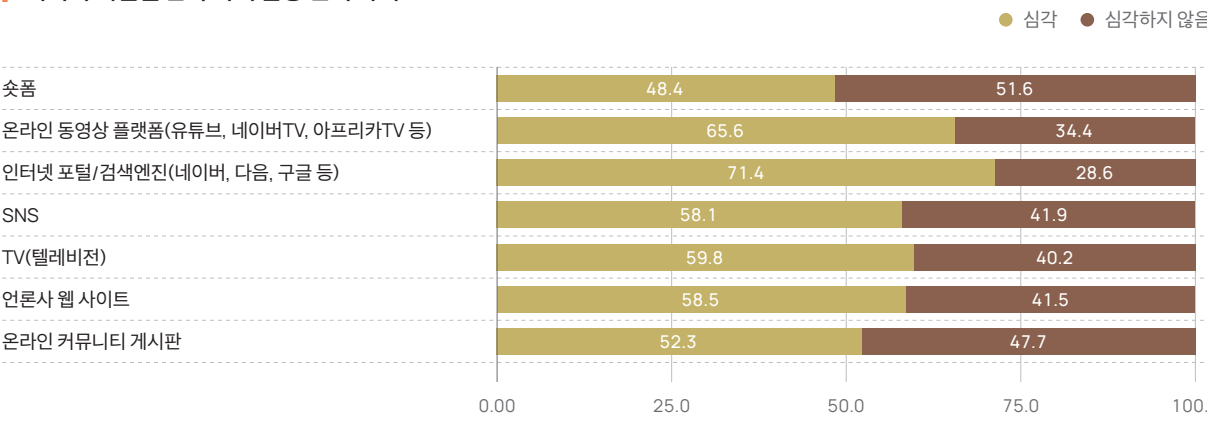
미디어 채널별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가능성 인식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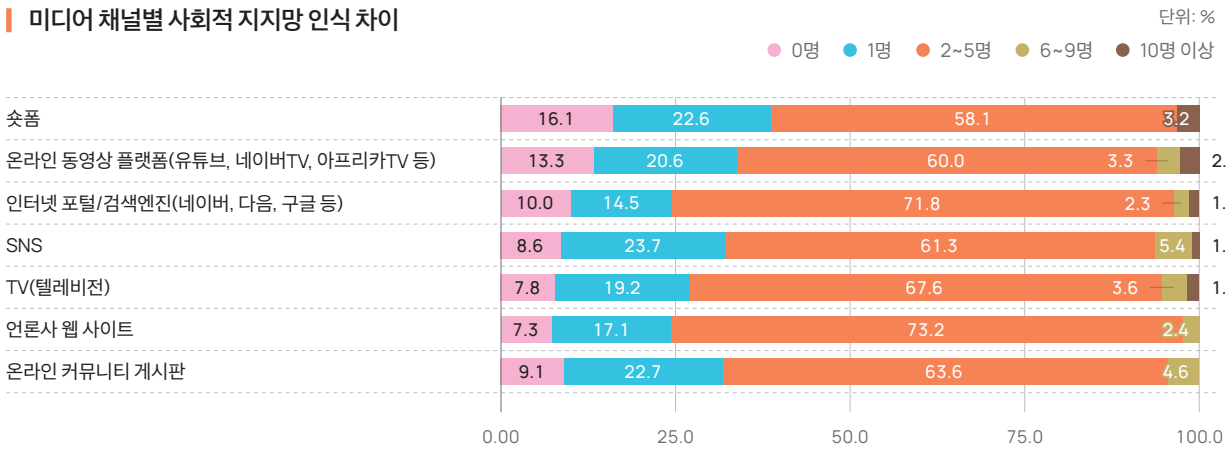


미디어 채널별 한국 사회 갈등 인식 차이

단위: %



미디어 채널별 사회적 지지망 인식 차이



어떤 미디어 채널을 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회 계층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 이용자의 64.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61.1%가 자신을 중하위층 이하라고 답해, 전체 채널 중 중하위층 인식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54.6%는 자신을 중상층이라고 응답해, 전체 채널 중 중상층 인식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언론사 웹사이트 이용자의 17.1%는 자신을 중상위 이상이라고 평가해, '중상위 이상'이라고 인식한 전체 평균(8.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채널별로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국민의 48.4%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체 평균(32.8%)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쇼핑이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또한 채널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인터넷 포털·검색엔진 이용자의 71.4%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경우 52.3%로 가장 낮았습니다. 채널에 따라 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시각이 약 19%p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회 갈등에 대한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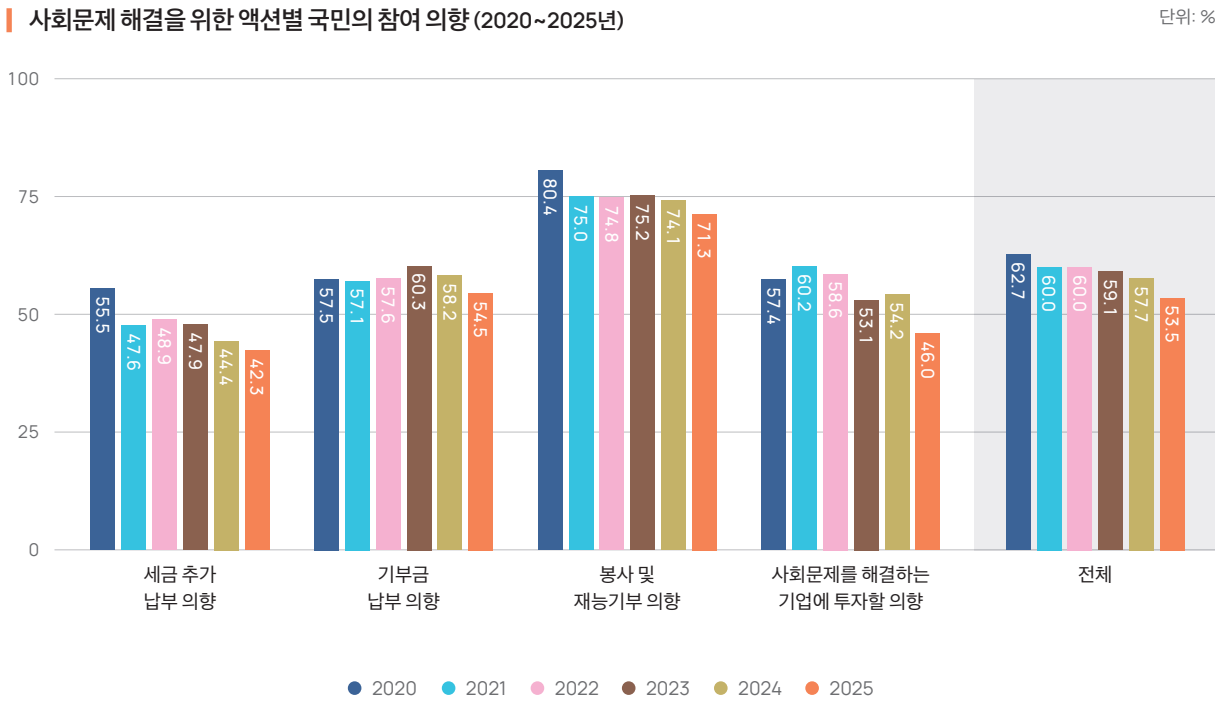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망(나의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인식 수준에 따른 채널별 차이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쇼핑(16.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13.3%), 인터넷 포털(10%)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언론사 웹사이트로 뉴스 및 시사 채널을 접하는 국민의 73.2%가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2~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로움을 느낄수록 온라인 채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부정적 편향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시간·자원을 투입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점차 줄어

자신의 자원과 역량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민이 2020년 62.7%에서 2025년 53.5%로, 무려 9.2%p 줄었습니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민은 2020년 55.5%에서 2025년 42.3%로 무려 13.2%p 감소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정부가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국민은 57.4%였으나 2025년 11.4%p 하락한 46%를 기록했습니다. 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문제 해결 의향도 2020년 대비 2025년 9.1%p 떨어졌습니다. 반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를 하겠다'는 국민은 54.5%로 2020년 대비 3%p 하락에 그쳤습니다. 기부를 통해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별 국민의 참여 의향 (2020~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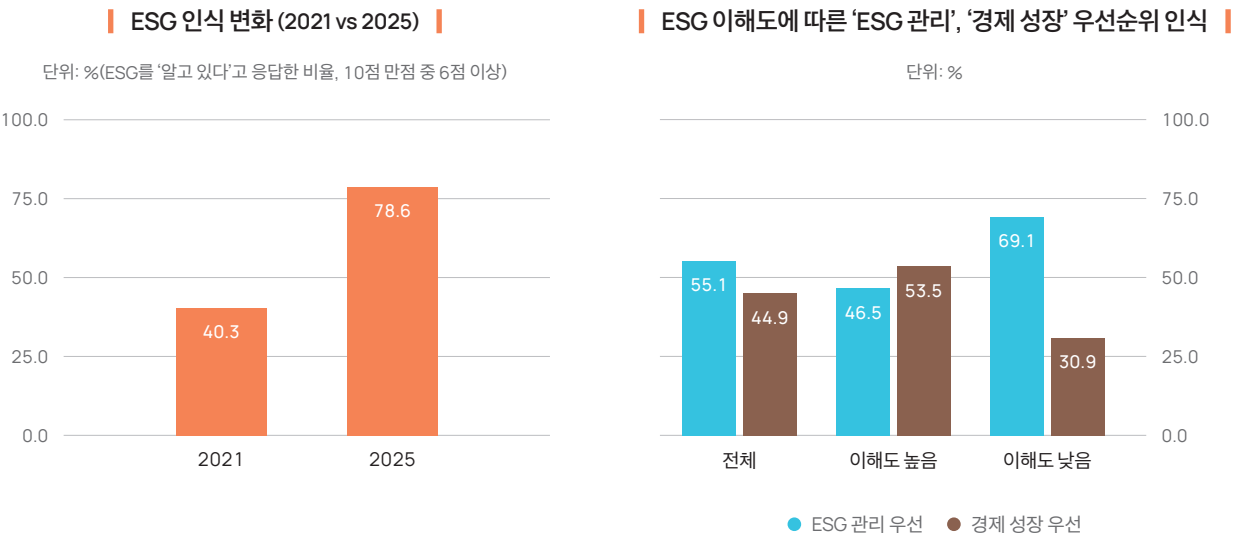
국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쓰겠다는 비용과 시간도 줄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월평균 증세 비율은 2020년 22%에서 올해 8.91%로 크게 감소(13.07%p감소)했고, 봉사 및 재능기부 시간은 2020년(9시간 30분) 대비 2025년, 무려 5시간 36분 줄었습니다. 추가로 낼 수 있는 기부금도 18만 7,7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대비 1/3 수준인 5만 2,866원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2020-202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할애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금 납부	21.98 %	11.09 %	11.74 %	10.50 %	9.10 %	8.91%
기부	13만 1,998원	14만 7,300원	18만 7,700원	8만 9,100원	11만 2,220원	5만 2,866원
봉사 및 재능기부	9시간 30분	9시간 20분	8시간 42분	7시간 52분	7시간 53분	3시간 54분

국민의 ESG 이해도 5년새 2배 높아져

경기 침체 속 기업의 성장과 ESG 경영 요구가 공존하는 가운데, 기업을 향한 국민의 기대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지난 5년간 ESG 개념을 알고 있다(10점 만점 중 6점 이상)는 답변이 2021년 40.3%에서 2025년 78.6%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ESG가 국민들에게도 일반적인 개념이 된 모습입니다.



한편, 'ESG 관리보다 기업의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히려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기업의 성장이 ESG 관리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ESG 이해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30.9%였던 반면, ESG 이해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53.5%로 20%p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ESG이해도가 높아질수록 ESG와 기업의 성장의 관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식이크어져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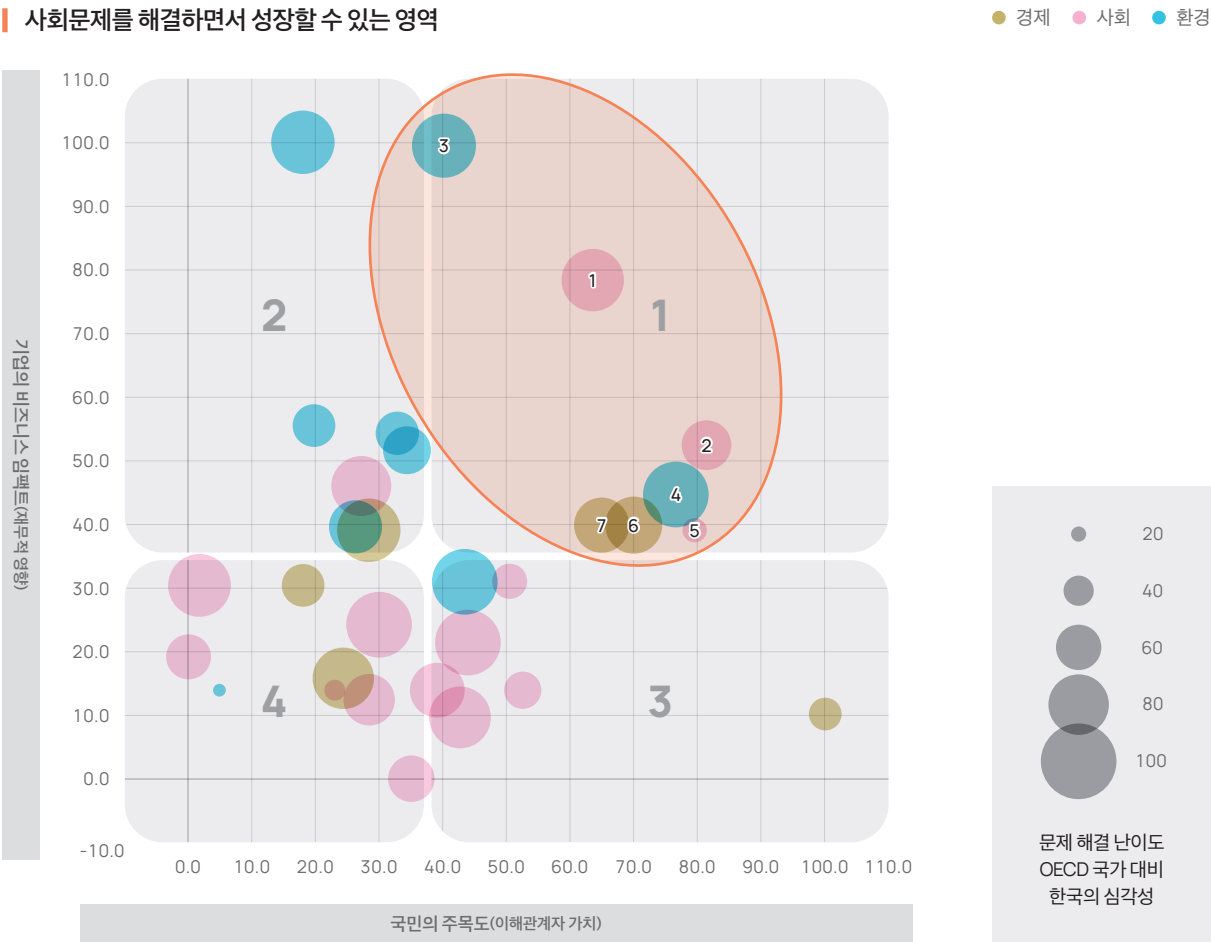
안전과 환경 이슈, 기업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국민 주목도와 비즈니스 임팩트가 모두 높은 영역에는 최근 사건·사고로 부각된 이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작업장 안전사고와 국내 통신사·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사업장 안전사고는 국민 관심도와 비즈니스 임팩트 점수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나, 이해관계자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가 직결되는 영역으로 분석됩니다.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 기술을 통해 이해관계자 가치와 재무적 가치 모두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와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해수면 상승 이슈는 비즈니스 임팩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환경 및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2026년 본격 시행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¹로 인해 기업의 공급망 개선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핵심 동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¹ EU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전력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영역



	이슈	국민 주목도	비즈니스 임팩트	난이도
사회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63.5	78.3	80
사회	2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81.4	52.4	47
환경	3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40.1	99.5	85
환경	4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76.5	44.7	90
사회	5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79.5	39.0	10
경제	6 청년 일자리 부족	69.9	39.8	65
경제	7 고용률 하락	64.9	39.8	60

Process
연구 방법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① 사회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②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도출 ③ 일반국민 설문조사 ④ 데이터&사회문제 분석 ⑤ 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등 단계별 분석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① Issue Taxonomy & Analysis 사회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2025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은 UN SDGs, K-SDGs &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 WEF Global Risk, GRI, 정부 국정과제, 한국 사회지표 등 국내외 사회문제 관련 기준과 자료들을 통합 분석하여 확정된 139개 이슈 Pool 중, 각 이슈별 검색식을 기준으로 분석한 미디어 노출 빈도 순위를 통해 최종 100개 이슈로 도출됩니다.

3대 목표	사회문제 10대 테마	2025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Economy)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가계부채 증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취약계층 소득 불안(서민 금융 지원 부족), 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고용 및 노동 불안정	청년 일자리 부족,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증가, 어려운 재취업, 고용률 하락,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도동 문제,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일자리 정책 문제
안전하고 행복한 삶 (Society)	교육 불평등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교육 수혜 격차 심화(조기유학 증가 등), 양질의 교육 부족, 고등교육의 질 저하,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삶의 질 저하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화귀·난치성 질환 지원 부족,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 부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저출생 문제,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발전 불균형,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학교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 부족,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사회통합 저해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성별격차 및 성차별,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편견 및 차별, 노사갈등 심화, 만연한 특권과 편법
	안전 위협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아동학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학교폭력, 가정폭력,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지구 온난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미세먼지 증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자연재해	폭염·한파 증가, 가뭄·홍수 증가, 태풍 증가, 폭설과 폭우 증가, 지진과 쓰나미 증가, 화산폭발 위험 증가,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대형산불 증가, 산사태 증가,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전력수급 불안정, 물순환 개선 및 재이용 부족

‘2025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CSES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센터장 장용석 교수)가 2017년 국내외 사회문제 지표 및 기준을 분석하여 개발한 ‘新사회문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트리플라잇의 미디어 분석 및 사회문제 우선순위 평가방법론을 바탕으로 100개 이슈와 분류체계의 매칭을 통해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 인식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응력 회복 방안을 제언하고자 국민들의 생각을 묻고 정리했습니다.

② Business Impact 기업의 문제 해결을 통한 기회 창출 이슈 발굴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이슈 영역은 무엇일까요. 국내 산업군별 주요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 Pool을 취합하고, 재무중대성(Outside-in) 평가 점수를 활용해 이슈별로 비교했습니다. 이를 ‘2025 대한민국 사회이슈 100’와 연계하여 기업이 성장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슈 우선순위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 1,000명에게 ‘국내 대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슈’와 중대 이슈별 기업 평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업이 주목하는 사회문제와 비즈니스 임팩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③ Public Survey 일반 국민 설문조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회문제, 가치관에 따른 이슈 주목도, 기업을 향한 기대와 우려 등 다양한 문항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
조사 방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모바일 응답 *설문지 및 응답결과 데이터는 SV hub 웹사이트(svhub.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본 오차	±2.03%p (95% 신뢰수준, 표집 상의 비율 할당 여부에 따라 단순임의추출 또는 층화임의추출 방식을 활용)
조사 기간	2025년 5월 21일 - 5월 27일

④ Data Analysis 데이터 및 사회문제 분석

‘2025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선정된 100개 이슈별로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EF(세계경제포럼), World Bank(세계은행), TI(국제투명성기구) 등 OECD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이슈별 한국의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일반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매칭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다 통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도출한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위험과 기회요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액션 방향 등을 연계하여 짚어봤습니다. 또한 국민의 인식 격차와 갈등 심화에 따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격차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에서 다룬 변수간 격차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만 보고되었습니다.

⑤ Implication 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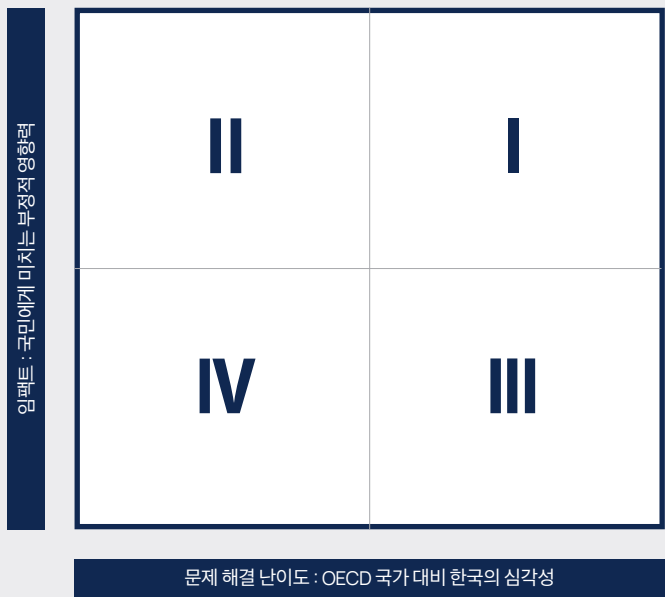
미디어 분석, 기업의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 도출, 일반 국민 설문조사, OECD 38개국 대비 한국 순위 등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과 종합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Methodology 연구 프레임워크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 수준을 분석하는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액션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을수록 모든 주체의 협력과 자원 및 역량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수준이 낮고, 문제해결 난이도가 낮을수록 다양한 실험과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 Impact Issues Priority Matrix



Y축

영향력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영향력은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현재와 미래 사회문제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100점 만점으로 도출한 값이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10년 후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거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응답자가 선택하는 사회문제는 ‘2025 대한민국 사회문제’의 3대 목표, 10대 사회문제 테마, 100대 이슈를 기반으로 제시됐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수록, y축값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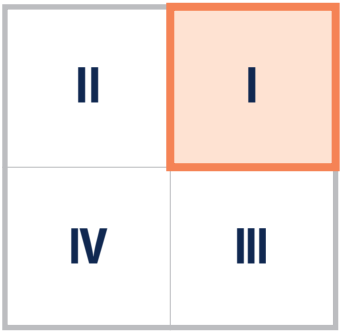
P28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현재와 미래 이슈

X축

문제 해결 난이도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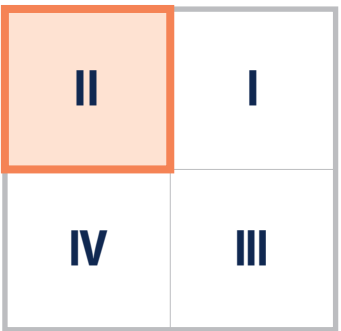
문제해결 난이도는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도출한 값이다. ‘2025 대한민국 사회문제’에 선정된 100개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OECD 38개국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이다.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하므로, 문제해결 난이도는 높아지며 X축값이 커진다.

P35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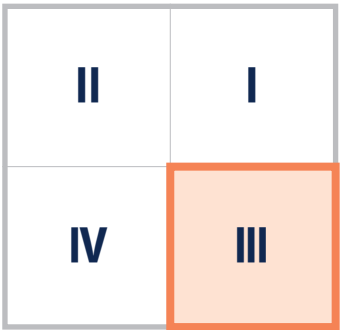
1 Do First

- 문제해결 난이도와 영향력이 높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사회문제들은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협력과 자원·역량 집중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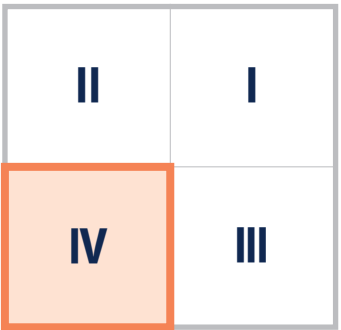
2 Do Plan

- 문제 영향력이 높고 난이도는 낮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사회문제들은 비교적 해결이 쉬우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역량·자원 계획을 통해 자원 낭비를 경계하고, 효율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3 Do Monitor

-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영향력이 낮은 영역으로, 해결이 어렵고 관심도 적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 및 모니터링과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인 연구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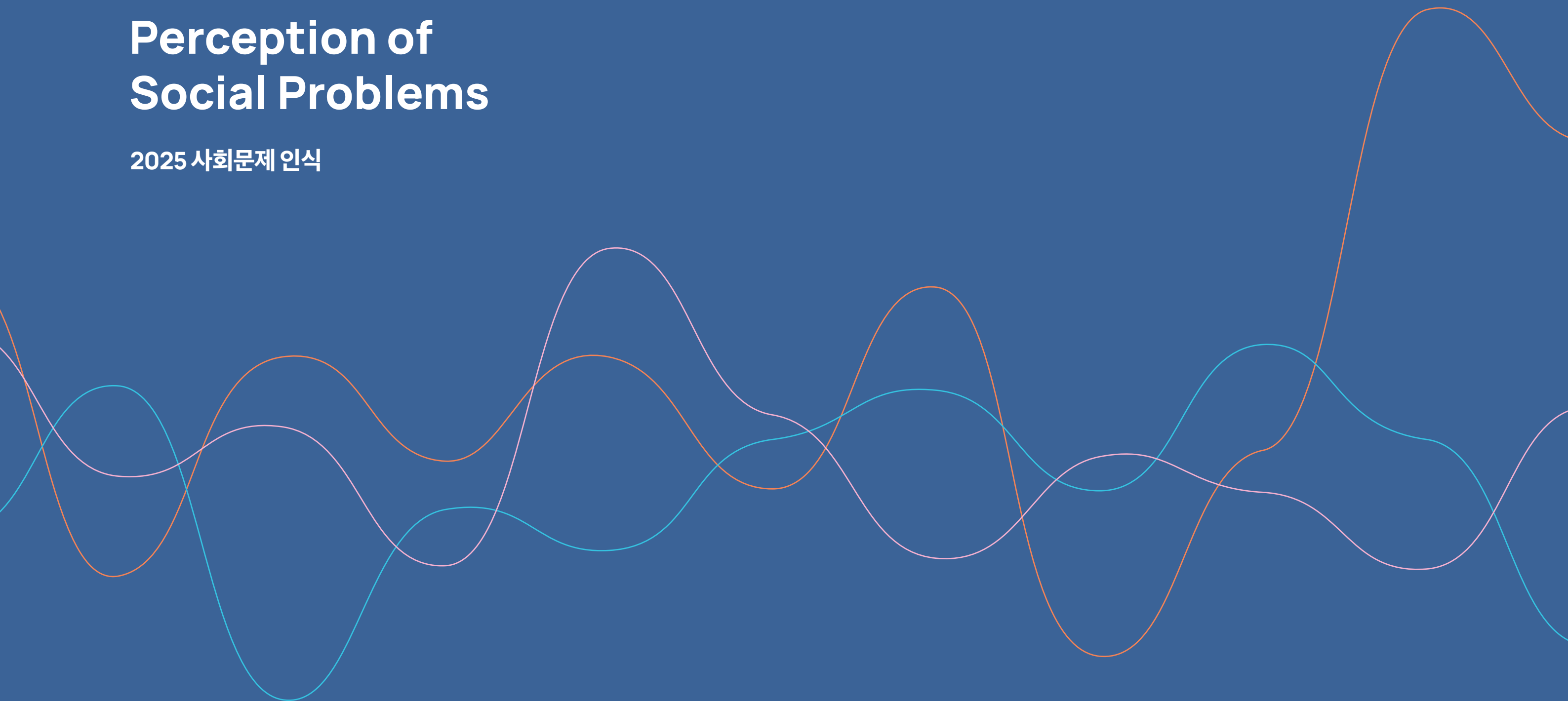
4 Delegate

- 문제 해결 난이도와 영향력이 낮은 영역으로, 관심이 적고 해결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자원의 적절하고 장기적인 배분이 중요합니다.
- 시민사회 및 개개인의 다양한 실험과 정부 및 기업의 지원,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CHAPTER 2

Perception of Social Problems

2025 사회문제 인식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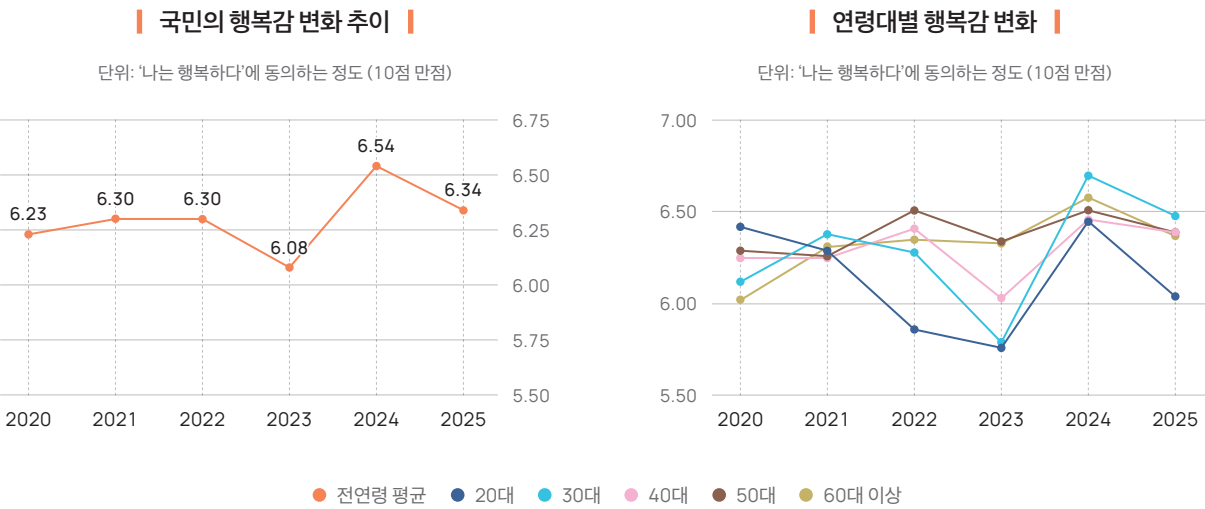
Social Perception 사회인식 조사

국민의 행복 수준, 2025년 하락 추세로 전환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과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6년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2025년 국민들의 행복감은 5년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최저점(6.08점, 6년 평균 6.3점)을 찍은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던 ‘국민 행복도’가 2025년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인 20대와 30대의 행복감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대는 2021년 이후 매년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전년도 대비 하락폭도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국가 차원의 큰 변화와 사건들이 청년 세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됩니다.

국민의 행복감 변화 (2020~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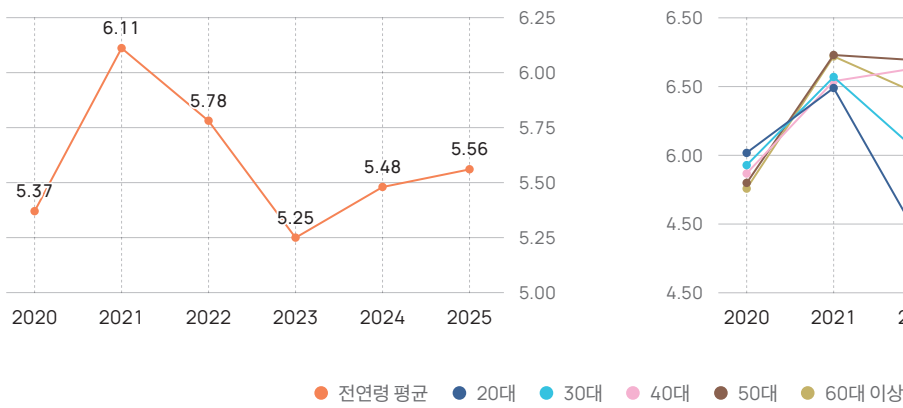
사회에 대한 평가, 2021년 이후 회복되지 못해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모습도 진단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사회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국민의 인식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간 차이가 거의 없었던 2020년에 비해 2021년 이후 연령대별 격차가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2020년 최고점과 최저점 간 차이가 0.26점(10점 만점)에서 2025년 0.98점으로 벌어진 모습입니다. 행복도와 유사하게 사회에 대한 평가도 20대와 30대에서 2021년 대비 2025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5년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도가 하락한 것과 달리, 사회에 대한 평가는 40대와 50대에서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합니다.

국민의 한국 사회 평가 (2020~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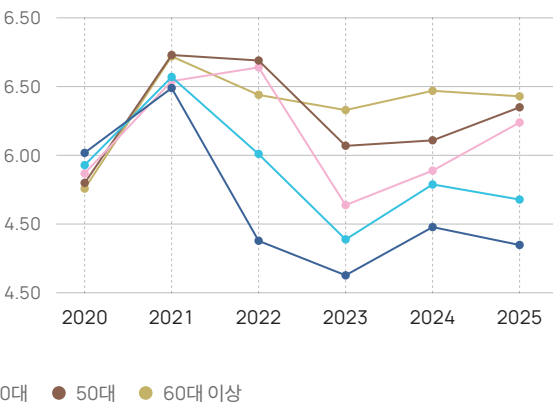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국민 평가 추이

단위: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이다'에 동의하는 정도(10점 만점)



연령대별 사회에 대한 평가 변화

단위: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이다'에 동의하는 정도(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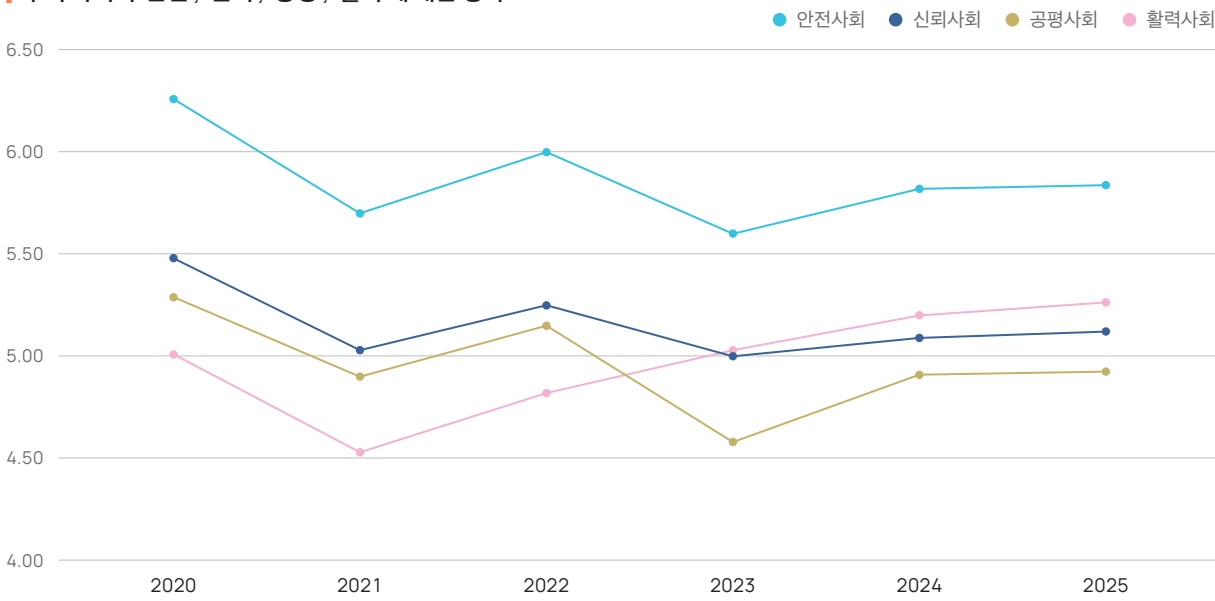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 시급해

국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는지 구체화하기 위해 안전사회, 신뢰사회, 공평사회, 활력사회¹로 구분하여 진단해 보았습니다. ‘안전사회’에 대한 평가(평균 5.84점)가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력사회’에 대한 평가는 2020년 가장 낮았던 것에서 2021년 이후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공평사회’에 대한 평가는 2023년부터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안전사회’, ‘신뢰사회’에 대해 20대와 3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전한 사회(안전사회)’인지 묻는 질문에서 20대는 2020년 6.01점에서 2025년 5.56점으로, 30대는 6.46점에서 5.65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평가가 20~30대에서 유독 낮은 이유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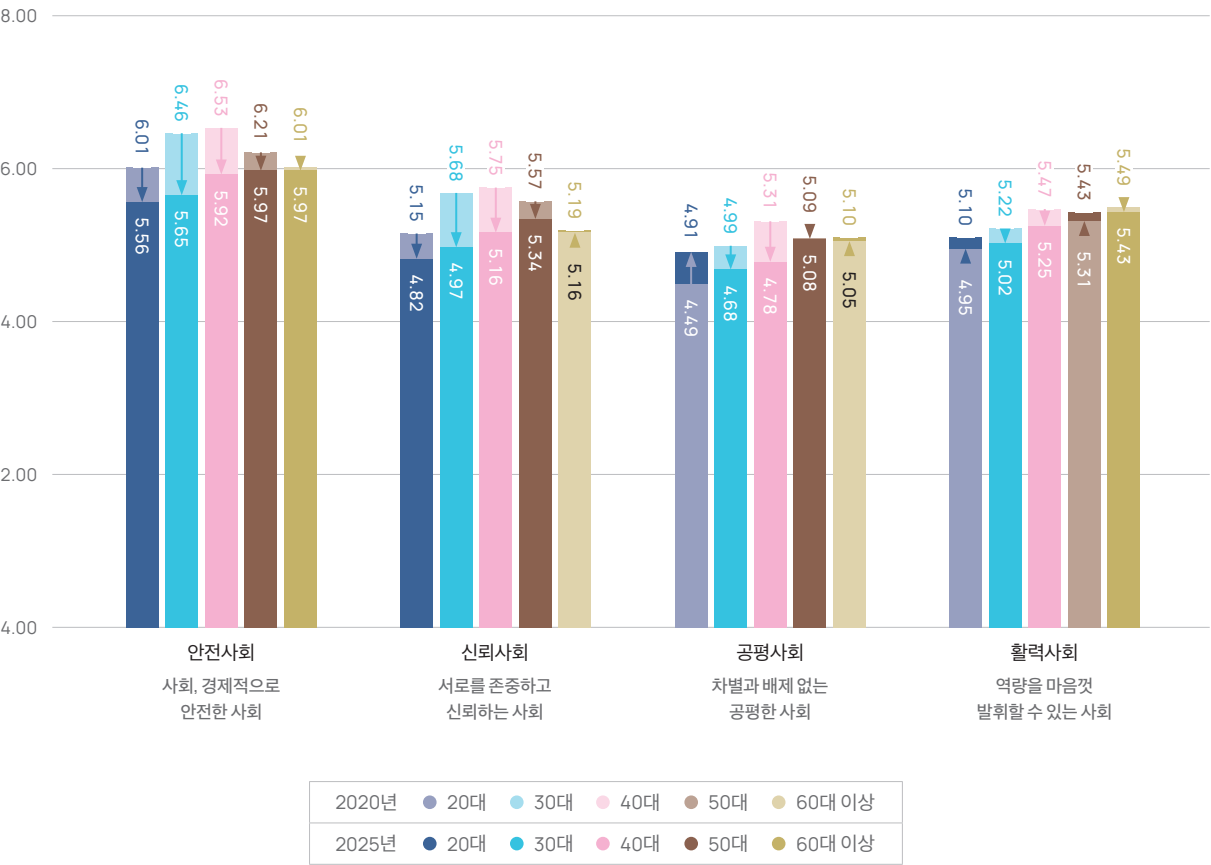
¹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2020년부터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살기 좋은 사회’의 특징을 안전사회, 신뢰사회, 공평사회, 활력사회로 설정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음. 참고 연구: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C. Wilker(2005), Yang&Holzer(2006), Peters(2002),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재열 외(2015)

우리 사회의 ‘안전’, ‘신뢰’, ‘공평’, ‘활력’에 대한 평가



연령대별 사회인식 (2020 vs 2025)

단위: 점(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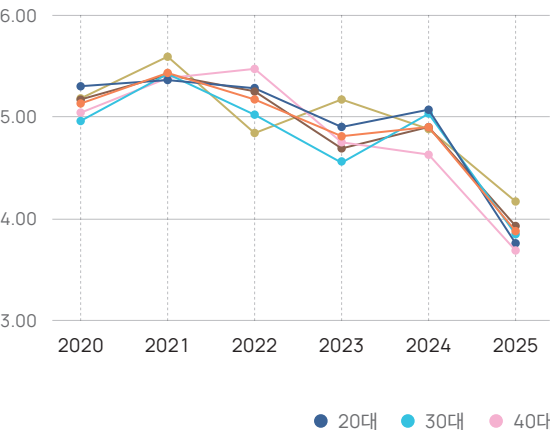


2025년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 6년 중 최저치로

국민들은 2025년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 상황 모두 10점 만점 중 5점 미만을 보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부터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2025년에는 역대 최저치(3.89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2023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수준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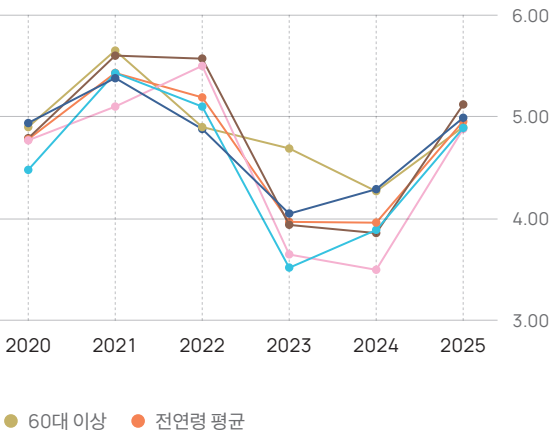
국가경제 상황

단위: 점(10점 만점)



가정경제 상황

단위: 점(10점 만점)



지난 6년간 국가 경제에 대해 30~40대의 우려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40대의 경우 전체 연령 평균 대비 국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가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024년에는 20~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나, 올해에는 50~60대 이상 국민의 평가보다 낮아진 모습입니다. 한편 40대의 평가는 최고점이었던 2022년 이후 가장 빠르게 하락(연평균 12% 감소)하며 올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가정경제에 대해서도 30대(4.55점)와 40대(4.57점)의 평가가 2025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6년 평균치가 가장 낮았으며, 40대는 2023~2024년 가장 낮은 점수를 썼습니다. 올해에는 20대와 50대만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5점을 겨우 웃돌았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비와 지출이 많아지는 30~40대의 우려가 가장 높은 만큼, 이들의 니즈와 문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책을 설계해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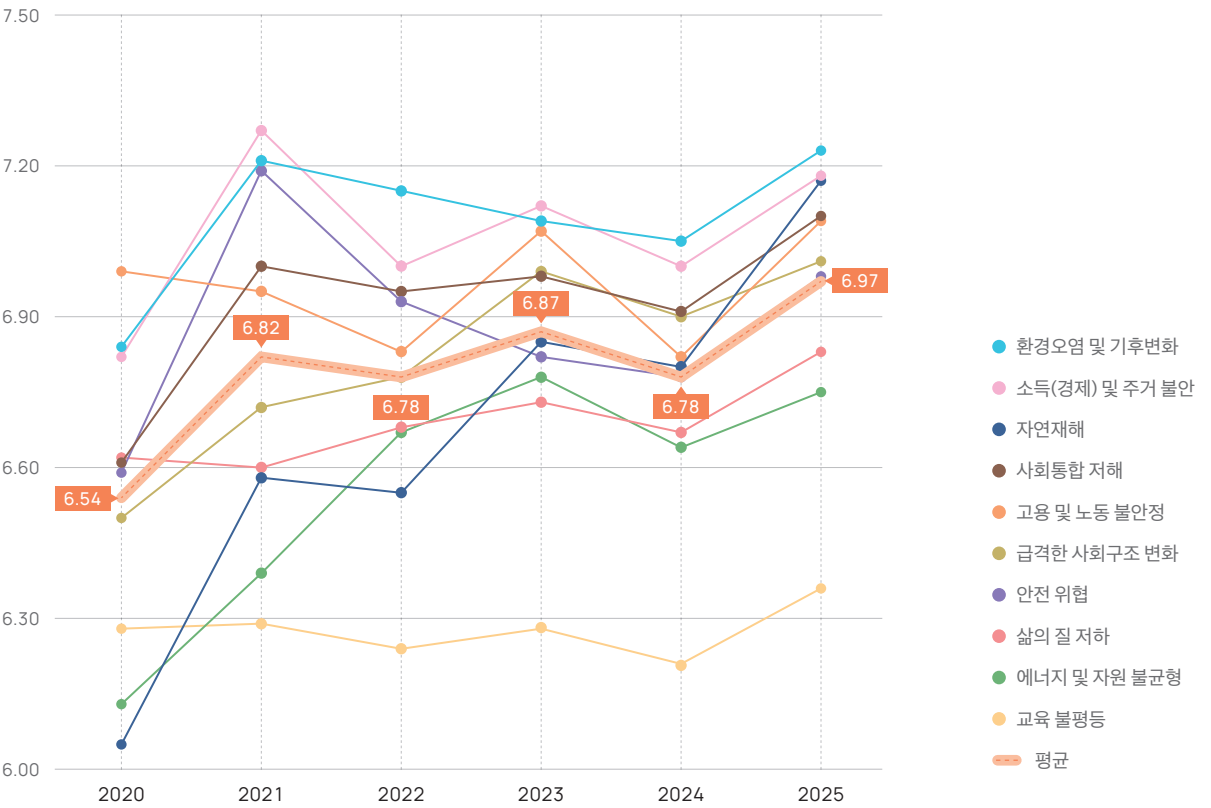
Issues & Impact: Looking back and forward :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사회문제 10대 테마로 들여다본 국민의 삶

사회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2025년 역대 최고치로

사회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알아봤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6년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문제로 인해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 2025년, 6.97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대 사회문제 테마별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변화

단위: 점(1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큼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살펴보면, 2025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준 사회문제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7.23점), 소득 및 주거불안(7.18점), 자연재해(7.17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는 2024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자연재해는 지난해 6위(6.80점)에서 올해 3위(7.17점)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2025년 국민의 삶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회문제가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인 것으로 나타나 환경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2025년 4월에 있었던 대형 산불이 국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교육 불평등 문제는 지난 6년간 국민의 삶에 끼치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은 테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정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4-2025 국민의 삶에 미친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 Top 30

그렇다면 국민들은 최근 어떤 사회문제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낄까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커진 Top 30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GS샵 158만명 개인통관부호·주소 유출, 알바몬 개인 인력서 2만2,000건 유출 등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국민들의 우려도 커진 모습입니다. '일·생활 불균형', '폭염 한파 증가', '소득 양극화 심화'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부정적 영향력 Top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 대통령 탄핵, 선거 등의 영향으로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이슈가 작년 9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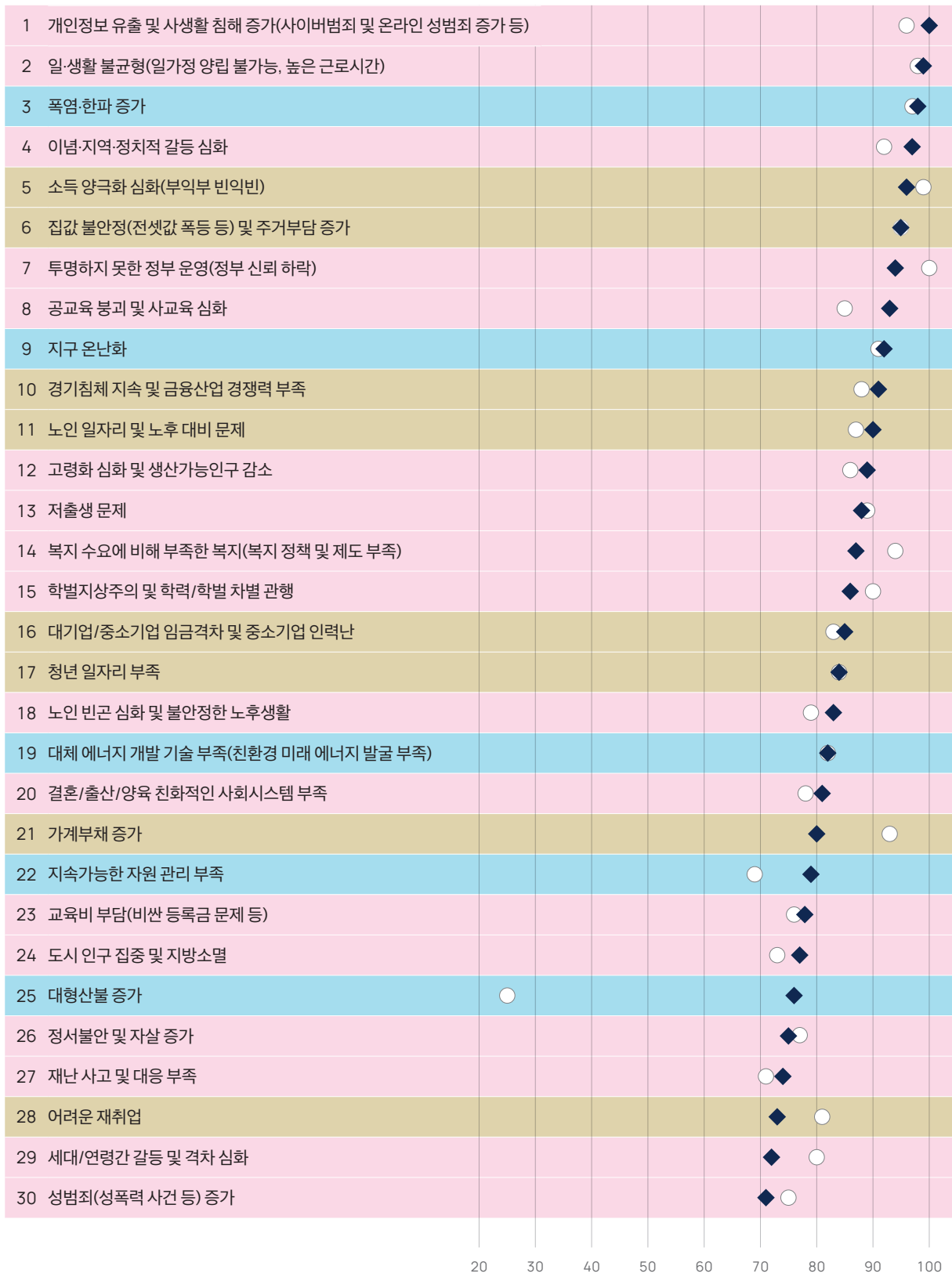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문제는 지난해 1위에서 올해 7위로 떨어진 반면,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이슈는 2024년 16위에서 2025년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 30위권 밖에 있었던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32위 → 22위)', '대형 산불 증가(73위→25위)' 이슈는 20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반면,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과 생활 폐기물 배출(27위 → 31위)'과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29위 → 44위)' 문제는 30위권 밖으로 내려갔습니다. 국민들의 환경 문제 실천과 문제 인식은 수준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자원 관리·대형 산불 등의 문제는 심각해져 국가 차원의 기후 위기 관리가 적극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4-2025 국민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력 Top30

단위: 점(임팩트, 현재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 2024 ◆ 2025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경제적 현실 개선과 미래 환경 위기 대비를 기대하는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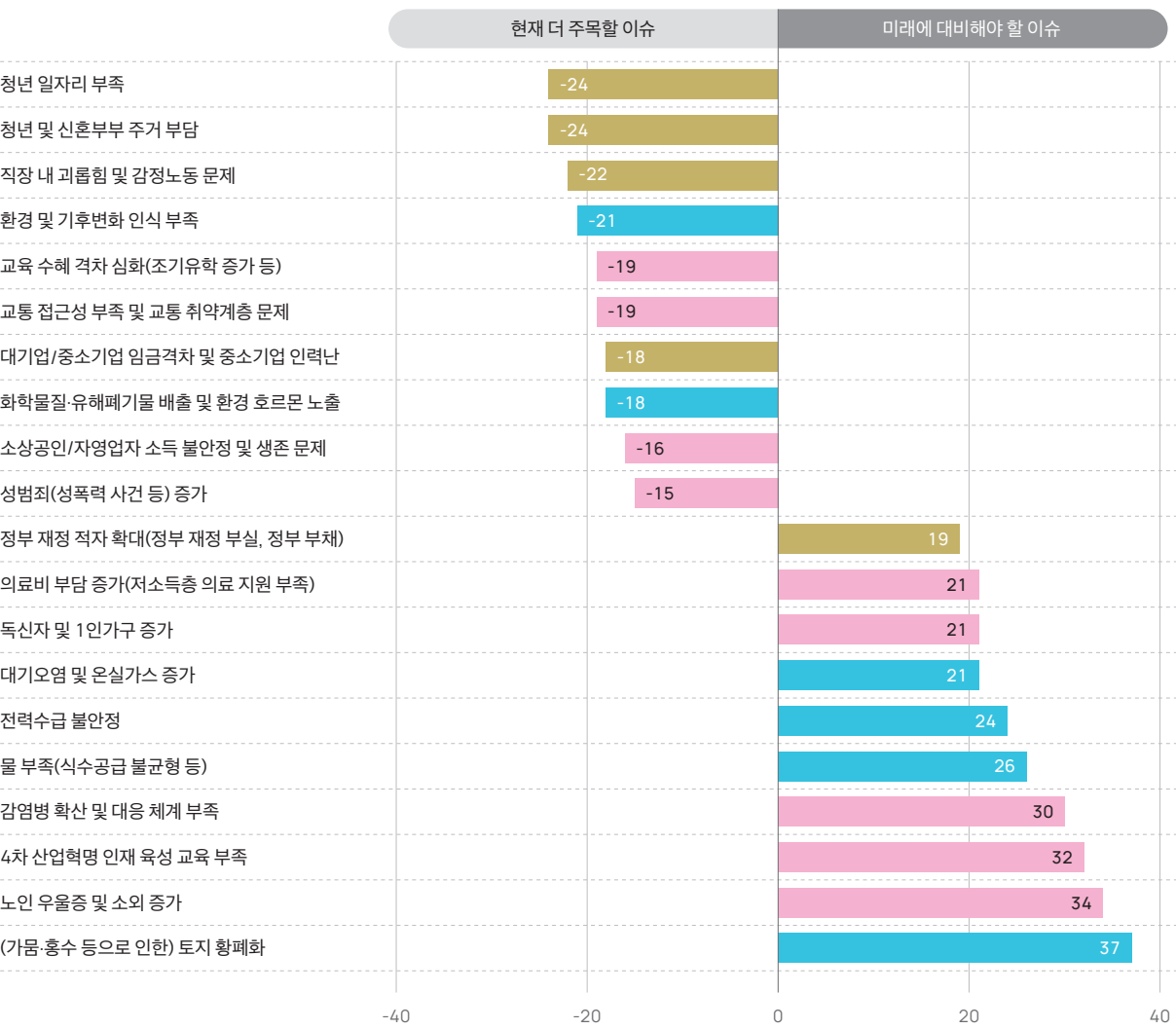
현재에는 경제적 이슈 해결에, 미래에는 기후 위기 대응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경제 이슈로 '청년 일자리 부족',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를 꼽았습니다. 미래 보다 현재에 더 집중해야 하는 상위권 이슈에 청년 일자리와 주거 부담 문제가 떠오른 만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없었던 '교육 수혜 격차 심화',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이슈가 현재 가 현재 집중해야 하는 Top10에 오른 만큼 교육 및 교통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정책화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재 보다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이슈로는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자연재해'와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4차 산업혁명 인재 핵심 교육 부족' 문제가 꼽혔습니다. 특히 환경 테마 중에서는 '자연재해', '물 부족', '전력 수급 불안정',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이슈가 현재 보다 미래에 대비해야 할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보다는 중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며 긴 호흡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vs 미래 더 중요한 이슈

단위: 점(미래 영향력에서 현재 영향력을 뺀 값)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Difficulty Level of Problems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Korea Social Problems & Difficulty Level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사회문제 심각성과 해결 수준

앞서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 수준은 어떨까요.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해결 수준이 가장 낮은 문제(90점)는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저출생 문제',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90',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90', '해수면 상승 90', '미세먼지 증가 90', '토지 황폐화 90'입니다.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90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90	저출생 문제 90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90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90	해수면 상승 90	미세먼지 증가 90	토지 황폐화 90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90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9	아동학대 88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중소기업 인력난 87	가정폭력 증가 85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85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83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83	어려운 재취업 81	장애인 등 사회취약자 차별 8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사업장 안전관리, 근로자 보상 문제 등) 80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79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부족 (취약계층 복지 부족) 78	가계부채 증가 77	학교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 부족 76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75	성별격차 및 성차별 73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73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72	태풍 증가(태풍으로 인한 피해) 71
고등교육의 질 저하 70	교육비 부담 (비싼 등록금 문제 등) 69	노사갈등 심화 67	폭설과 폭우 증가(폭설과 폭우로 인한 피해) 67	청년 일자리 부족 65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65	만연한 특권과 편법 64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63	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62	고용률 하락 60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60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59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증가 58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57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55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부족 55	회귀·난치성 질환 지원 부족 54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53	의료비 부담 증가 (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51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51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50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49	양질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48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47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46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 지원 부족 45	지구 온난화 44	재난사고 및 대응 부족 41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41	전력수급 불안정 41
지역발전 불균형 40	구민 및 인력난 39	양질의 교육 부족 37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37	가뭄·홍수 증가(가뭄·홍수로 인한 피해) 36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34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호르몬 노출 34	대형산불 증가 33	취약계층 소득 불안(서민 금융 지원 부족) 32	
일자리 정책 문제 31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30	투명하지 못한 정부운영(정부 신뢰 하락) 29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27	폭염·한파 증가(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27	기후변화 감사·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25	지진과 쓰나미 증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 25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교육 부족 24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 23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21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21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19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편견 및 차별 19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18	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17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폐기물 배출 16	물 순환개선 및 재이용 부족 15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14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소상공인 생존 문제 13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12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취약계층 문제 11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성범죄 증가 등) 10	산사태 증가 9	전로 및 직업교육 부족 8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7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6	교육 수혜 격차 심화(조기유학 증가 등) 5	디지털 및 정보격차 심화 4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3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Note '2025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선정된 100대 이슈 중 한국에서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외한 98개 이슈를 바탕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순위를 '문제 해결 난이도(100점 만점)'로 환산해 도출한 값이다. 문제 해결 난이도는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최신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OECD 국가별 순위를 분석했다. 이슈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한 OECD 국가 수는 차이가 있으며,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다고 해석했다.

Issue Tracking

테마별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은 주요 이슈

‘2025 한국이 주목하는 100대 사회이슈’ 중에서 OECD 주요국 대비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은 이슈를 10대 테마별로 살펴봤습니다.

사회문제 10대 테마별 문제 해결 난이도 Top10 이슈

단위: 점(난이도)



Note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OECD 주요국 대비 한국 순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국제 대비 사회문제 해결 심각성 수준을 나타낸 값이다. OECD 주요국 대비 순위가 낮을수록 심각성 점수가 높게 계산된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대기업 불공정 거래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거래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독과점 순위 조사에서 한국은 34위를 기록해, 기업 활동이 소수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여전히 대기업 독점 구조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중소기업 인력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1인당 보수 격차는 1.78배로 OECD 26개국 중 24위입니다(2020 제조업 기준). 이는 2018년(1.54배)보다 더 차이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한국보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큰 국가는 그리스(1.82배)와 튀르키예(1.87배) 뿐입니다.

교육 불평등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사교육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교육의 기반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민간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이 연간 36,1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질 저하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취약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해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68.6%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OECD 평균(89.2%)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2022년 기준). 이는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66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한국은 OECD 평균(15.4%)보다 24.3%p 높아 평균의 두 배 이상 수준입니다. 2021년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늘었지만, 한국보다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인 국가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유일하게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에스토니아도 41.3%에서 37.4%로 하락하며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회통합 저해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0년 OECD의 ‘Public spending on incapacity’ 지수에서 한국은 GDP 대비 0.816%로, 조사된 회원국 11개국 중 8위였습니다. 이 지표는 장애·질병·산업재해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현금 급여와 재활·돌봄 서비스 지출을 종합한 것으로, 한국의 낮은 수준은 사회적 약자 지원 체계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안전 위협

아동학대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 아동 10만 명당 501.9건으로 전년대비 100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2022년 384.7건으로 줄었지만, 4년 전(2018년)과 비교해 83.5건 많은 수치입니다. 국가별 비교가능한 데이터인 아동의 주거 안전감(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8, 10, 12세 아이들의 비율)을 보면 OECD 16개국 중 15위(2016-2019년 기준)로 최하위권입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과 요구 수준에 비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는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매년 COP(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되는 국제 지표인 기후변화 수행지수(C 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한국은 3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이용, 기후 정책 등 네 가지 범주를 종합해 산출됩니다.

자연재해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토지 황폐화

한국의 토지 손실 비율은 측정 시작 연도인 2005년부터 OECD 38개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1.9%로 OECD 평균(2.3%)의 5배가 넘고, 37위인 이스라엘(8.6%)과도 3.3%p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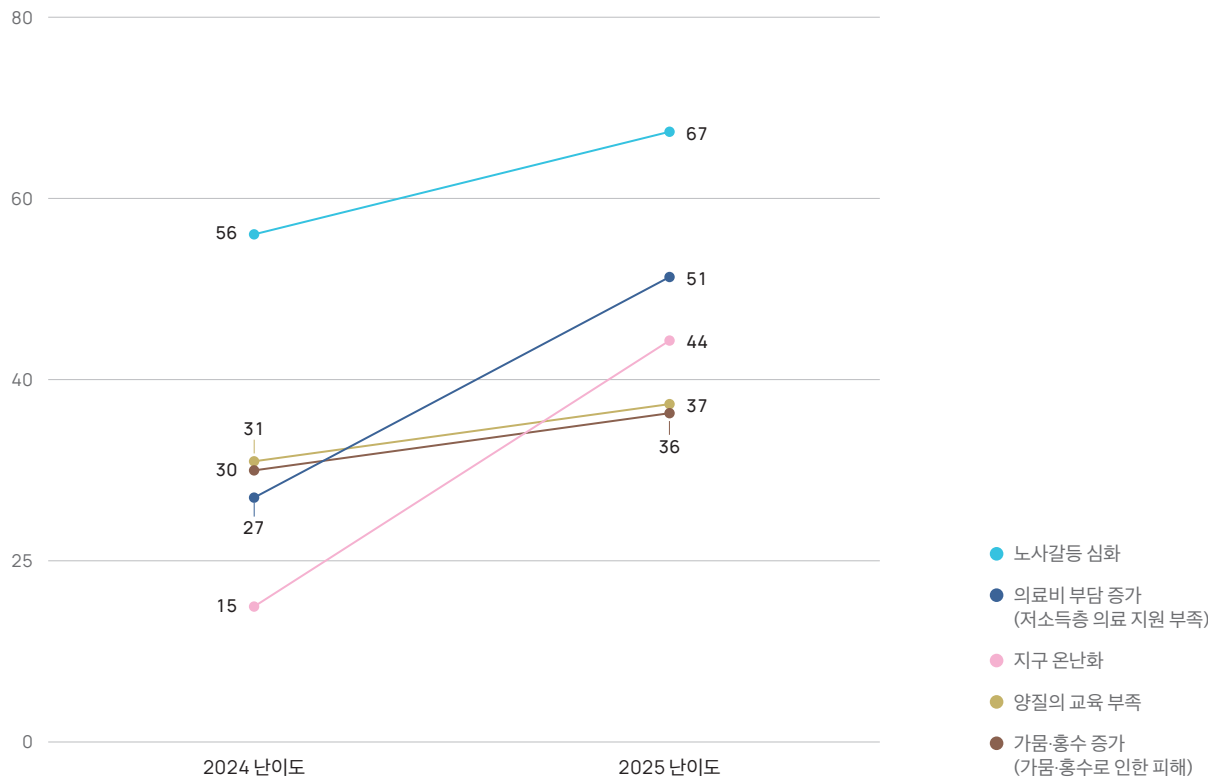
2021년 OECD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2.1%로 38개국 중 38위였으며, 바로 위 순위인 이스라엘(5.1%)과 일본(7.1%)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년 대비 문제 해결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한 이슈

지난해와 비교해 더 해결하기 어려워진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OECD 주요국 대비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진 5개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문제 해결 난이도 급등 이슈 Top5

단위: 점(난이도)



올해 난이도 상승폭이 가장 큰 이슈는 '지구 온난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5점에서 44점으로 무려 193.3%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한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이미 2024년과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 13.7도로 역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2015~2024년 폭염일수도 평균 15.6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문제는 OECD 38개국 중 22위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난이도가 88.9%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50,735건)와 금액(1,582억원)이 2024년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뭄·홍수 증가', '노사갈등 심화', '양질의 교육 부족' 문제도 작년에 비해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ublic Perception of Solutions
사회문제 해결 인식

Collective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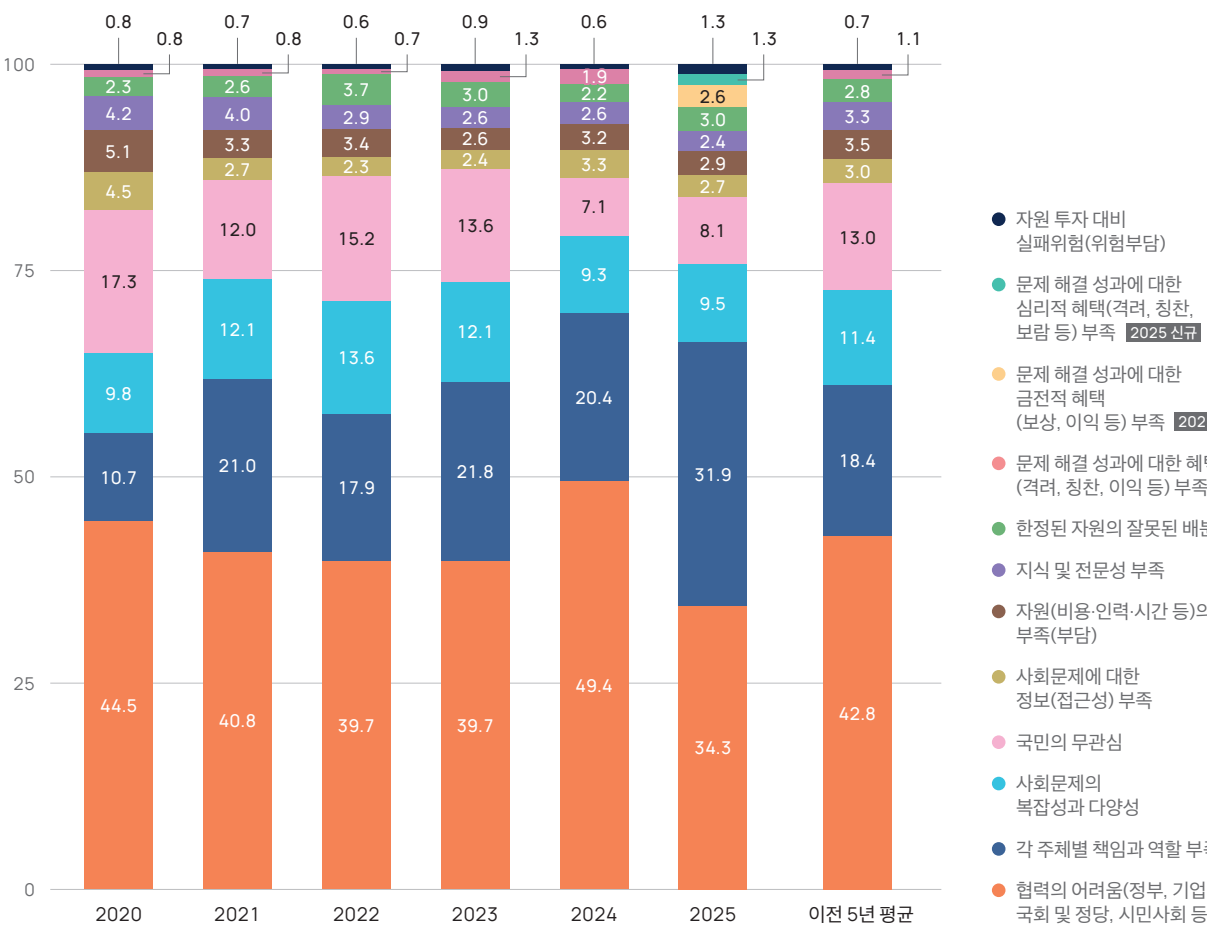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

문제 해결 주체간 명확한 책임 인식과 협력 중요해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커지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주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6년 연속 1순위로 '정부, 기업, 국회 및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6년 평균 41.4%)'이 꼽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매년 2순위였던 '각 주체별 책임과 역할 부족'이 올해 31.9%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에 앞서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2위를 차지하던 '국민의 무관심'이 2025년 4위로 감소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2025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선택 비율)



사회문제, 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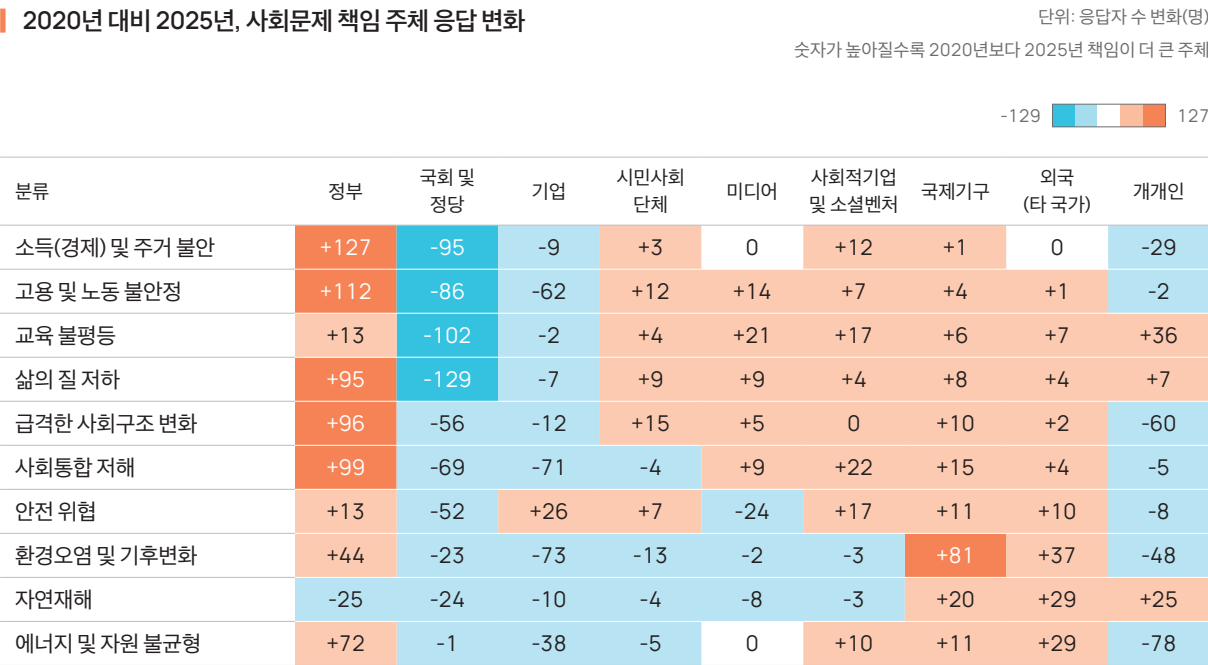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 대비 2025년 문제의 책임 주체와 문제 해결 주체의 국민 인식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정부 책임 가장 크다고 느껴…기업은 안전, 국제기구는 환경 문제에 책임 있다고 인식해

국민들은 자연재해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 2020년 보다 2025년 정부의 책임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및 주거 불안(▲127명), 고용 및 노동 불안정(▲112명), 사회통합 저해(▲99명),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96명), 삶의 질 저하(▲95명)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상대적으로 크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정부에게 1차적인 문제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국제기구, 외국 등 다른 주체에 대해서도 2020년 대비 2025년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미디어는 교육 불평등,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는 사회통합 저해, 국제기구와 외국(타 국가)에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개개인의 책임은 교육 불평등, 삶의 질 저하, 자연재해를 제외한 7개 테마 모두 2020년 대비 2025년 책임의 크기가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2020년 대비 2025년, 사회문제 책임 주체 응답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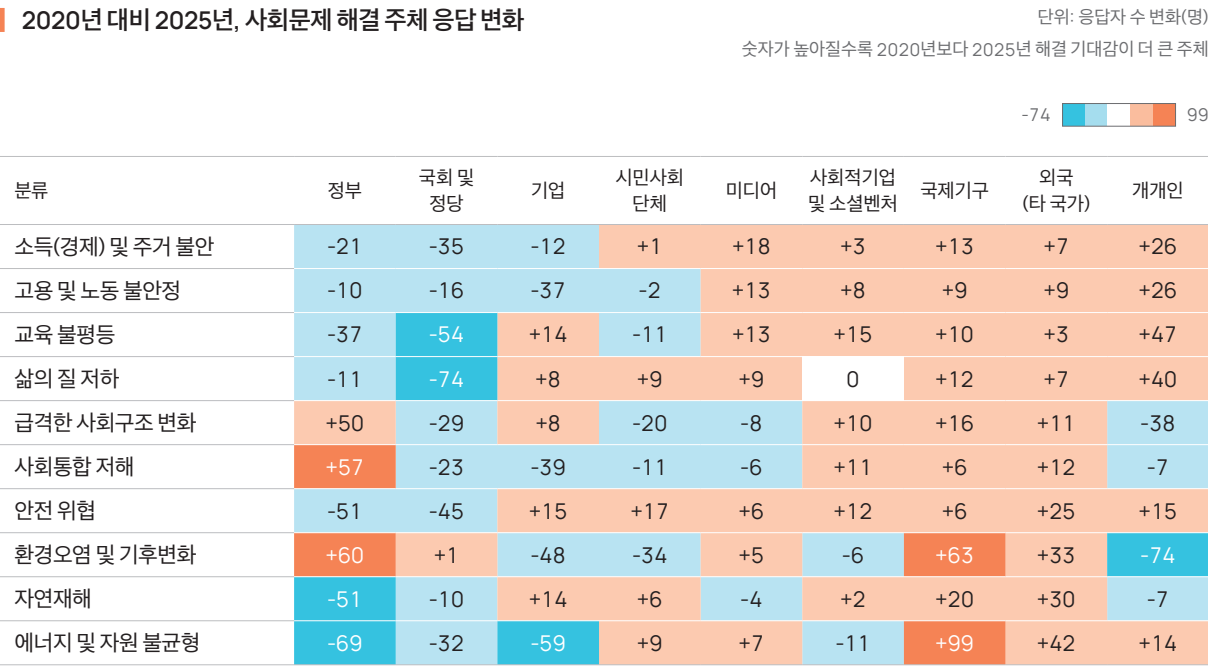
정부와 더불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해

2020년과 달리 2025년에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란 기대가 줄어든 반면, 국제기구와 외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자연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6년새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사회통합 저해,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라 더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 주체로서 국회 및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삶의 질 저하, 교육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2020년 대비 2025년 국회 및 정당의 문제 해결 기대감이 가장 낮아졌습니다. 기업을 통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문제를 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해결 기대감이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자원불균형 문제를 국제기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6년새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 외국(타 국가)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늘어나 외국(타 국가)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해결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소득 및 주거불안, 고용 및 노동불안정, 교육 불평등, 삶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2020년과 비교해 개개인의 역할과 문제해결 기대감이 더 커진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대비 2025년, 사회문제 해결 주체 응답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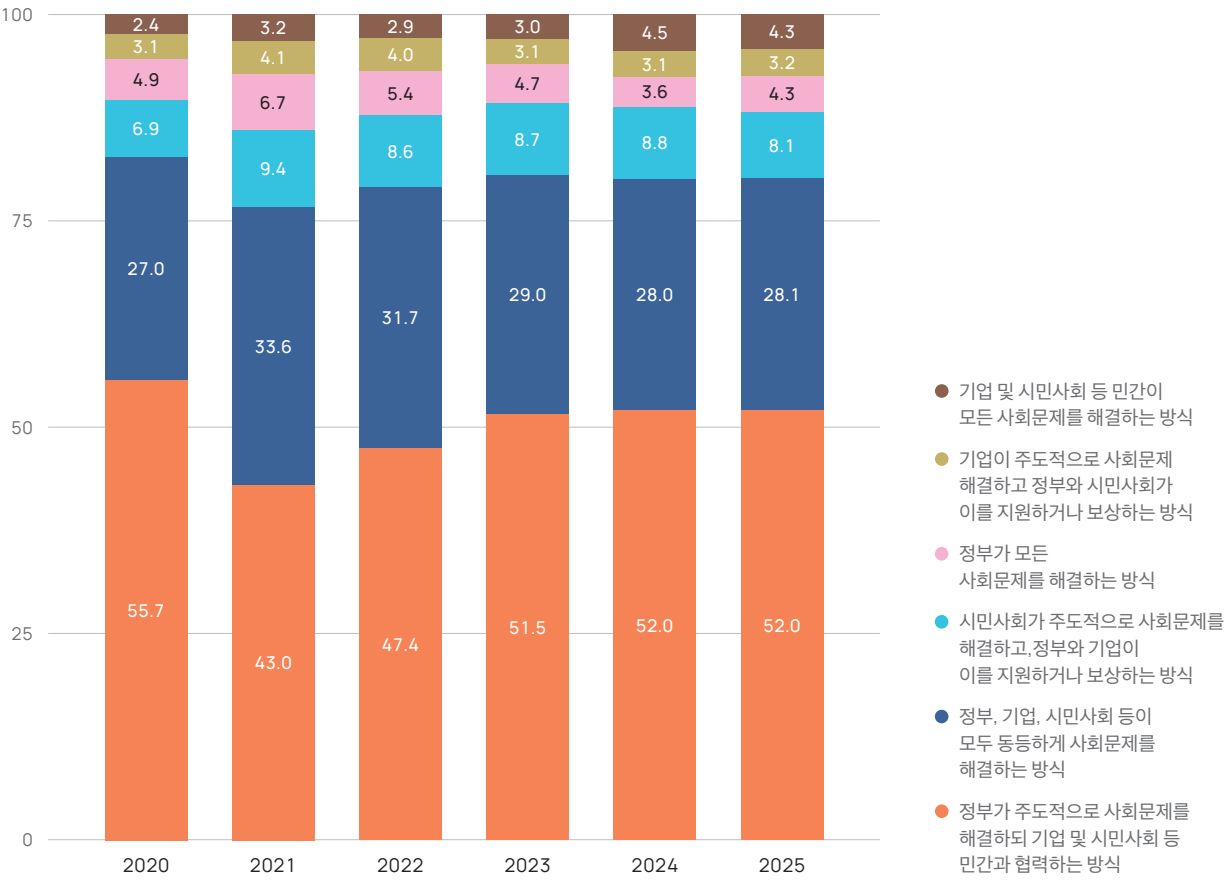


정부가 주도하되 기업·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 해결해야

그렇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요. 국민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되,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모습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모두 동등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라는 국민들은 6년 평균 29.6%로 2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2025 사회문제 해결 방식

단위: %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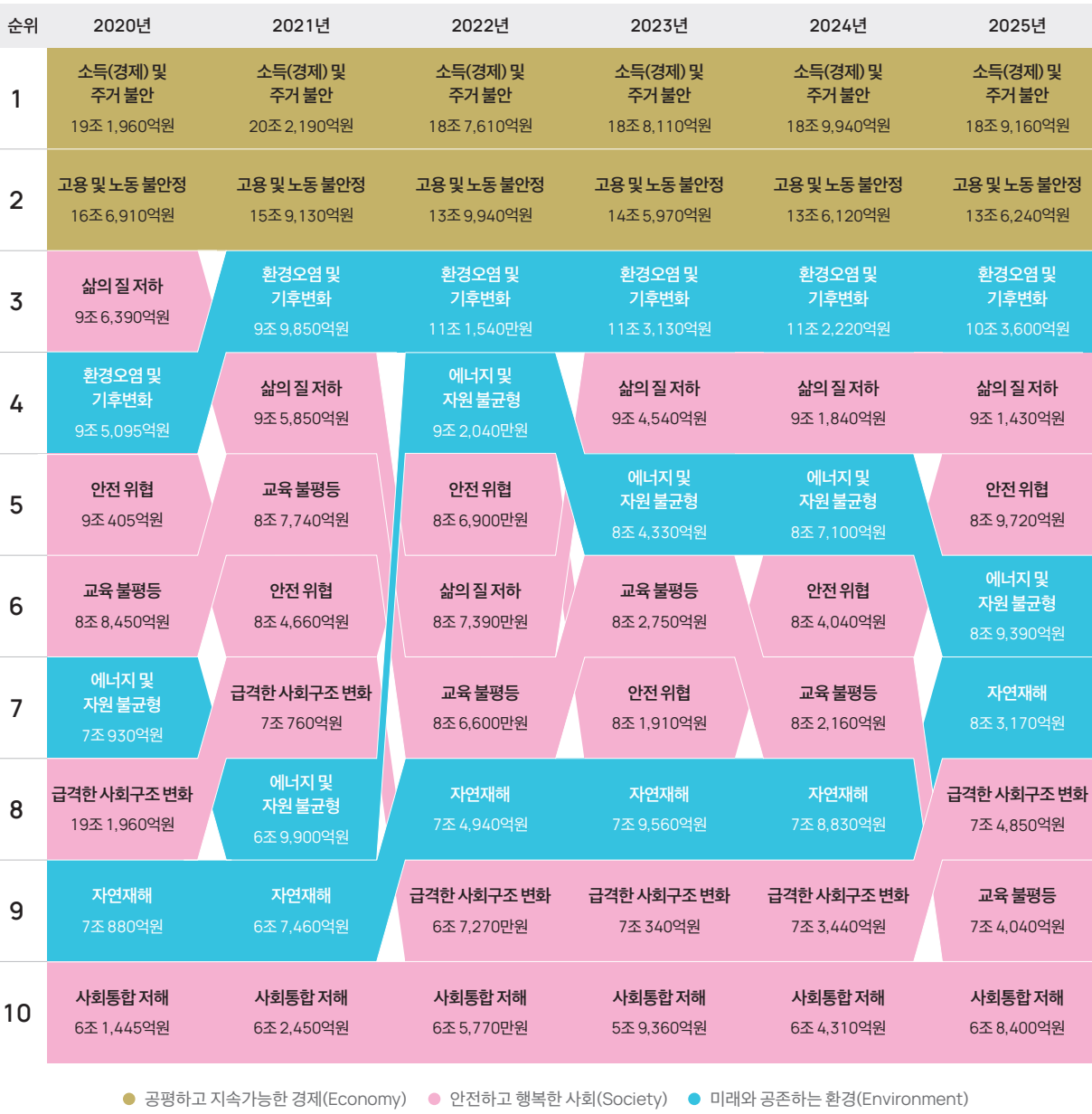
한편,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한 국민의 비율은 2020년 2.4%에서 2025년 4.3%로 2배 가량 높아졌습니다.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방식’은 2020년 6.9%에서 2025년 8.1%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Impact Action Analysis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행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이들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어떤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할까요. 또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문제 해결 액션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2020년 대비 2025년, 환경 이슈에 대한 예산 배정 크게 증가

국민들은 어떤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00조 원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 사회문제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국민이 배정한 문제해결 테마별 예산 총액과 2020 vs 2025 변화

	2020~2025 총예산	2020 대비 2025 예산 변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14조 8,970억원	-2,800억원
고용 및 노동 불안정	88조 4,310억원	-3조 670억원
교육 불평등	50조 1,740억원	-1조 4,410억원
삶의 질 저하	55조 7,440억원	-4,960억원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42조 7,540억원	+3,970억원
사회통합 저해	38조 1,735억원	+6,955억원
안전 위협	51조 7,635억원	-685억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63조 5,435억원	+8,505억원
자연재해	45조 1,495억원	+1조 5,635억원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49조 3,690억원	+1조 8,460억원

지난 6년간 국민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문제는 소득 및 주거 불안(114조8970억원), 고용 및 노동 불안정(88조41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테마에만 전체 예산의 약 35%가 몰렸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경제적 안정과 고용 문제를 사회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사회통합 저해에 대한 예산은 배정 총 38조1735억원으로 매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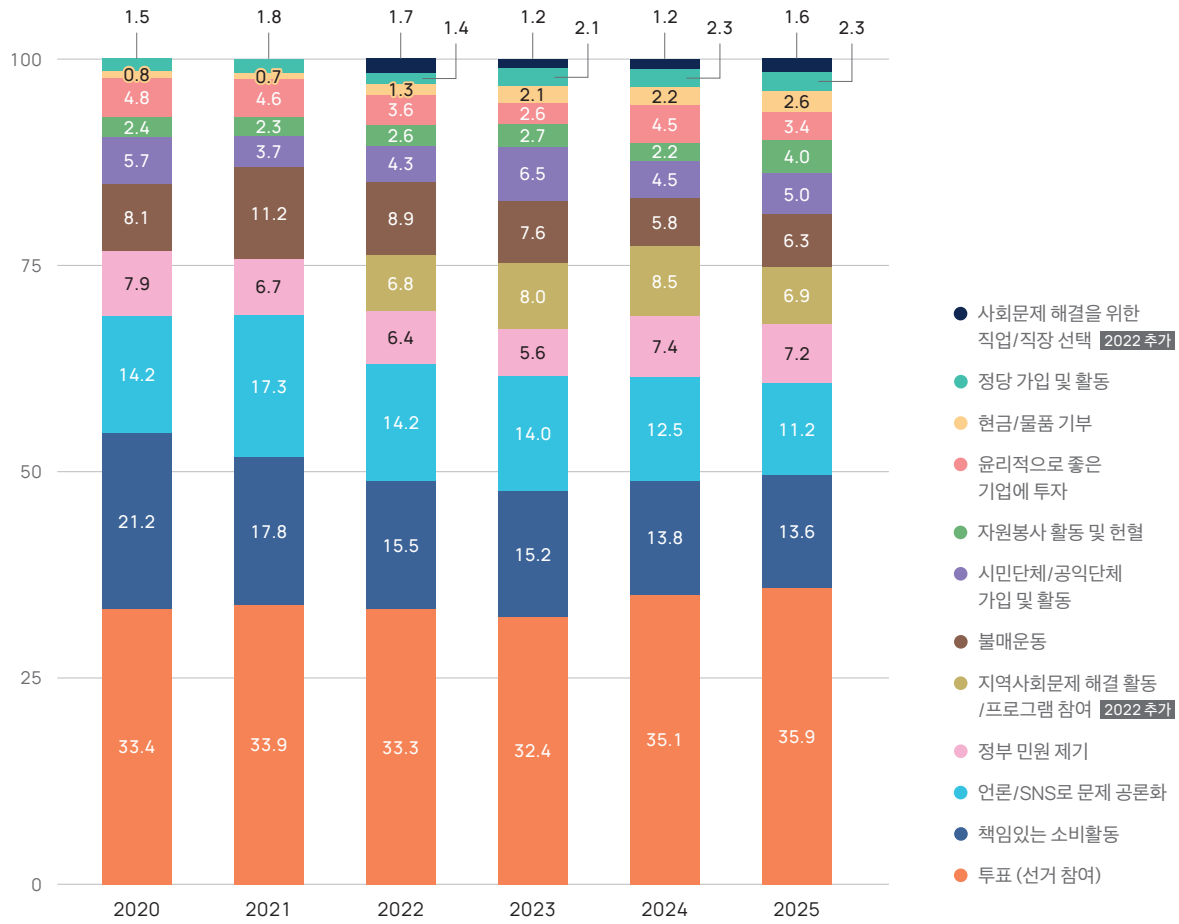
2020년과 비교해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문제는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으로 무려 1조846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연재해(▲1조5635억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8505억원)가 그 뒤를 이으면서, 환경 및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에 대한 예산 배정은 3조 670억원 줄었고, 교육 불평등은 1조 4410억원 감소하며 타 이슈 대비 중요성이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6년간 국민의 가장 큰 영향력 행사는 ‘투표’

그렇다면 국민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 중에서 어떤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체감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영향력이 큰 액션으로 투표(35.9%), 책임있는 소비활동(13.6%), 언론 및 SNS로 문제 공론화(11.2%)를 Top3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순위는 지난 6년간 동일했습니다. 불매운동은 2020년 8.1%에서 2025년 6.3%로 하락한 반면,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은 2.4%에서 4%로 증가했습니다. 현금 및 물품 기부도 2020년 0.8%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 2.6%로 올라왔습니다.

국민이 평가한 영향력 있는 액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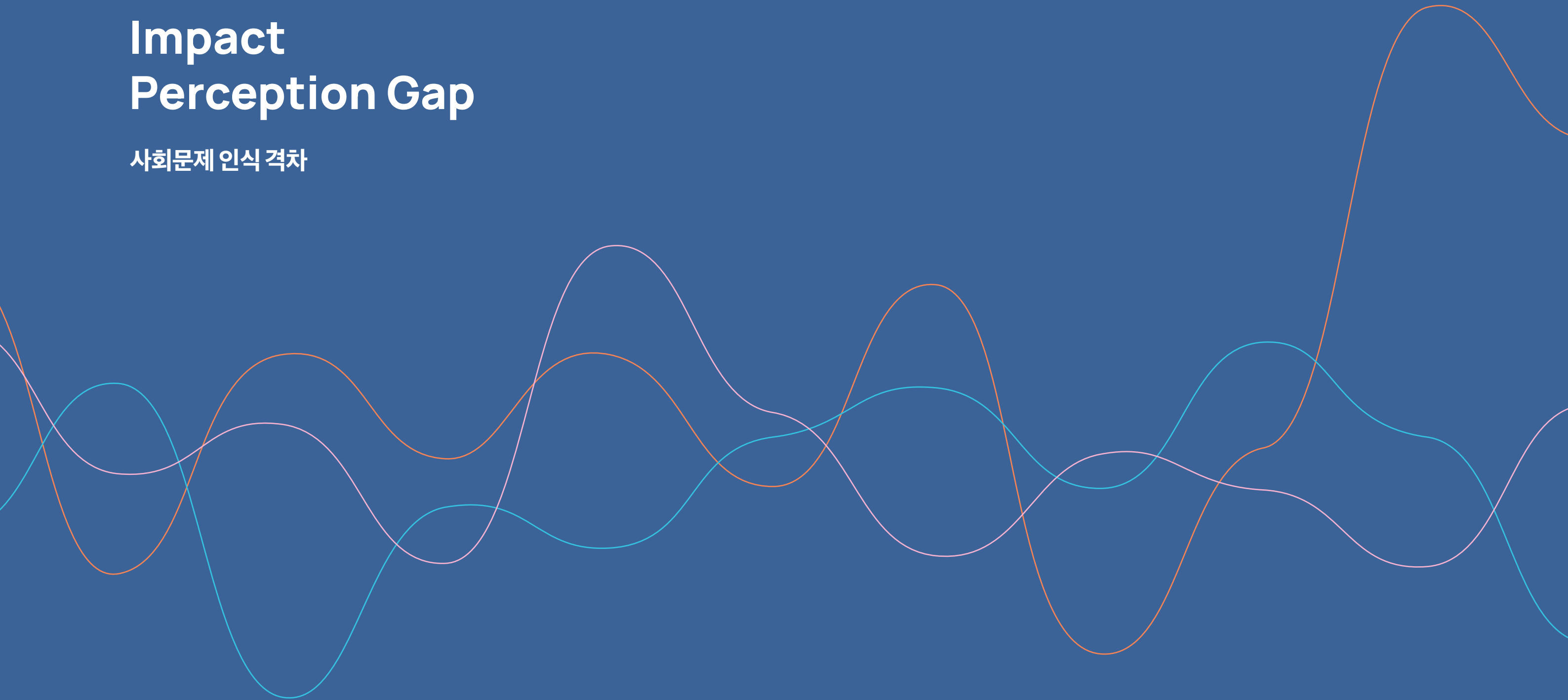
지난 6년간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2025년은 어느 때에 비해 국민들은 덜 행복하고 사회도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며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특히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무력감이 미래의 성장 동력인 20~30대에서 두드러져,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과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진단됩니다.

또한 국민들은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라고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이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투명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됩니다.

CHAPTER 3

Impact Perception Gap

사회문제 인식 격차



Perception Gap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격차와 원인

최근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질소득은 1.6% 감소했고,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15.8% 급등해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국민들의 행복도를 낮추고 사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관점의 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두고도 각자의 가치관과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국민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와 그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회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가능성과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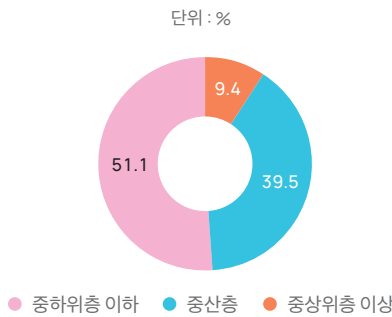
국민 절반, 자신을 중하위층 또는 하위층으로 인식…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도 엇갈려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계층을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으로 나눌 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분석 결과 국민의 절반(51.1%)이 자신을 ‘중하위층’ 또는 ‘하위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상위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중은 0.8%에 불과했으며, ‘중산층’이라고 답한 국민은 39.5%를 차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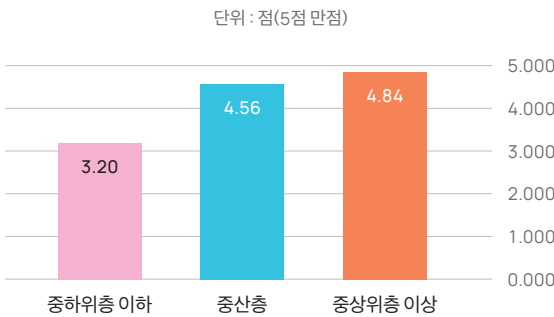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통계청 조사 결과로 나타난 한국의 실제 중산층 비율이 59.3%(2023년 기준)인데 반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39.5%에 불과한 것입니다. SNS, 유튜브 등 타인과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면서 실제 수준보다 자신의 계층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자신의 사회 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중상위층 이상이라고 답한 국민의 국가 경제 평가(4.84점)가 가장 높았고, 중하위층 이하로 갈수록 국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사회 계층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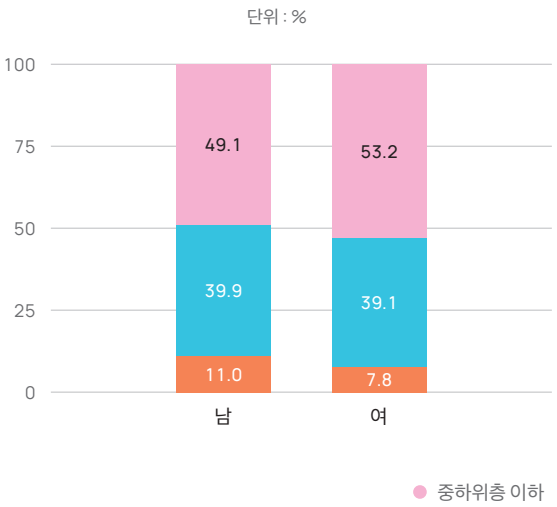


사회 계층 인식에 따른 국가 경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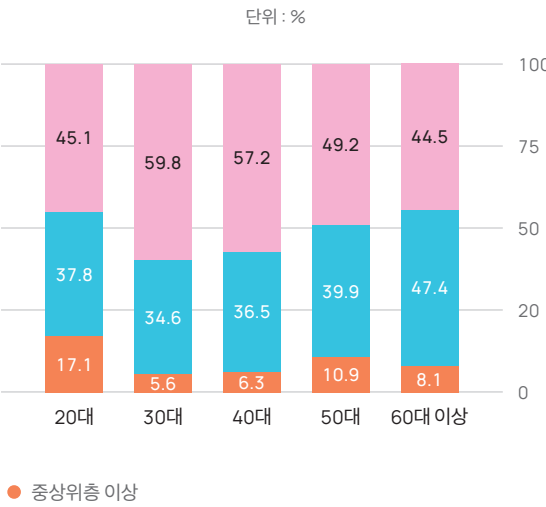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을 ‘상위층’ 또는 ‘중산층’으로 여기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53.2%)은 남성(49.1%)보다 자신을 ‘중하위층 이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자신을 ‘중상위층 이상’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20대(17.1%)에서 가장 높은 반면, 30대의 약 60%가 ‘중하위층’으로 인식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한편,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중하위층 이하’보다 높은 연령대는 60대(47.4%)가 유일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사회 계층 인식



연령대별 사회 계층 인식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실제 수준보다 낮게 평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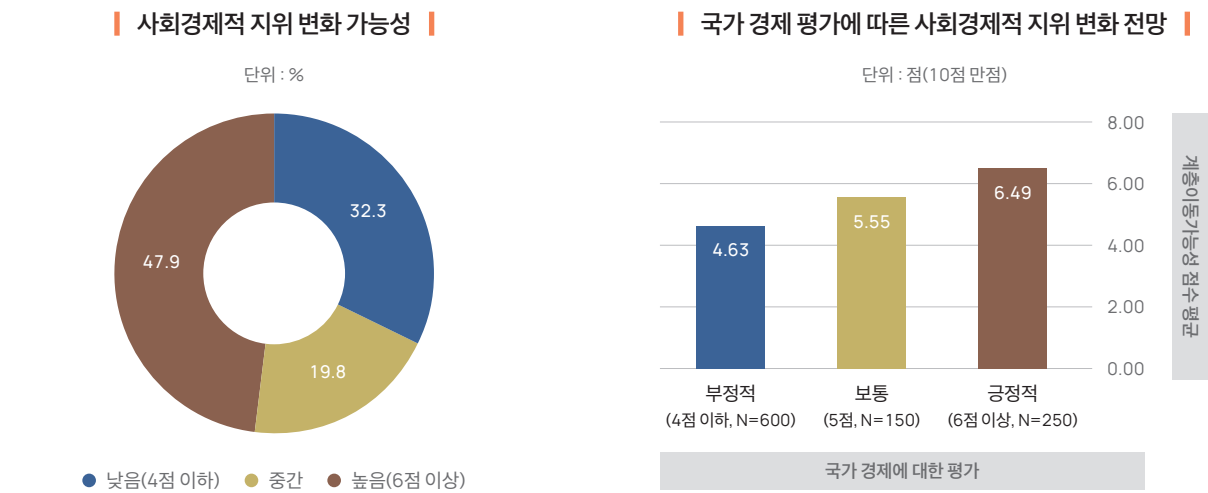
계층에 대한 인식은 소득 수준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요. 월 소득 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중하위층 이하’라고 인식했습니다. 특히 월 소득 201~300만 원과 301~400만 원 구간 응답자 중 각각 68.7%, 64.6%가 자신을 ‘중하위층 이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 초과 소득 구간부터는 절반가량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했으며, 소득이 800만원 이상일수록 자신을 ‘중상위층 이상’으로 여기는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도 자신을 ‘중상위층 이상’으로 인식(33.3%)하기 보다, ‘중산층’으로 여기는 비율이 45%로 가장 높은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실제 1인 가구 기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월 소득이 167~445만원 인 것을 돌아볼 때, 본 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의 계층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0 69

한달총수입	중하위층 이하	중산층	중상위층 이상
100만원 이하	59.3%	35.2%	5.6%
101~200만원	64.4%	27.1%	8.5%
201~300만원	68.7%	27.5%	3.8%
301~400만원	64.6%	31.1%	4.3%
401~500만원	58.7%	32.2%	9.1%
501~600만원	37.7%	54.4%	7.9%
601~700만원	36.6%	49.3%	14.1%
701~800만원	38.2%	52.6%	9.2%
801~900만원	30.4%	57.1%	12.5%
901~1000만원	25.6%	55.8%	18.6%
1001만원 이상	21.7%	45.0%	33.3%

국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신의 지위 변동이 어렵다고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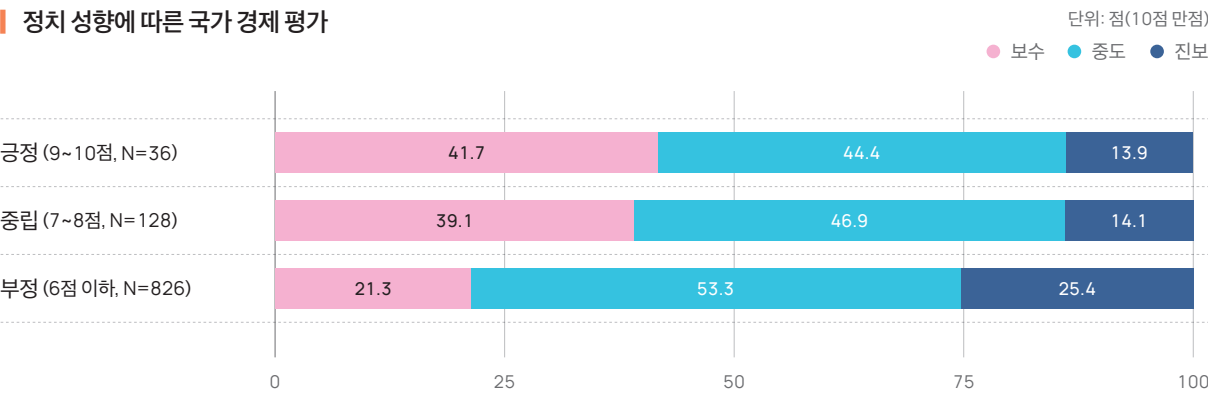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9%가 10점 만점에 6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8%, 4점 이하로 평가해 ‘낮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2.3%였습니다. 한편, 국가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개인의 미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관점의 차이

그렇다면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에 따라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보수는 국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진보는 부정적으로 평가해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국민들은 국가 경제를 긍정적(41.7%)으로, 진보 성향으로 밝힌 경우는 부정적(25.4%)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국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비중이 보수나 진보 성향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입니다. 이들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국가 경제를 사안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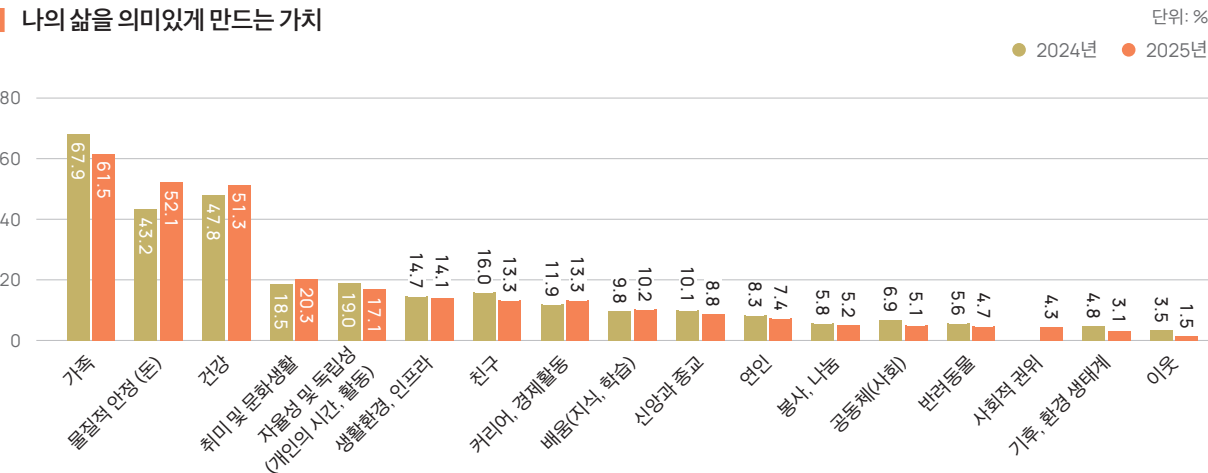
삶의 가치관과 사회 갈등 인식

국민들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구에서도 ‘나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를 묻는 문항을 통해,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나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 1년새 ‘물질적 안정’ 크게 증가해

국민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는 작년과 동일하게 가족(61.5%), 물질적 안정(52.1%), 건강(51.3%)이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와 비교해 물질적 안정(돈)을 꼽은 비율의 증가폭(▲8.9%p)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건강(▲3.5%p), 취미 및 문화 생활(▲1.8%p), 커리어 및 경제활동(▲1.4%p), 배움(▲0.4%p)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가족의 가치가 작년 대비 감소폭(▼6.4%p)이 가장 컸으며, 친구(▼2.7%p), 자율성 및 독립성(▼1.9%p), 공동체(▼1.8%p), 신앙과 종교(▼1.3%p) 순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 보다는 개인의 가치나 물질적 가치가 강화된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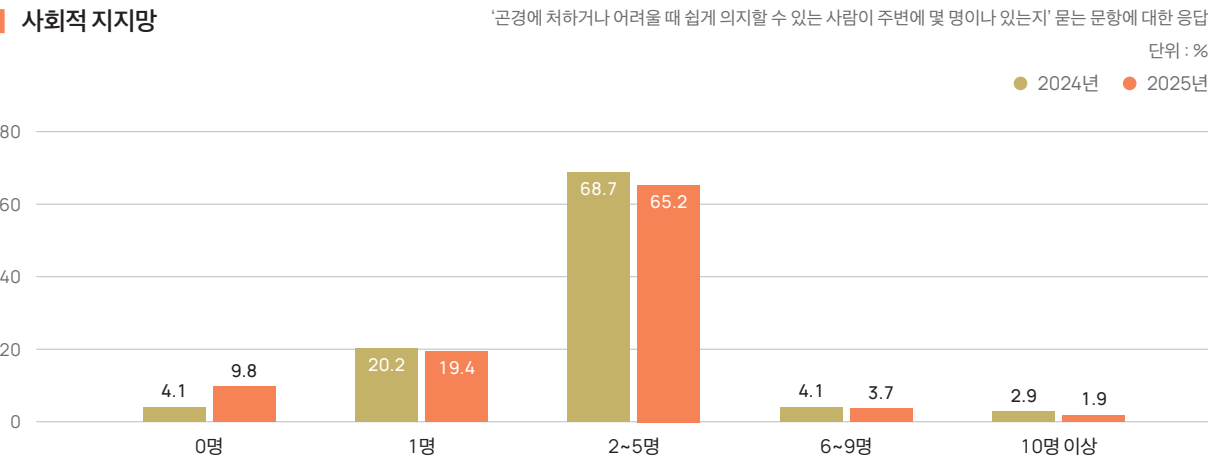
나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



국민 10명 중 1명, 주변에 의지할 사람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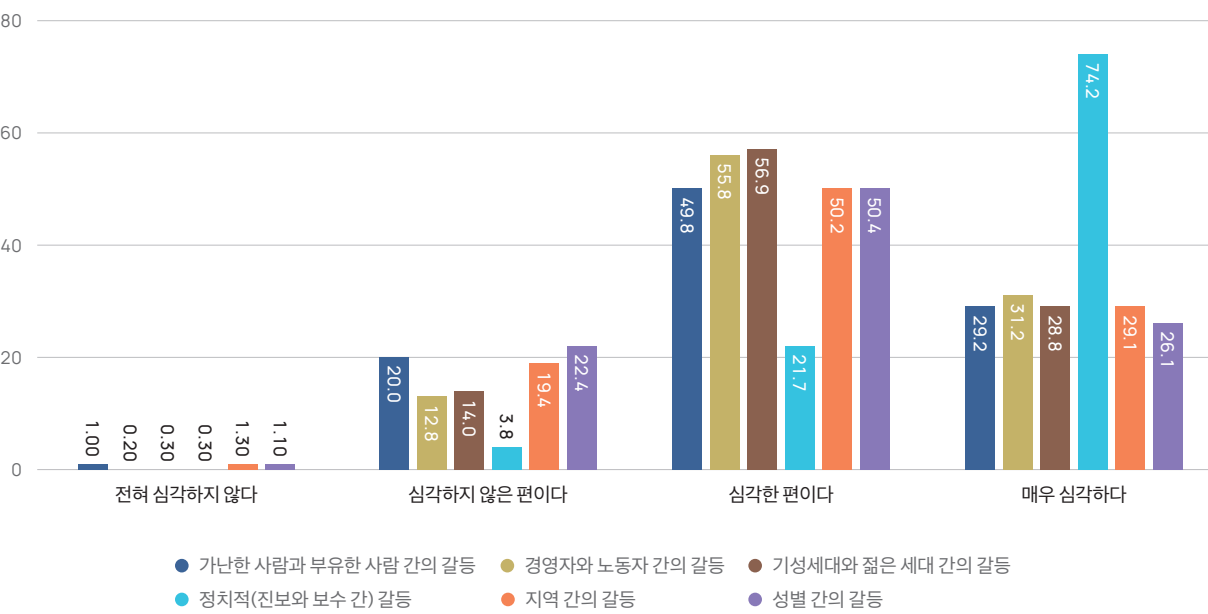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울 때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65.2%가 2~5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0명)’고 답변한 비율은 9.8%로 지난해 4.1%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응답자 10명 중 1명 꼴로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사회적 관계와 지지체계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지망



한국 사회의 갈등 ‘심각하다’는 국민 대부분…정치적 갈등 가장 우려해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의 유형과 수준을 진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성별, 세대 지역, 정치 성향, 노사 및 소득 격차간 갈등 유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모든 유형의 갈등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또는 ‘심각한 편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갈등 유형별로는 정치적 갈등(95.9%), 경영자-노동자간 갈등(87%),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간 갈등(85.7%), 지역 갈등(79.3%),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간 갈등(79%), 성별 갈등(76.5%) 순으로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심각한 편이다’의 합산 비율)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진보-보수)에 대한 심각도 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사회문제를 보는 인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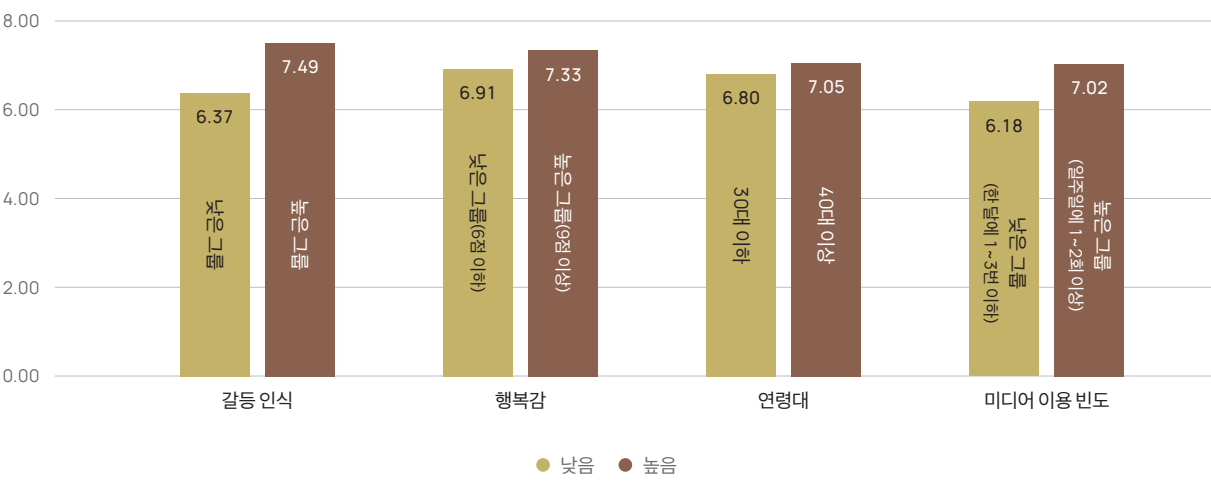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격차는 얼마나 벌어져있을까요. 현재 나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사회문제의 영향력을 더 높게 혹은 낮게 평가하게 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성별, 연령 등 객관적 인구 특성 요인과 가치관·성향 등 주관적 요인에 따른 사회문제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갈등 인식,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학력 수준, 행복감 인식, 나의 삶에 의미 있는 가치(돈·가족·건강 등), 나이, 성별, 정치성향 등에 따라 사회문제 영향력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사회 갈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사회문제도 심각하다고 느껴

사회의 갈등(빈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 노사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격차 요인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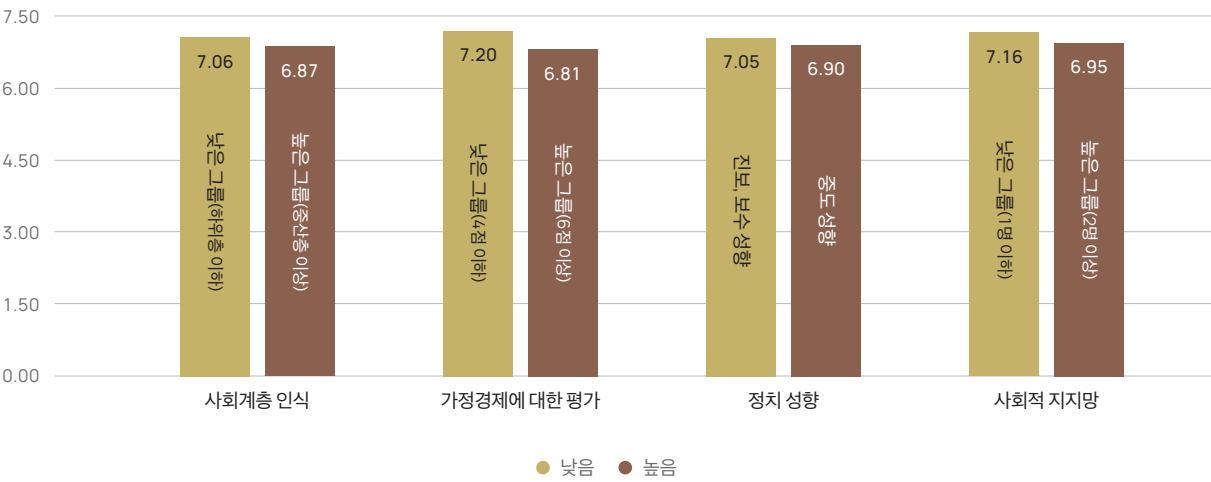


한편, 행복감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삶에 여유가 생길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경험이 쌓일수록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뉴스, 커뮤니티, SNS 활동을 통해 시사 정보를 더 많이 접하는 사람일수록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경제적 형편 어려울수록 사회문제도 심각하다고 느껴

자신을 중하위층 이하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가정 경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격차 요인 ②



또한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의 국민들보다 보수 및 진보 성향의 국민이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자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사회를 향한 우려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적을수록(1명 이하),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적고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치관에 따른 사회문제 인식 격차

경제, 사회, 환경 등 세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앞서 살펴봤던 사회문제에 대한 영향력 인식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개인적·주관적 성향 및 가치관에 따라 어떤 종류의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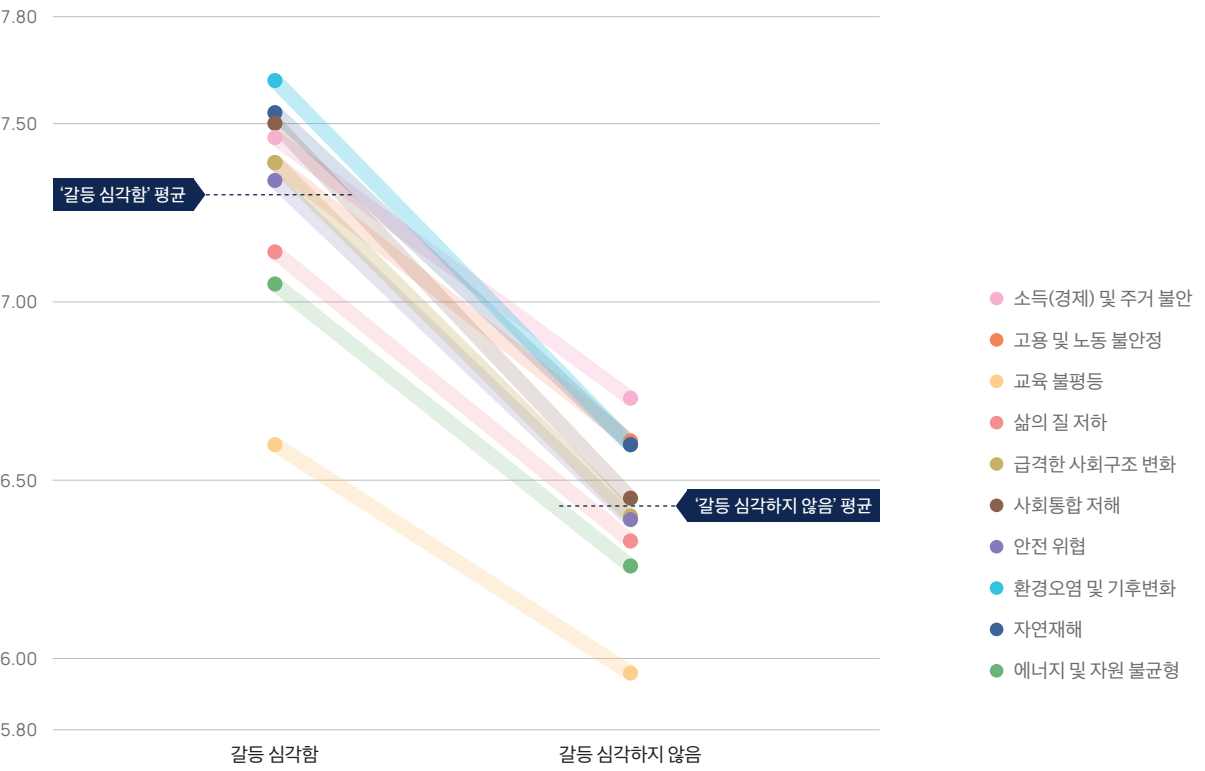
사회 갈등 인식 높을수록, 특히 사회통합 문제 우려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이 심각하다고 본 집단(평균 7.30점)은 그렇지 않다고 본 집단(평균 6.43점)보다 평균 0.87점 더 높게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전체 10개 테마 중 평균치 이상으로 평가한 항목은 대부분 동일했으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본 그룹은 여기에 더해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안전 위협’까지 평균 이상으로 평가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사회 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사회통합 저해(1.05점 차이) 문제를 더 크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0.99점), 안전 위협(0.95점)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갈등과 불안을 더욱 주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사회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은 사회, 환경 문제 보다는 경제 관련 이슈에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등 인식 수준에 따른 10대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 평가

단위 : 점(10대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 평균 점수,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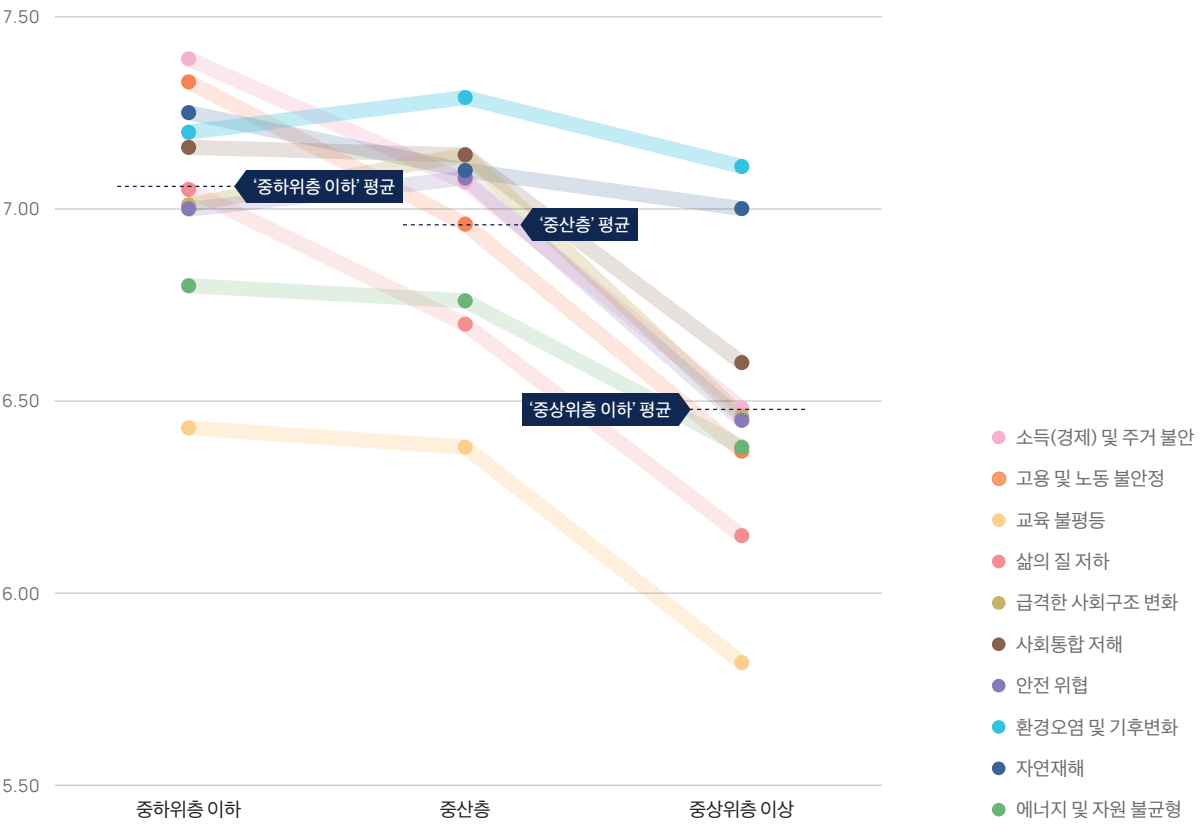
중하위층 이하는 경제 문제, 중산층 이상은 기후 위기 우려해

국민 스스로 자신을 상위층-중산층-하위층 등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를 물었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10대 사회문제 테마의 평균 부정적 영향력이 중하위층 이하는 7.06점, 중산층은 6.96점, 중상위 이상은 6.4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하위층 이하로 인식하는 국민은 소득 및 주거 불안(7.39점), 고용 및 노동 불안정(7.33점), 자연재해(7.25점)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국민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7.29점),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통합 저해(7.14점) 순으로 사회문제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상위층 이상에 속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7.11점), 자연재해(7점), 사회통합 저해(6.6점)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계층 인식에 따른 사회문제별 심각성 인식 격차

단위 : 점(10대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 평균 점수,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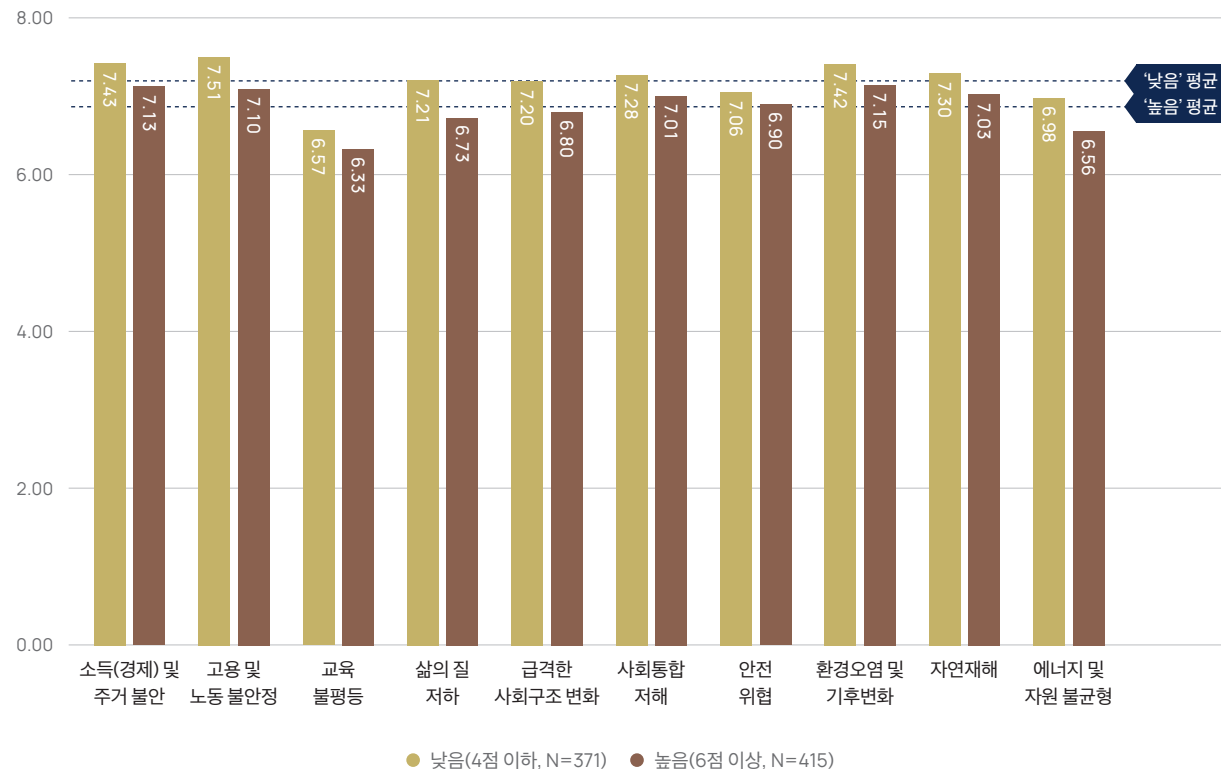
가정 형편과 행복감에 따라 우려하는 사회문제 달라져

가정 경제 상황과 행복감의 수준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민은 경제, 사회, 환경 전반의 이슈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정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은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고용 및 노동 불안정’을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한편 가정 형편이 좋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문제 보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행복감이 낮은 국민은 행복감이 높은 국민보다 경제 및 고용, 삶의 질 저하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행복감이 높은 국민들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환경 문제의 영향력을 행복감이 낮은 국민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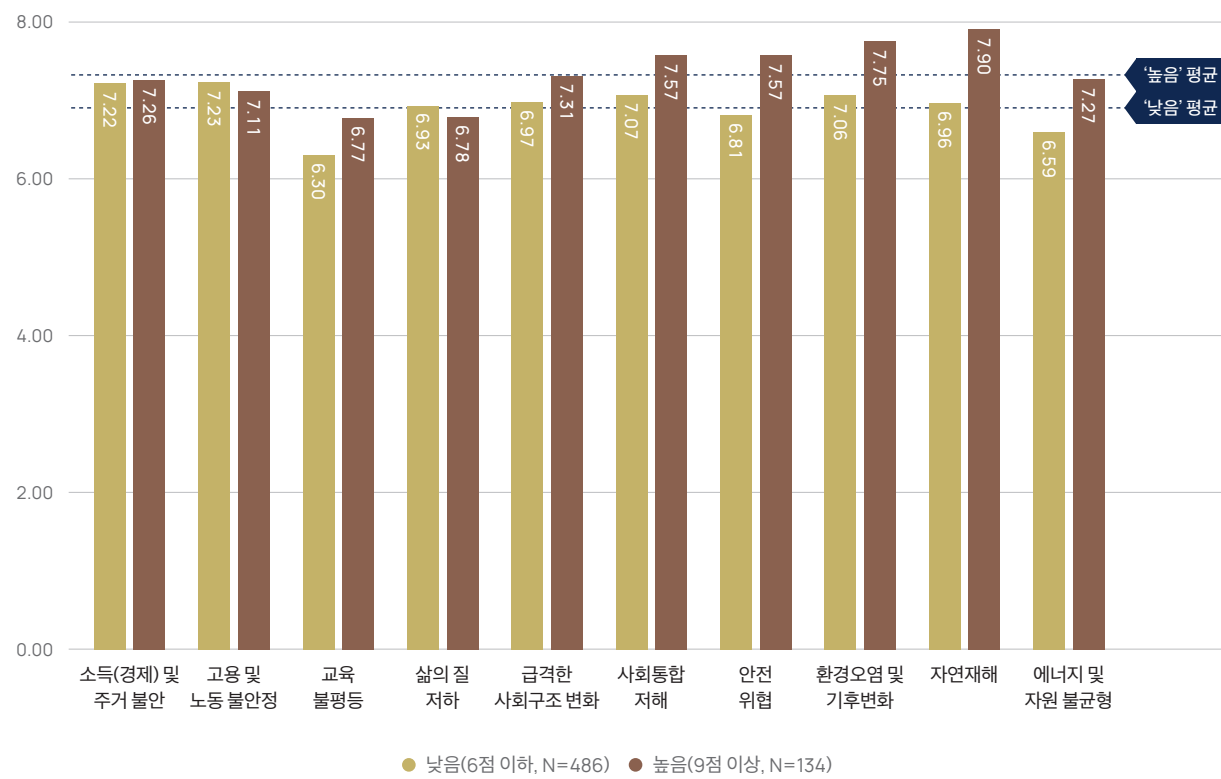
가정경제 상황에 따른 사회문제별 심각성 인식 격차

단위 : 점(10대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 평균 점수,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큼



행복감에 따른 사회문제별 심각성 인식 격차

단위 : 점(10대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 평균 점수,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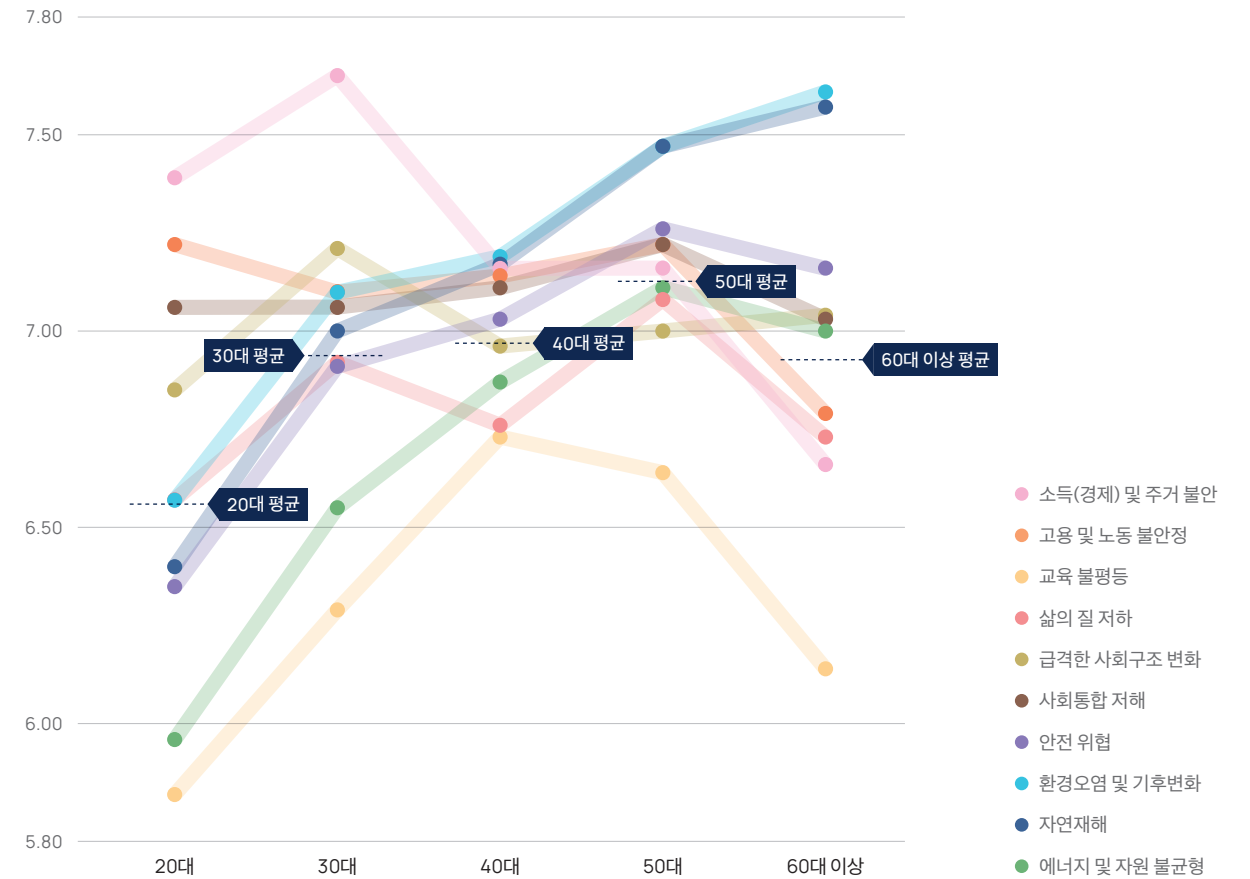


2030은 소득 및 주거 문제, 40대 이상은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걱정해

연령별 분석 결과, 20·30대는 소득 및 주거문제, 40대~60대 이상은 환경오염·기후변화 문제를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용 및 노동 불안, 삶의 질 저하, 안전 위협,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10개 사회문제 테마 중 절반은 50대에서 가장 크게 인식되었으며, 나머지는 30대(소득주거, 사회구조 변화), 40대(교육불평등), 60대 이상(환경·기후, 자연재해)에서 각각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에 따른 사회문제별 심각성 인식 격차

단위 : 점(10대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 평균 점수,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큼



한편,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2030세대와 40대 이상에서 더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30세대는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와 주거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40대 이상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 사회 갈등, 노후 대비, 교육 격차 문제를 걱정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30세대는 '일·생활 불균형-집값 불안정-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를 1~3위로 꼽은 반면, 40대 이상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소득 양극화 심화-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를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워라밸'과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2030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문제가 6위에 포함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또한 저출생·성별 격차 문제를 2030 세대가 더 우려하는 모습은, 인구 구조 변화와 성별 갈등 이슈가 미래세대에게 체감될 만큼 심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40대 이상은 경제·사회 전반의 갈등과 격차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대 이하 vs 40대 이상 사회문제 인식 차이

순위	30대 이하	40대 이상
1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2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3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4	폭염·한파 증가	폭염·한파 증가
5	청년 일자리 부족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6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7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8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9	성별격차 및 성차별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10	저출생 문제	지구 온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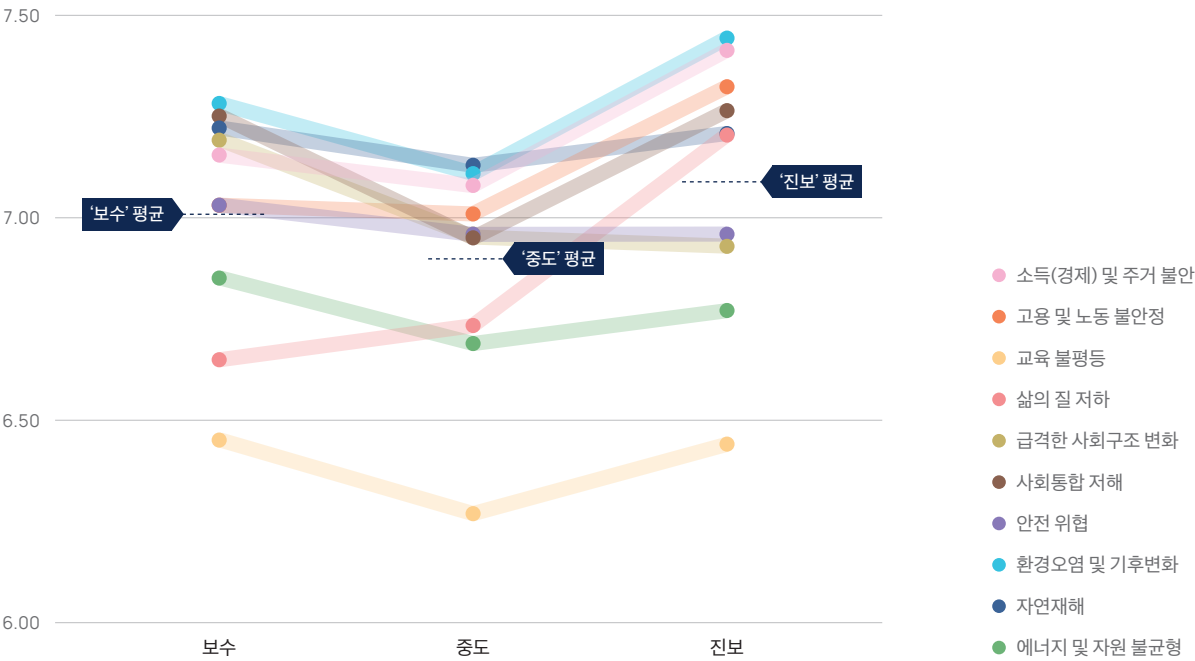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보수-진보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일수록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수, 중도, 진보 성향에 관계없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를 가장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진보는 소득주거와 고용·노동 불안, 보수는 사회통합 저해와 자연재해를 주요 이슈로 꼽았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사회문제별 심각성 인식 격차

단위 : 점(10대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 평균 점수,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큼



보수 성향의 국민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7.28점), 사회통합 저해(7.24점), 자연재해(7.21점) 문제 순으로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국민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7.43점), 소득 및 주거 불안(7.4점), 고용 및 노동 불안정(7.31점)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성향의 국민은 자연재해(7.14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7.12점), 소득 및 주거불안(7.09)을 상위 세개로 꼽아, 정치 성향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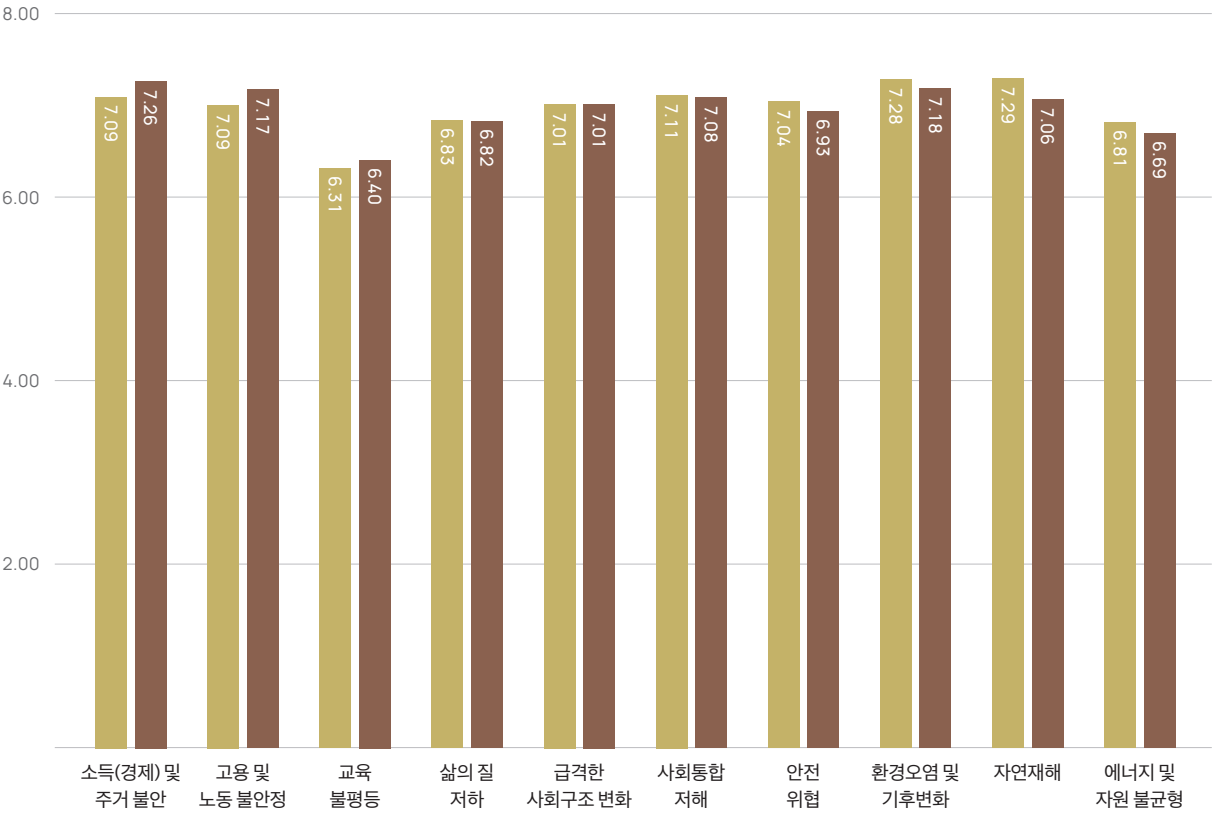
한편, 진보와 보수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테마는 복지와 관련 높은 삶의 질 저하 테마(0.53점 차이)로, 진보(7.19점) 성향의 국민이 보수 성향의 국민(6.66점) 보다 해당 이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수도권 거주 국민은 경제 및 고용, 비수도권은 안전 및 환경 문제 우려해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일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거주 국민은 비수도권 거주 국민보다 소득 및 주거 불안, 고용 및 노동 불안정, 교육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 국민은 수도권 거주 국민보다 사회통합 저해, 안전 위협,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모습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문제별 심각성 인식 격차

단위 : 점(10점 만점)
● 비수도권(N=476) ● 수도권(N=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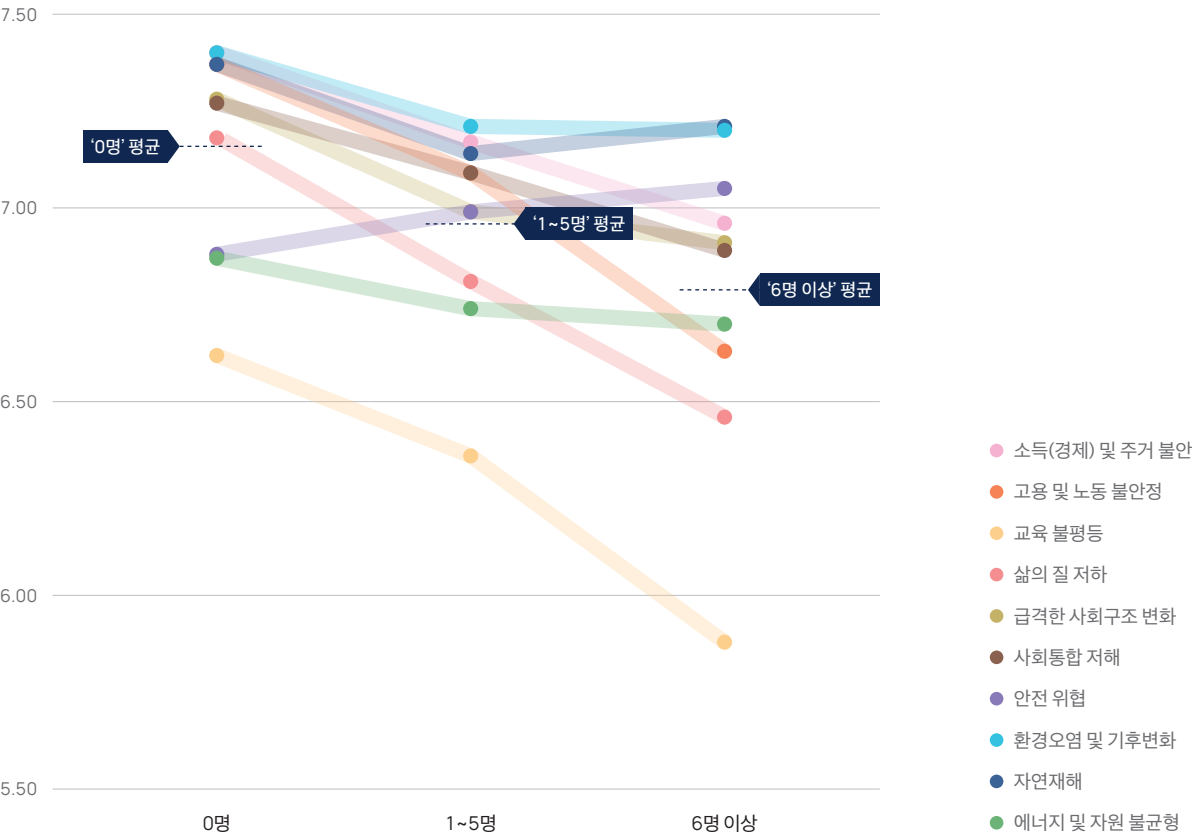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망 부족한 국민...특히 경제·환경 문제로 어려움 겪어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분석 결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수록 사회문제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국민에겐 소득 및 주거불안(7.4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7.4점), 고용 및 노동 불안정(7.37점), 자연재해(7.37점)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6명 이상인 국민은 경제, 사회 관련 문제 보다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7.2점), 자연재해(7.21점)에 대한 우려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지지망에 따른 사회문제별 심각성 인식 격차

단위 : 점(10대 사회문제 테마별 부정적 영향력 평균 점수,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큼



미디어 활용과 인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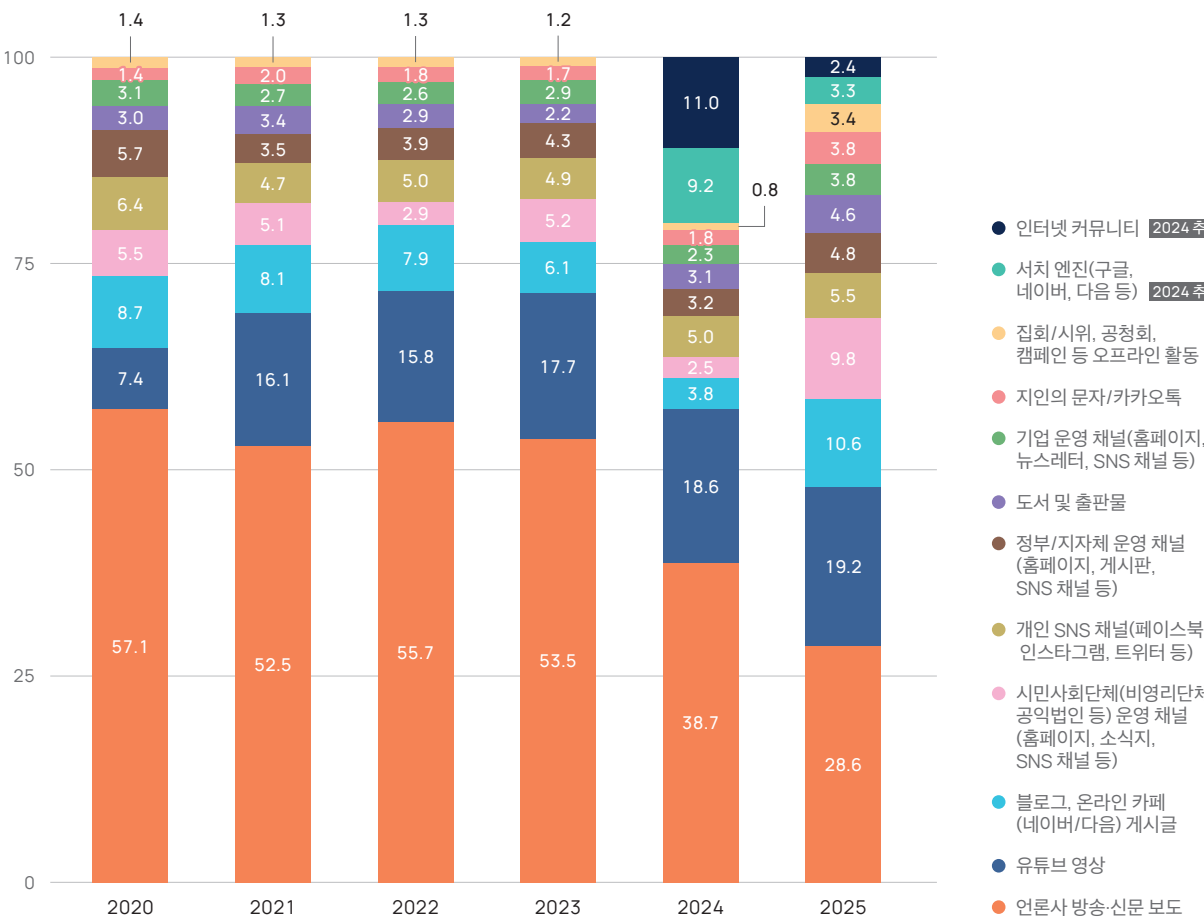
사회를 보는 관점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격차는 관련 이슈를 접하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국민들이 사회문제를 접하는 채널 유형과 뉴스 및 시사 정보를 접하는 매체 종류를 세분화 하여 교차 분석해봤습니다.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 1위는 언론사, 상승률 1위는 유튜브

국민들이 사회문제를 접하는 주요 채널은 여전히 신문·방송과 같은 전통 언론이지만, 활용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 57.1%에서 2025년 28.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유튜브 영상’은 같은 기간 7.4%에서 19.2%로 늘며 2.6배 이상 증가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로그, 온라인 카페 게시물(10.6%)’, ‘시민사회단체 운영채널(9.8%)’이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 11%로 3위를 차지했던 ‘인터넷 커뮤니티’는 올해 2.4%로 급감하며 9위로 밀려났습니다.

사회문제를 접하는 채널 유형(2020~2025년)

단위: %(1순위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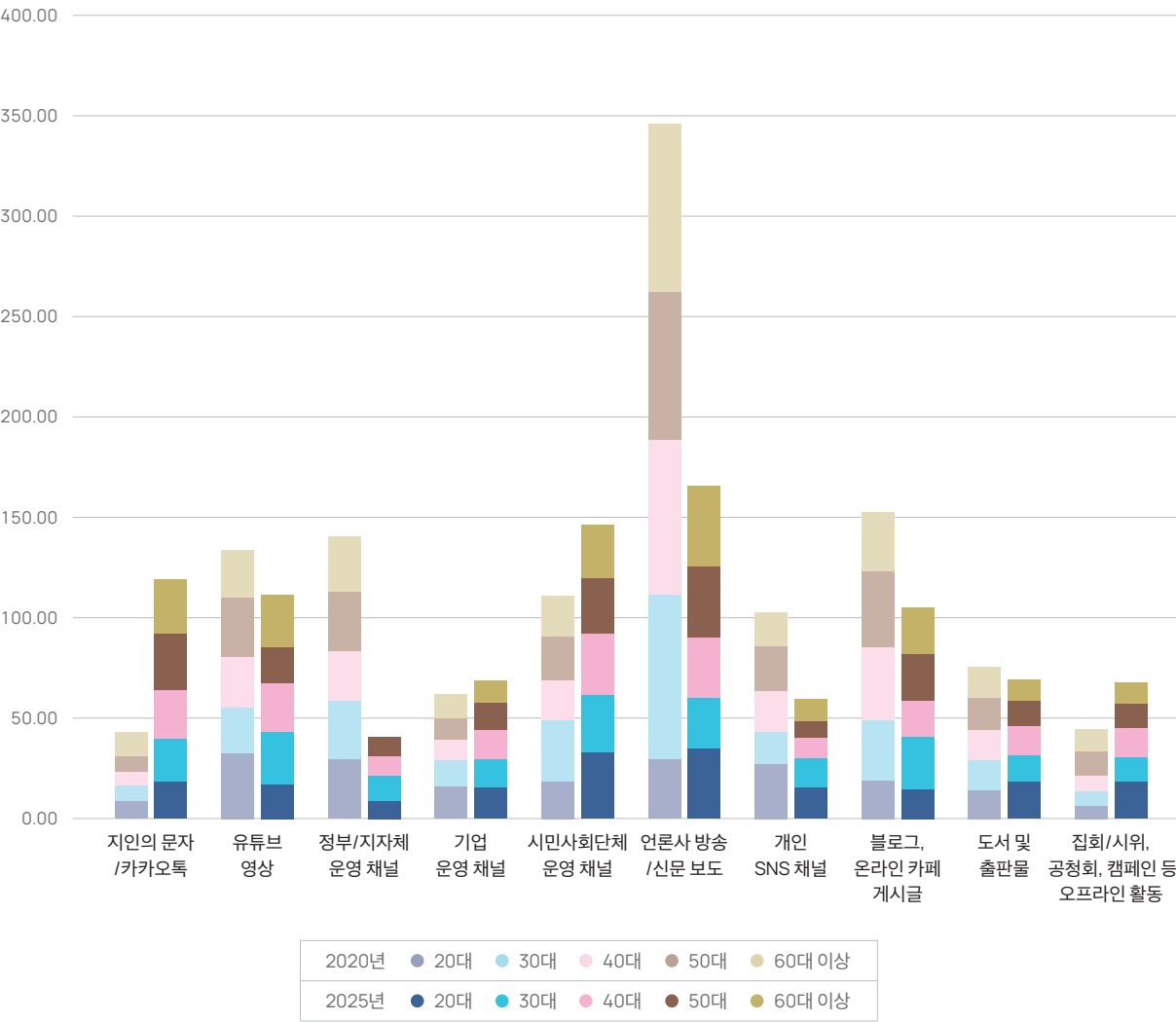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사회문제를 접하는 채널 유형이 지난 6년간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지인의 문자 카카오톡'의 활용도가 6년 평균 16.2%p 증가했고 특히 40대(▲19.2%p)와 50대(▲20.8%p)대에서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정부 및 지자체 운영 채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20년과 비교해 평균 19.6%p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60대(▼27.5%p)와 20대(▼20.2%p)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정부 신뢰가 떨어진 대신 지인이 전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채널(홈페이지, 소식지, SNS 채널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접하는 비중이 2020년 대비 2025년에 8.2%p 상승한 것으로, 특히 20대에서 상승폭(▲15.6%p)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개인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6년간 8.2%p 하락했고, 특히 50대(▼13.5%p)와 20대(▼11.3%p)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개인 SNS 채널의 정보 대신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에서 전하는 현장 기반의 소식을 신뢰하게 된 것으로 진단됩니다.

'집회, 시위, 공청회,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정보 접근도 20대(▲12.4%p)에서 가장 높아졌고, '언론사 방송 및 신문 보도'의 경우 30대~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반면 20대만 유일하게 활용도가 6.7%p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대별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2020 vs 2025)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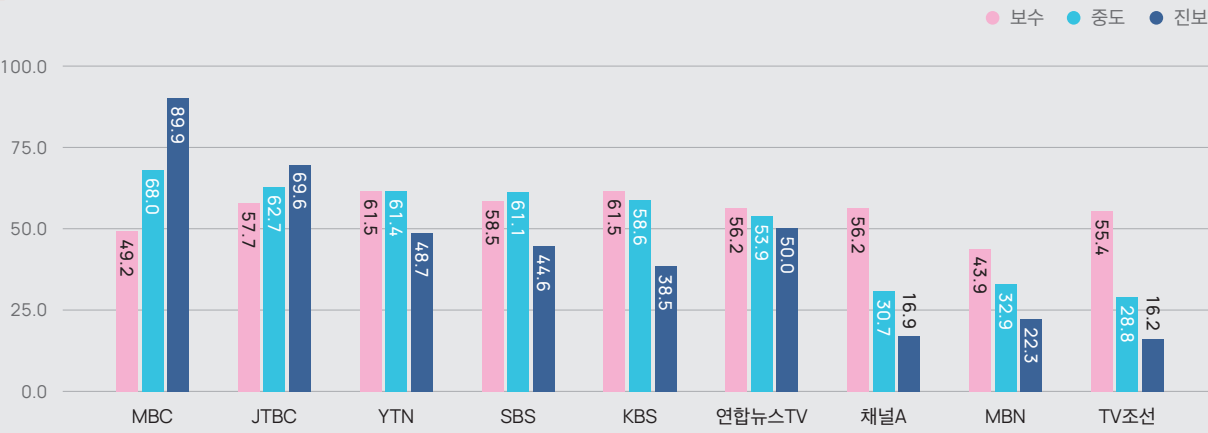


정치 성향에 따라 뉴스 및 시사 정보 활용 채널 달라

2025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인 만큼, 정치 성향에 따라 뉴스 및 시사 정보를 어떤 채널을 통해 접하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봤습니다.

정치 성향별 TV 시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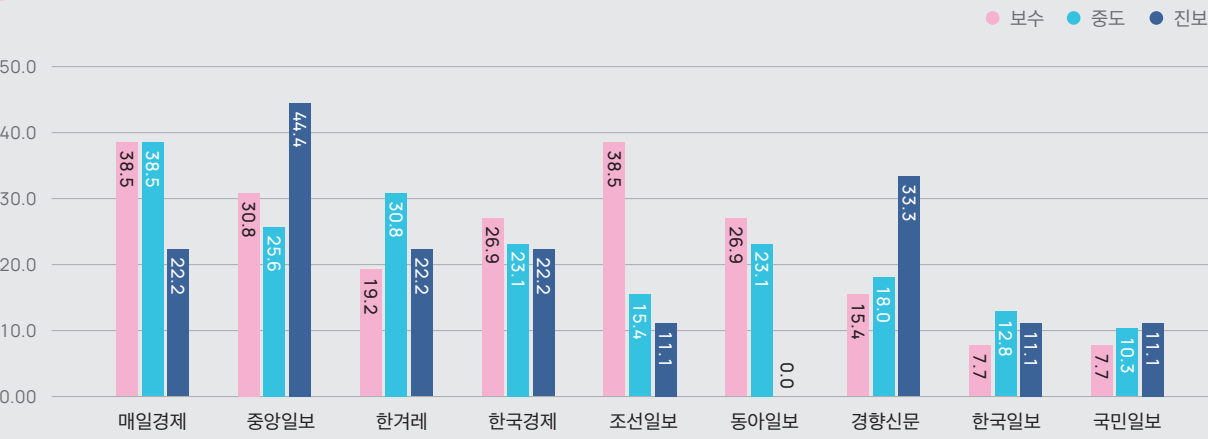
단위: %(1순위 선택 비율)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여기는 국민은 YTN과 KBS(61.5%)을 통해 가장 많은 뉴스와 시사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58.5%), JTBC(57.7%), 연합뉴스(56.2%), 채널A(56.2%), TV조선(55.4%)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국민은 MBC를 통해 시사 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무려 89.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JTBC(69.6%), 연합뉴스TV(50.0%)가 뒤를 이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국민들이 다른 정치 성향에 비해 선호하는 채널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중도 성향의 국민은 주로 MBC(68.0%)를 시청하며 시사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62.7%), YTN(61.4%), SBS(61.1%)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 성향별 신문 활용 비중

단위: %(1순위 선택 비율)



신문을 통해 시사 정보를 얻는 경우는 방송 매체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수(38.5%)와 중도(38.5%) 성향의 국민 모두 매일경제를 통해 시사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보수 성향 국민의 경우 조선일보(38.5%)와 매일경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앙일보(30.8%), 한국경제(26.9%)와 동아일보(26.9%)는 동순위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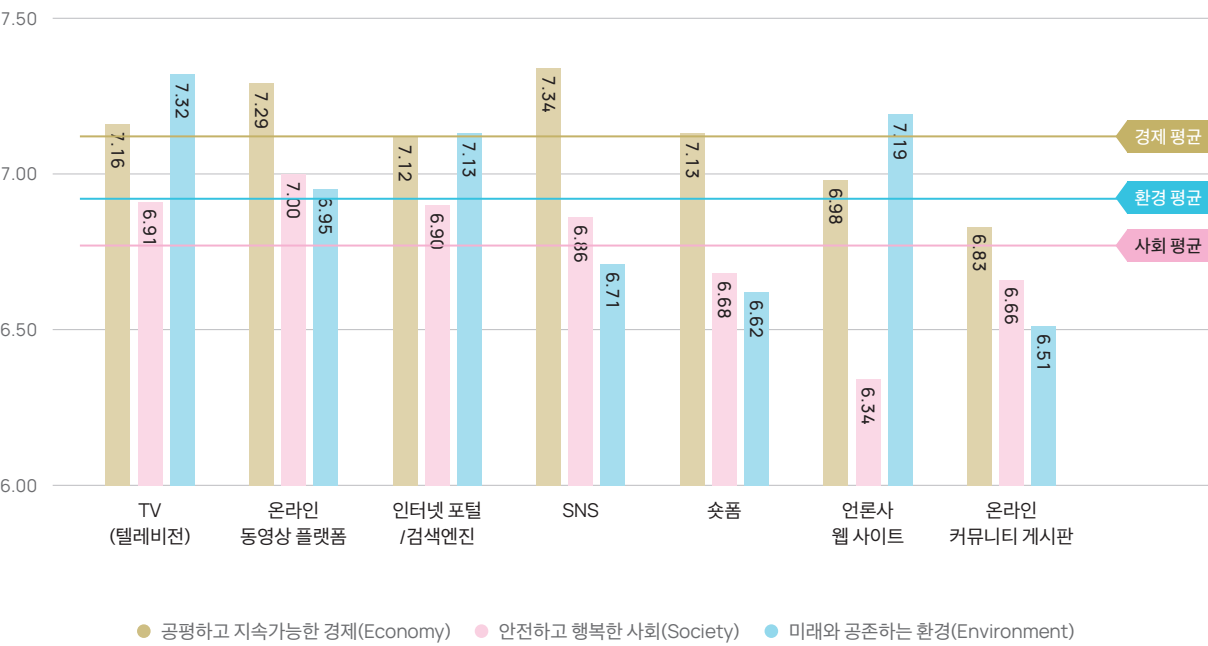
중도 성향 국민은 매일경제 외에 한겨레(30.8%), 중앙일보(25.6%), 동아일보(23.1%), 한국경제(23.1%) 순으로 시사 정보를 접하는 모습입니다. 진보 성향 국민의 경우 중앙일보(44.4%)를 통해 시사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으며, 경향신문(33.3%), 매일경제(22.2%), 한겨레(22.2%), 한국경제(22.2%) 순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라인·SNS 활용도 높은 국민은 경제, TV·언론사 활용하는 국민은 환경 문제 관심 높아

사회문제를 어떤 채널에서 접하느냐에 따라 인식하는 수준도 달랐습니다. 경제·사회·환경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보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를 통해 사회문제를 접하는 국민들은 경제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반면 TV·언론사 웹사이트를 주된 경로로 삼는 국민은 다른 채널보다 환경 문제를 더 두드러지게 꼽았습니다. 사회 테마 문제는 TV, 온라인 동영상, 인터넷 포털, SNS 등 여러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활용에 따른 사회문제 심각성 인식

단위: 점(10점 만점)



사회문제 10대 테마를 기준으로 채널 활용도에 따른 문제 인식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언론 보도와 유튜브를 통해 사회문제를 접하는 국민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서치엔진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고용·노동 불안정'을, 개인 SNS 이용자는 '소득 및 주거 불안'을, 블로그 이용자는 '자연재해'를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채널별 사회문제 Top3

순위	언론사 방송 /신문 보도	유튜브 영상	서치 엔진 (구글, 네이버, 다음 등)	개인 SNS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블로그, 카페 (네이버, 다음 등)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1순위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고용 및 노동 불안정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자연재해	고용 및 노동 불안정
2순위	자연재해	사회통합 저해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사회통합 저해 (공동1위)
3순위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자연재해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고용 및 노동 불안정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삶의 질 저하

Action Gaps

사회문제 해결 액션 격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의지, 6년간 하락세

한국인의 사회문제 관심도와 문제 해결 의지는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회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2020년 6.92점(10점 만점)에서 2025년 6.8점(10점 만점)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사회문제 해결 의지 역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금, 투자, 기부, 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민의 평균 비중이 2020년 62.7%에서 2025년 53.5%으로 10%p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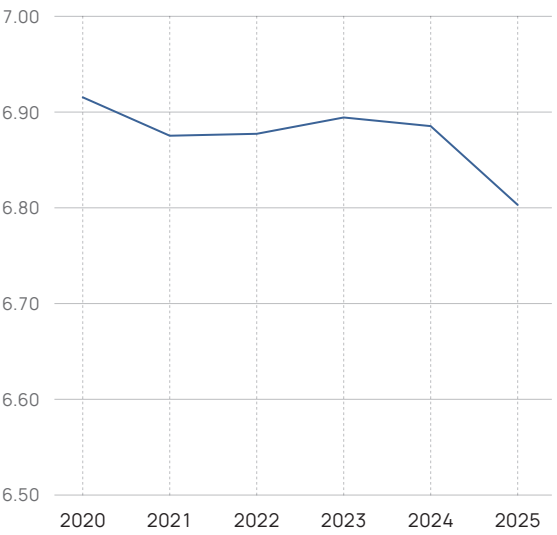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설문결과에 따르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봉사 및 재능 기부를 하겠다(77.5%)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부금 납부(59.3%), 사회문제 해결 기업에 투자(52.1%), 세금 추가 납부(46.6%)를 하겠다는 의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민들조차 사회문제 해결 의지가 하락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참여 의지가 가장 낮아진 항목은 '사회문제 해결 투자 의향'으로 6년새 9.5%p가 하락했고, '봉사 및 재능 기부 의향'은 5.4%p 하락했습니다.

반면, 사회문제에 관심이 낮은 국민들의 문제 해결 의지는 2020년 대비 약 17%p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부금 납부 의향이 27.6%p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사회문제 해결 투자 의향은 15.7%p, 봉사 및 재능기부 의향은 13.7%p, 세금 추가 납부 의향은 11.4%p 하락했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진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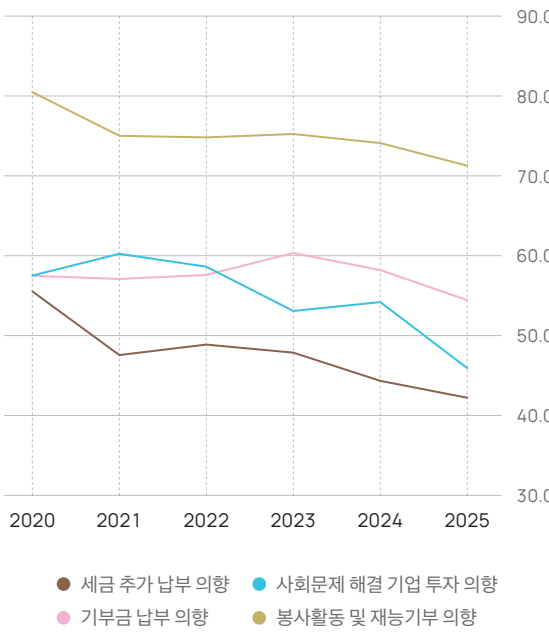
한국인의 사회문제 관심도 2020-2025

단위: 점(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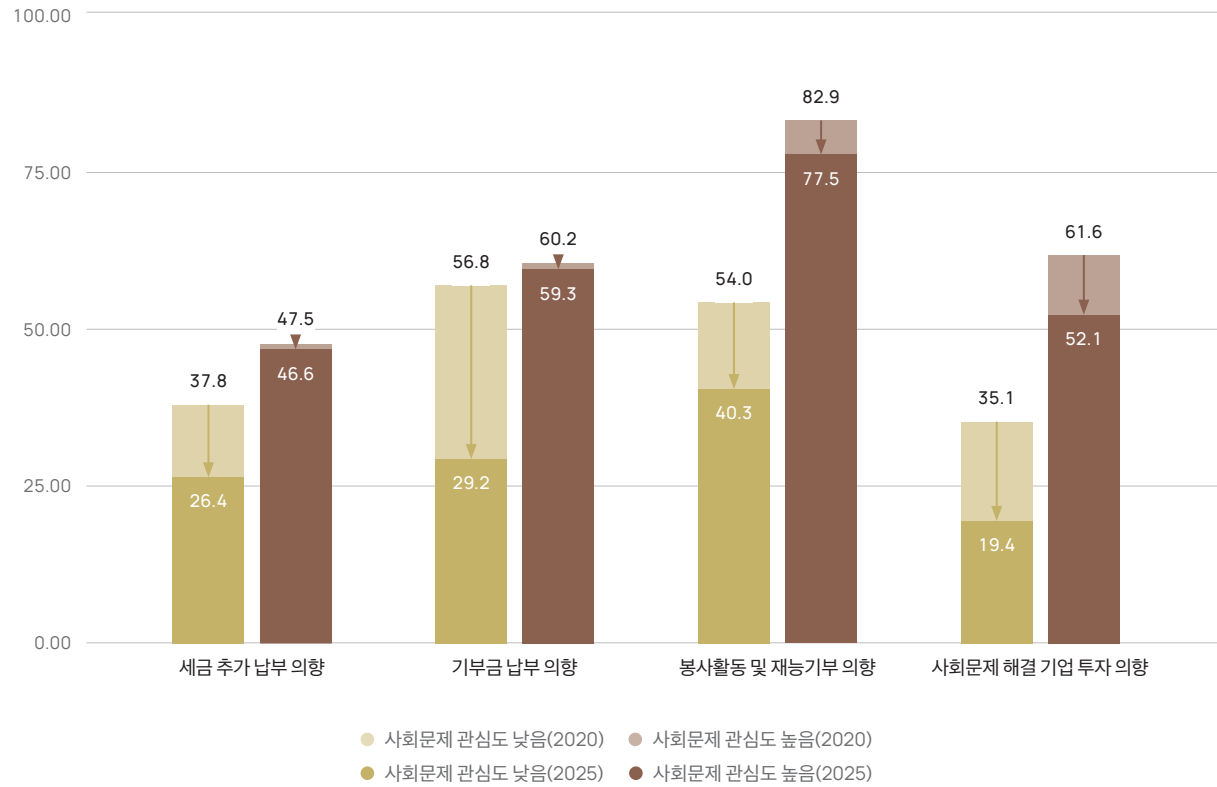
한국인의 사회문제 해결 의지 2020-2025

단위: %



사회문제 관심도에 따른 문제 해결 액션 의향

단위: %



사회문제 관심과 문제 해결 의지 … 성별, 세대 격차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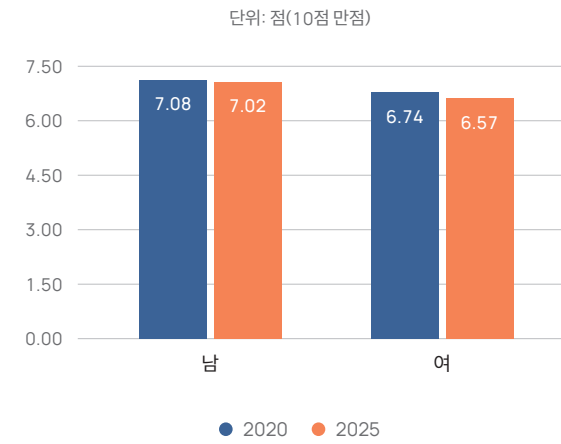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남성(7.02점/10점 만점)이 여성(6.57점/10점 만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남성의 사회문제 관심도는 7.08점에서 0.06점 낮아진데 반해, 여성의 경우 2020년 6.74점에서 0.17점 떨어져 하락폭이 더 큰 모습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투자를 더 하려는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각각 17.0%p, 9.6%p로 나타났던 격차는 올해 14.7%p, 7.6%p로 줄었습니다. 반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금을 추가로 더 납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꾸준히 높았습니다. 2020년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21%p, 4.7%p로 높아 다소 낮은 격차를 보였으나, 2025년 각각 3.4%p, 9.7%p로 벌어졌습니다.

2030 사회문제 관심과 문제 해결 의지 하락 가장 두드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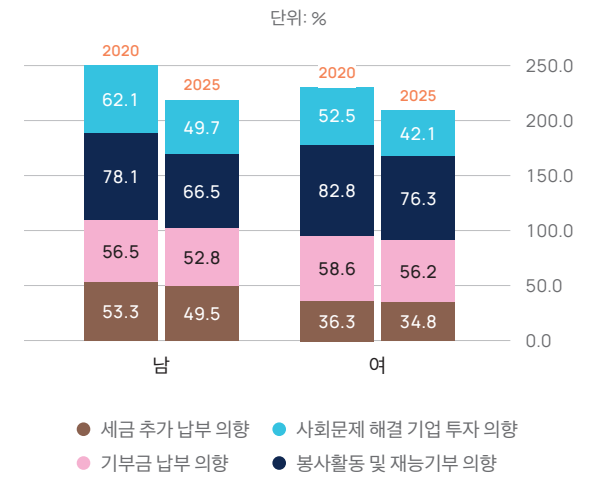
세대별 사회문제 관심도 역시 지난 6년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0대와 60대의 사회문제 관심도가 7.01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20대의 관심도는 2025년 가장 큰 하락폭(▼0.68점)을 보이며 6.3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사회문제 관심도는 소폭 올라(▲0.05점) 2025년에도 7.06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50대의 사회문제 관심도가 2020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0.19점)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사회문제 해결 의지는 20~3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20대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지난 6년새 각각 29.7%p, 봉사활동 의향은 26.2%p 하락했습니다. 30대 역시 봉사, 투자 의향이 약 15%p 떨어지면서 사회문제 관심도 하락이 문제 해결 의지 약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지난 6년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의향이 11.4%p 상승했고, 기부금을 추가 납부할 의향도 10.5%p 늘었습니다. 높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로도 연결된 셈입니다. 반면, 50대의 경우 높아진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문제 해결 의지를 높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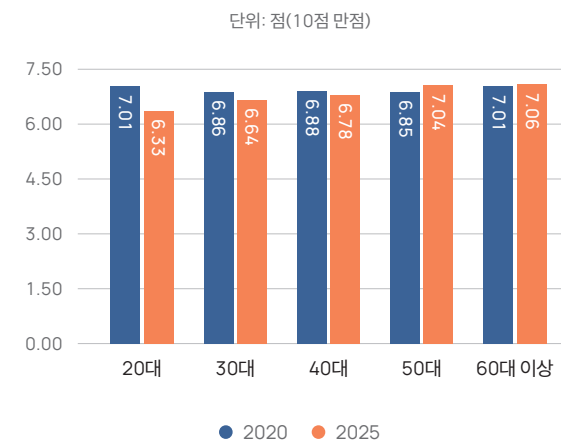
사회문제 관심도 성별 격차 2020 v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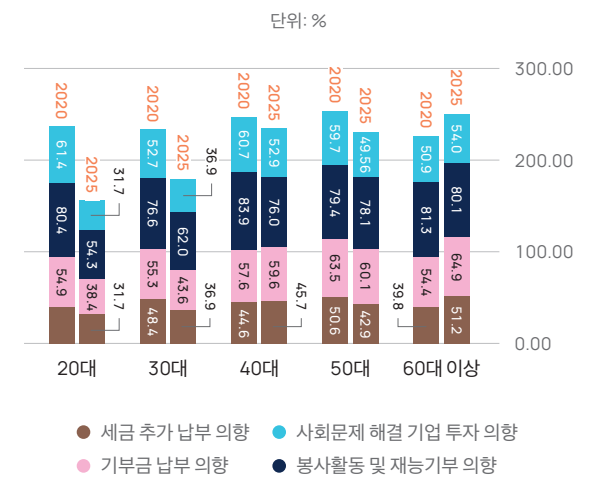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 의지 성별 격차 2020 vs 2025



사회문제 관심도 연령별 격차 2020 vs 2025



사회문제 해결 의지 연령별 격차 2020 v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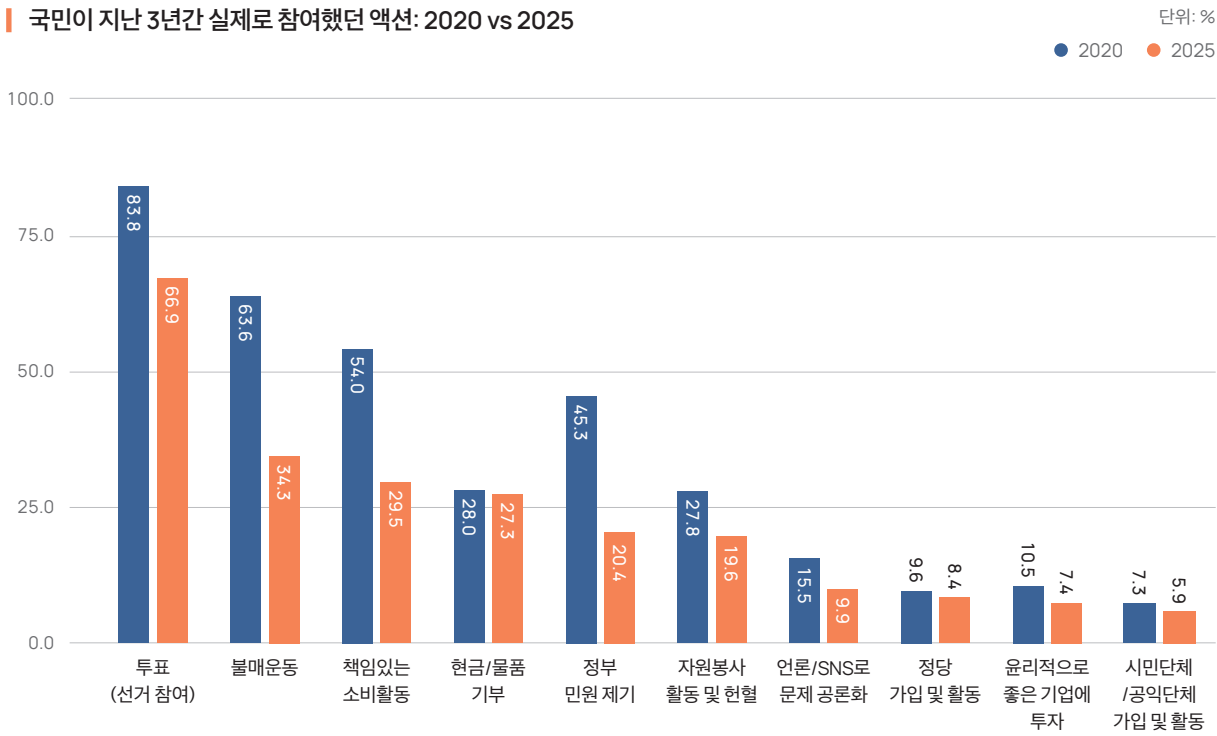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 경험도 큰 폭으로 감소해…가치관에 따라 참여 액션도 달라져

사회문제 관심과 의지를 넘어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은 지난 6년간 어떠한 액션에 동참해왔을까요. 분석 결과 2020년 대비 2025년, 국민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경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불매운동 참여율이 29.3%p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정부 민원 제기가 24.9%p, 책임있는 소비 활동이 24.5%p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금 및 물품 기부 참여율(▼0.7%p), 정당 가입 및 활동(▼1.2%), 시민단체 및 공익단체 가입 활동(▼1.4%p)의 하락폭이 작은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적극적 액션이 필요한 활동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경험이 국민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산층 또는 중상위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실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있을 때 사회문제 해결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지난 3년간 실제로 참여했던 액션: 2020 v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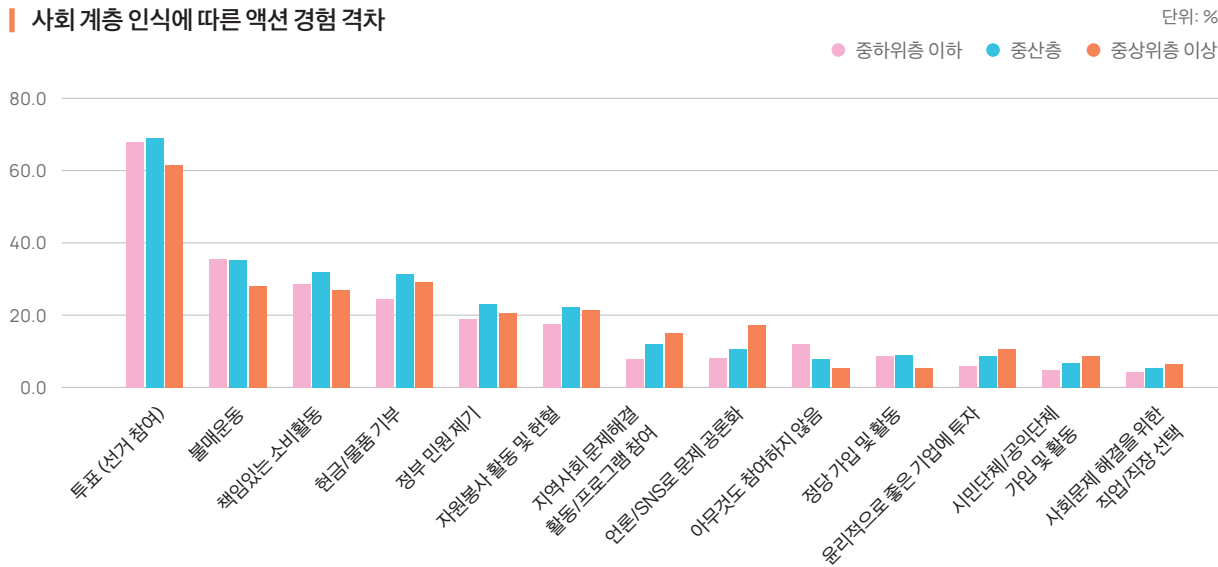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최근 3년 이내에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책임있는 소비활동) (31.6%)’하거나, ‘현금 및 물품 기부(30.9%)’, ‘정부 민원 제기(22.8%)’, ‘자원봉사 참여(22%)’한 경험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많았습니다. 중상위 이상 국민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14.9%)’, ‘언론 및 SNS를 통해 사회문제 공론화(17.0%)’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자신을 중하위층 이하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다(11.7%)’는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습니다. 사회 계층에 대한 인식에 따라 문제 해결의 적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투표(71.2%)’,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책임있는 소비활동)(33.4%)’, ‘현금 및 물품 기부 (30.5%)’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가능성이 보통이거나 낮다고 답한 국민의 각 13.1%, 12.4%가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와 행동 유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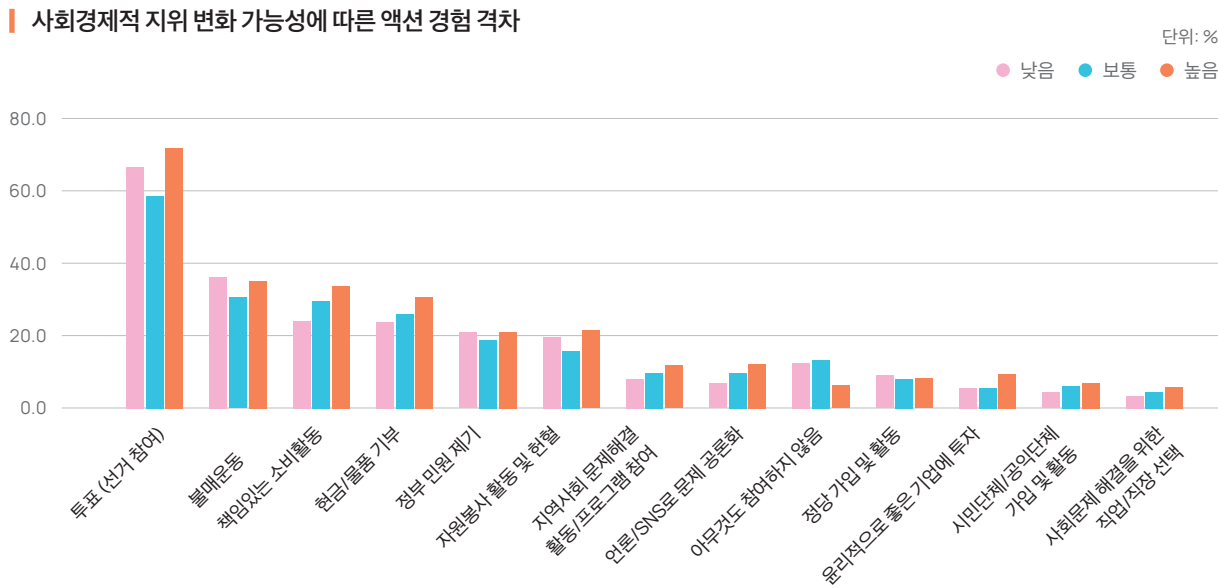
또한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울 때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6명 이상 있는 국민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책임있는 소비활동)(35.7%)’, ‘정부 민원 제기(33.9%)’, ‘봉사 활동(26.8%)’ 경험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정당에 가입해 의견 표명 활동(10.7%)’,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 (10.7%)’,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직업/직장 선택(14.3%)’을 최근 3년 이내 실천에 옮겼다는 답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0명일 경우에는 1명 이상 있는 경우보다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문제 해결 액션 경험이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국민은 ‘투표(74.9%)’, 불매운동 (51.5%),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 구매(37.0%), 현금 및 물품 기부(34.0%), 정부 민원 제기(29.4%)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성향의 국민은 ‘자원봉사 참여(21.3%)’ 경험이 다른 정치 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수 성향 국민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12.8%)’ 경험이 다른 정치 성향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갈등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국민의 투표 참여율(70.8%)과 불매운동(37.4%) 참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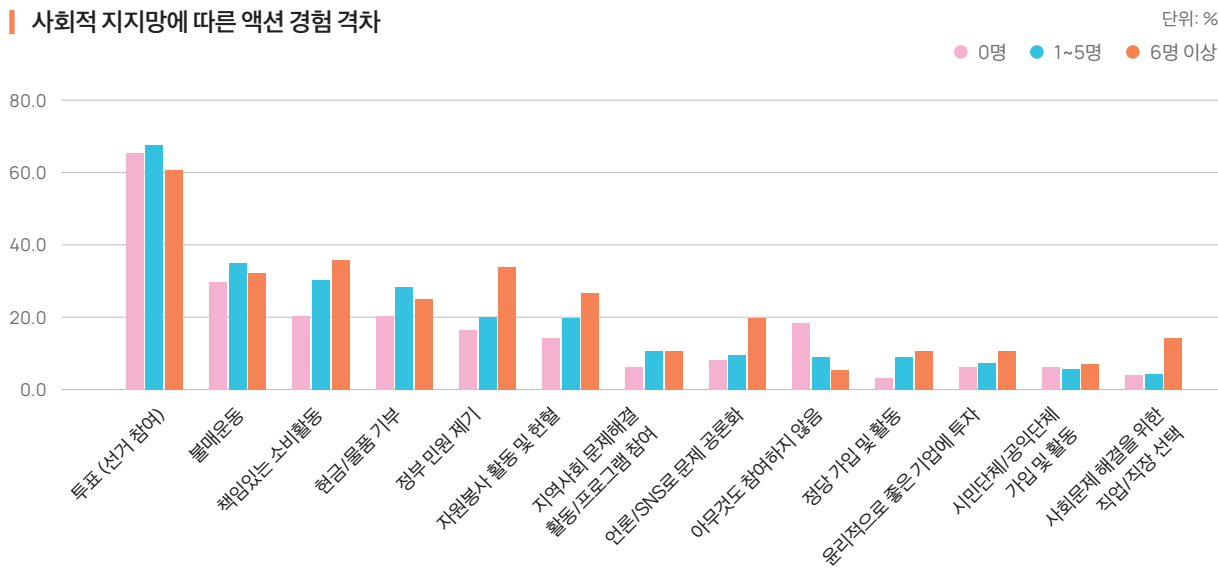
사회 계층 인식에 따른 액션 경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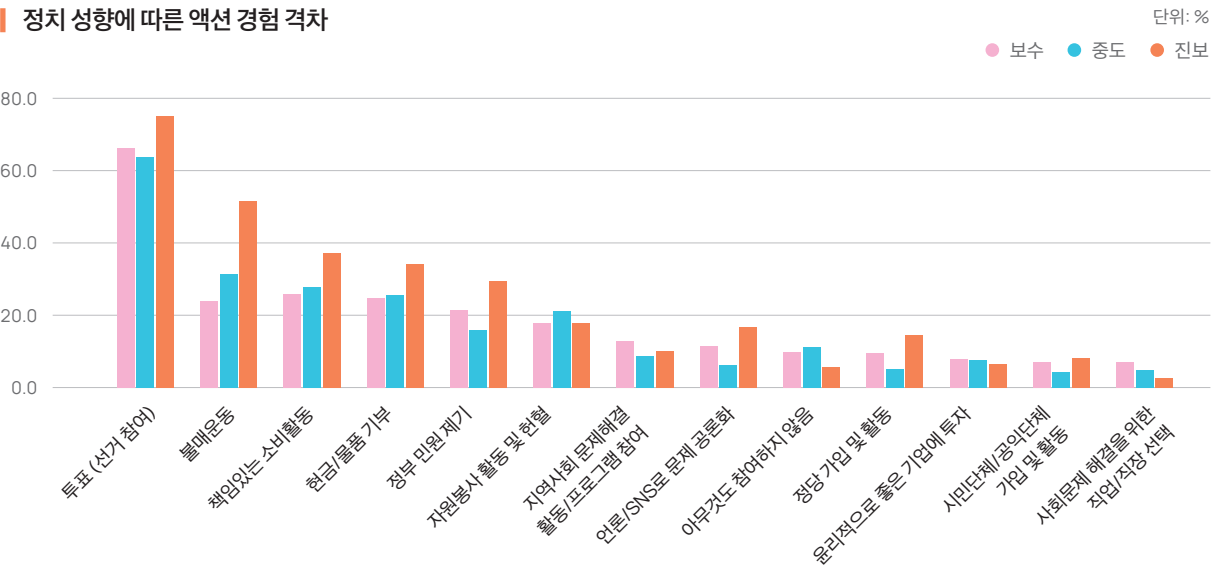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가능성에 따른 액션 경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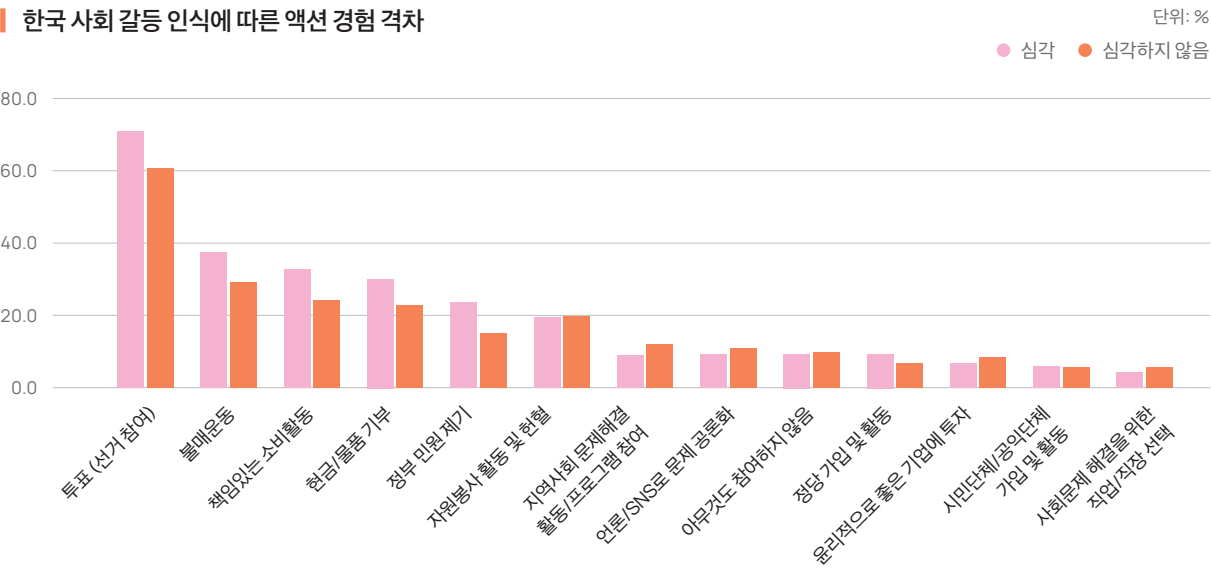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망에 따른 액션 경험 격차



정치 성향에 따른 액션 경험 격차



한국 사회 갈등 인식에 따른 액션 경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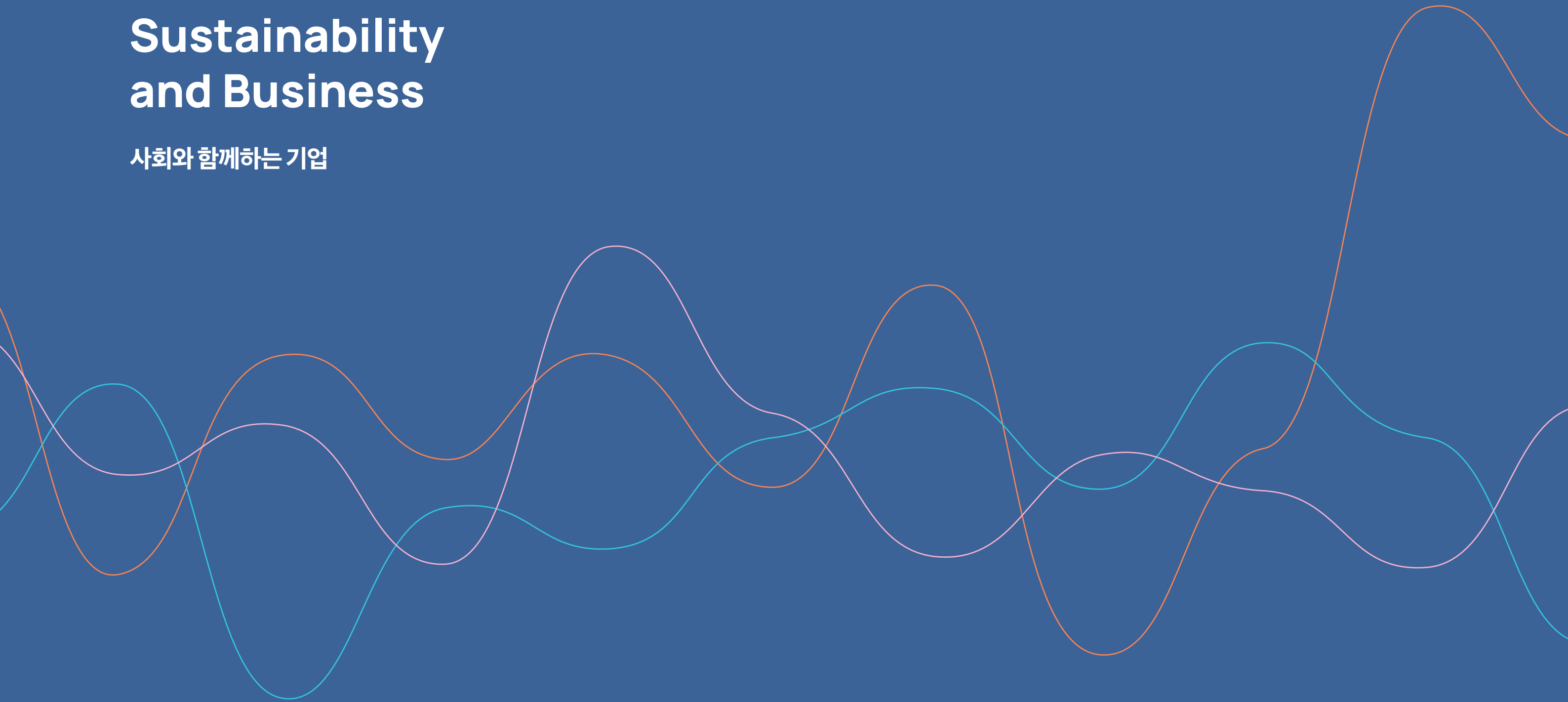


2025년은 한국에 드리워진 저성장의 그림자가 국민들의 불안을 높이고 사회에 대한 비판,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편향이 커진 모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경험도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 가치관, 주요하게 활용하는 매체 등에 따라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 그에 따른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로의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적 자본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CHAPTER 4

Sustainability and Business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Sustainability & Issues Analysis

기업 지속가능성과 사회이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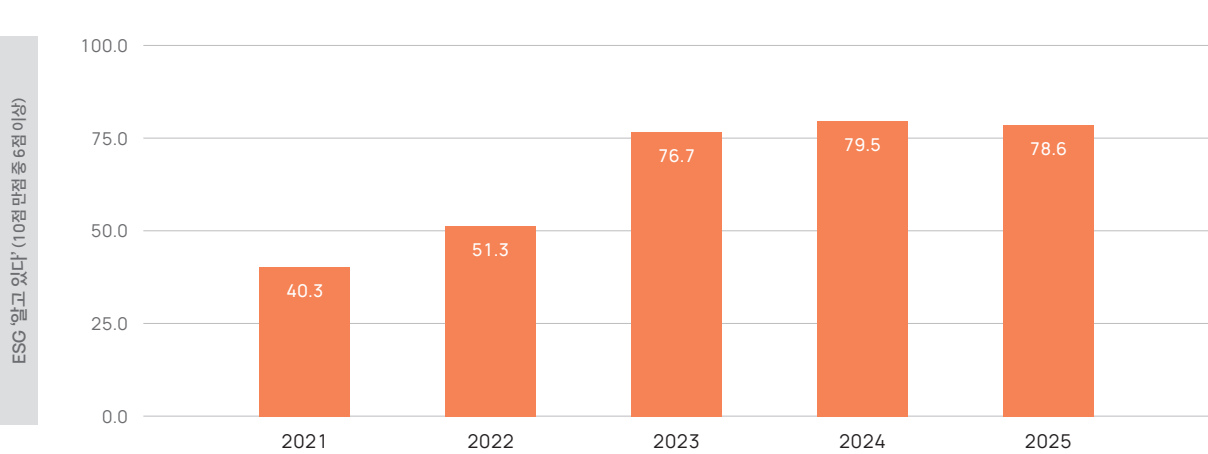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ESG 및 기후 정보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ESG 백래시(ESG backlash-ESG 경영과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반발 현상)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경제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성장 동력과 ESG 요구사항이 공존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Public Awareness of Sustainability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ESG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꾸준히 높아져

먼저 이해관계자로서 국민들은 ESG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ESG 개념을 알고 있다(‘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의 응답 비율)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수치가 2021년 40.3%에서 2025년 78.6%로 증가해 지난 5년 사이에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ESG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ESG 개념이 국민들에게 자리잡고 일반화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SG 인식 변화 (2021-2025)



국민들은 기업이 ‘경제 성장’은 물론 ‘ESG 관리’까지 하기를 기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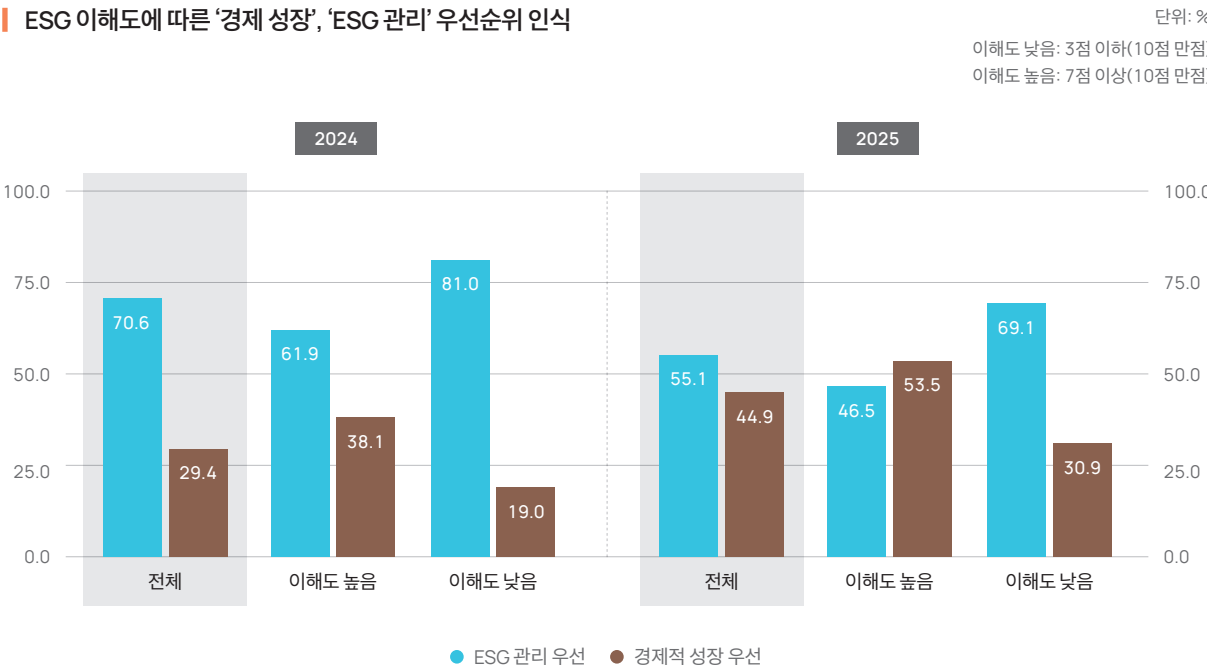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기업 본연의 역할인 ‘경제적 성장’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중요해진 ‘ESG 관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5년, ‘기업의 성장보다 ESG 관리가 더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2024년, 70.6%에 비해 약 15%p 하락했습니다.

경제 불황과 더불어 거센 ESG 백래쉬가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인 성장과 비즈니스 지속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과 ‘ESG 관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며, 두가지 가치에 대한 동등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ESG 이해도 높은 국민일수록 ESG를 비즈니스와 연계해

ESG 관리보다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인식은, 오히려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기업의 성장이 ESG 관리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ESG 이해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30.9%였던 반면, ESG 이해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53.5%로 20%p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ESG이해도가 높아질수록 ESG와 기업의 성장의 관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ESG 이해도에 따른 ‘경제 성장’, ‘ESG 관리’ 우선순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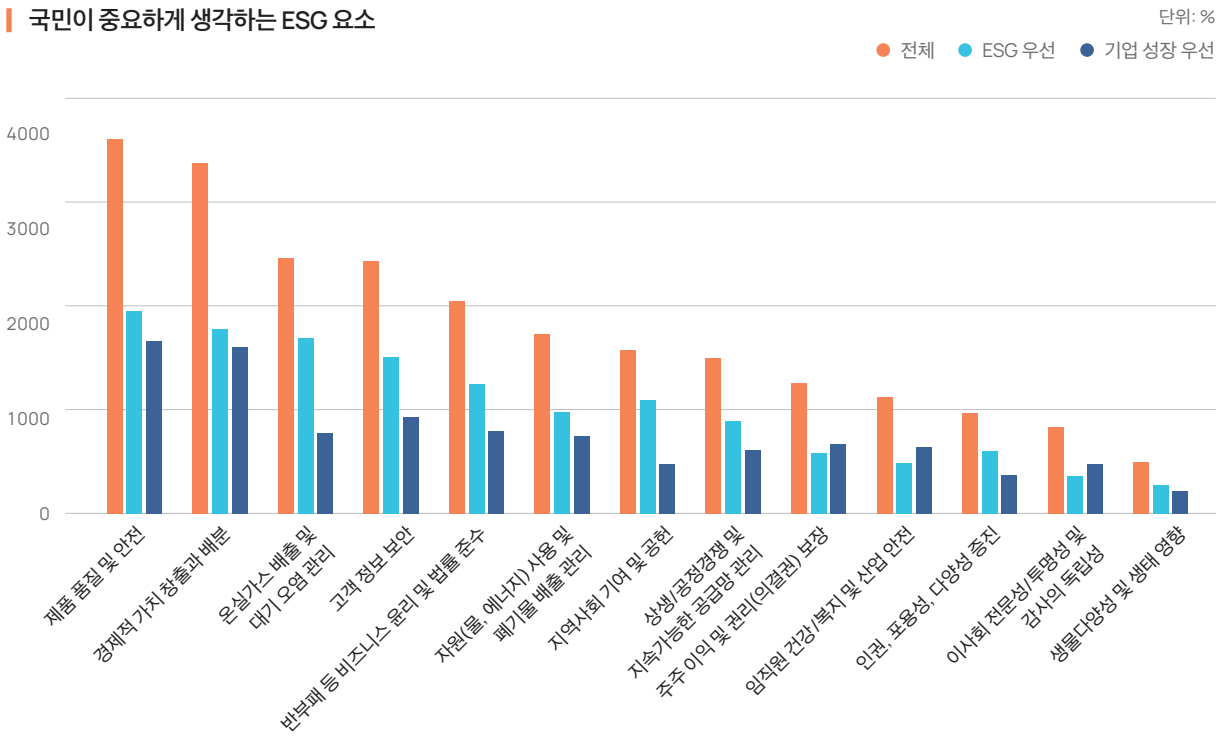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제품 품질 및 안전’,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중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ESG 항목의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 국민들은 ‘제품 품질 안전(1위)’,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2위)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ESG를 우선하는 국민과 기업 성장을 우선하는 국민 사이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3~4위에 오른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관리’와 ‘고객 정보 보안’의 경우 ESG가 우선이 되어한다는 국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주주 이익 및 권리(의결권) 보장’과 ‘임직원 건강/복지 및 산업 안전’,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및 감사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우선되어야한다는 국민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반부패 등 비즈니스 윤리 및 법률 준수’, ‘주주 이익 및 권리(의결권) 보장’ 등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치 배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권, 포용성, 다양성 증진’과 같이 기업의 잠재적인 비즈니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슈들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ESG 이해도가 낮은 응답자들이 각각 6위와 9위로 평가한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과 ‘임직원 건강·복지 및 산업 안전’의 경우, ESG 이해도가 높은 응답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성(10위권 밖)이 낮았습니다. 종합해 볼 때, ESG 각 항목들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회·환경적 영향력과 비즈니스 성장의 유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요소



Sustainability Map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사회문제 해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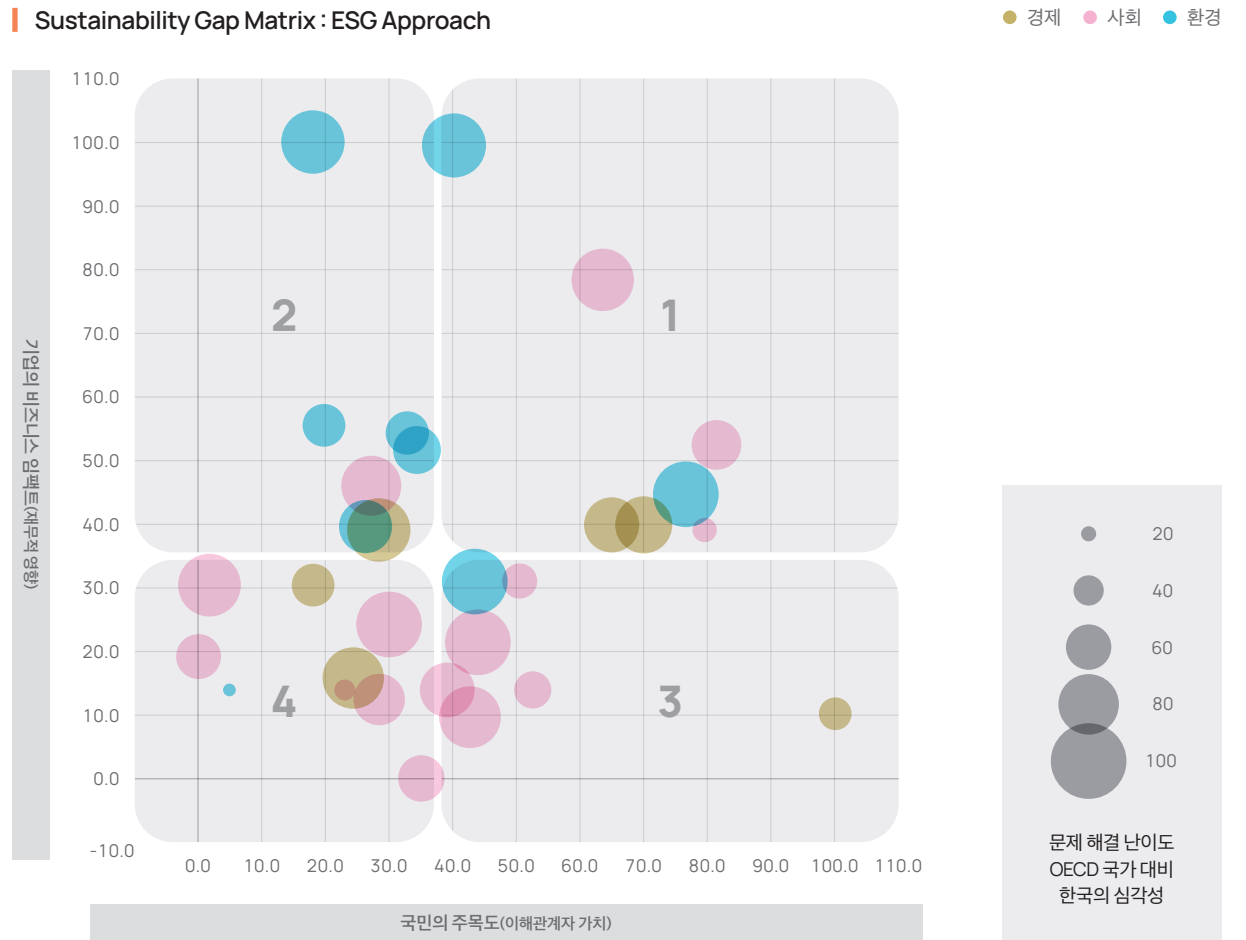
국민들은 기업이 왜 ESG 경영을 하기 바랄까요. 사회문제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정부의 예산과 정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수준이 2024년 기준 49.3%에 불과했습니다.¹ 그만큼 국민들은 사회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문제 때문에 삶이 힘들다고 국민이 인식한 비율이 본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2025년 가장 높았고(6.97점/10점 만점), 10대 사회문제 해결 주제로 ‘기업’, ‘사회적 기업’을 선택한 비율은 5년 전보다 약 23.4%p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¹ Jeffrey D. Sachs, Guillaume Lafortune & Grayson Fuller. 2024. The SDGs and the UN Summit of the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 Dublin Univ. Press.

기업들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과 환경·안전 투자 지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5%, 11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저성장 국면에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려면, 기업들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주목해야 하는 100대 이슈를 기준으로 글로벌 공시 표준과 국내 주요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Top 30’를 도출하고, 국민이 해결하길 바라는 이슈와 기업의 비즈니스 연관성이 높은 이슈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국민의 주목도(X축)와 기업의 비즈니스 임팩트(Y축)를 기반으로 구조화한 지속가능성 맵(Sustainability Map)에 나타난 4가지 영역별 시사점을 도출해봤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어떤 사회문제에 주목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Sustainability Gap Matrix : ESG Approach



지속가능성 맵(Sustainability Map)에 나타난 4가지 영역은 ‘국민 주목도’와 ‘비즈니스 임팩트’ 각각의 평균(40점, 35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은 영역, 그보다 낮은 영역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국민의 주목도’는 이해관계자 가치와 연계되며, ‘비즈니스 임팩트’는 재무적 영향을 뜻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임팩트가 평균보다 높고, 국민의 주목도가 평균보다 높은 ‘1’번 영역은 기업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즉, 기업의 전략적 집중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비즈니스 임팩트가 평균보다 높지만 국민의 주목도가 평균보다 낮은 ‘2’번 영역은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주목도가 평균보다 높지만 비즈니스 임팩트가 평균보다 낮은 ‘3’번 영역은 이해관계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기업들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주목도와 비즈니스 임팩트 모두 평균보다 낮은 ‘4’번 영역은 시급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① 핵심 성장 & 가치 창출 영역: 문제 해결과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이슈

*정렬 기준: '국민 주목도', '비즈니스 임팩트'를 곱한 값 기준 내림차순

사회문제 테마	이슈	국민 주목도	비즈니스 임팩트
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63.5	78.3
사회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81.4	52.4
환경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40.1	99.5
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76.5	44.7
사회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79.5	39.0
경제	청년 일자리 부족	69.9	39.8
경제	고용률 하락	64.9	39.8

국민 주목도와 비즈니스 임팩트가 모두 높은 영역에는 최근 사건, 사고들로 중요해진 이슈들이 포함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최근 국내 통신사·IT 서비스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며 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사업장 안전 사고 관련 문제는 국민의 관심도와 비즈니스 임팩트 간 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기업의 이해관계자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가 직결되는 영역으로 해석됩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 최근 정부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부터 시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재무적 가치를 모두 높일 수 있는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 관련 이슈는 비즈니스 임팩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환경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으로 직결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② 리스크 관리 중점 영역: 대응을 통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슈

*정렬 기준: '비즈니스 임팩트' 기준 내림차순

사회문제 테마	이슈	국민 주목도	비즈니스 임팩트
환경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18.0	100.0
환경	대형산불 증가	19.7	55.5
환경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32.8	54.3
환경	(태풍,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자연재해 증가	34.3	51.6
사회	성별격차 및 성차별	27.1	46.0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26.2	39.6
사회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28.3	39.0

국민의 주목도는 비교적 낮지만 비즈니스 영향력이 높은 영역에는 환경 테마의 이슈들이 주로 포함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폐기물 노출, 자원 관리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공시 요구가 강화되고, 자연재해가 공급망에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업계의 공통 관심사인 AI 기술의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역시, 최근 들어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지고 있어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가동 50년만에 섰다운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비즈니스와 거리가 멀 것만 같던 자연재해가 비즈니스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별 격차와 공정거래 이슈도 국민의 주목도에 비해 비즈니스 연관성이 높은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양성, 인권 등의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ESG 규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차별·성별 격차는 조직 문화 차원을 넘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에 관련 요소가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 제품의 범용성, 안전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이해관계자 집중 관리 영역: 이해관계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슈

*정렬 기준: '국민 주목도' 기준 내림차순

사회문제 테마	이슈	국민 주목도	비즈니스 임팩트
경제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100.0	10.2
사회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52.5	13.9
사회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50.4	31.0
사회	저출생 문제	43.9	21.4
환경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위험관리 체계 부족)	43.4	30.9
사회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42.6	9.6

국민 주목도는 높지만 비즈니스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 사회 이슈가 집중되었습니다. 브랜드 가치 제고와 연결되어 장기적인 비즈니스 임팩트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이슈들입니다. '3'번 영역은 특히,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 관련 이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즈니스와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성장 동력을 위한 인력 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은 올해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100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④ 잠재 임팩트 창출 영역: 시급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이슈

*정렬 기준: '국민 주목도', '비즈니스 임팩트'를 곱한 값 기준 내림차순

사회문제 테마	이슈	국민 주목도	비즈니스 임팩트
사회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29.9	24.2
경제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18.0	30.4
사회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39.1	13.9
경제	가계부채 증가	24.3	15.8
사회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28.4	12.4
사회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23.0	13.9
환경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부족	4.8	13.9
사회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1.7	30.4
사회	지역발전 불균형	35.0	5.0
사회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5.0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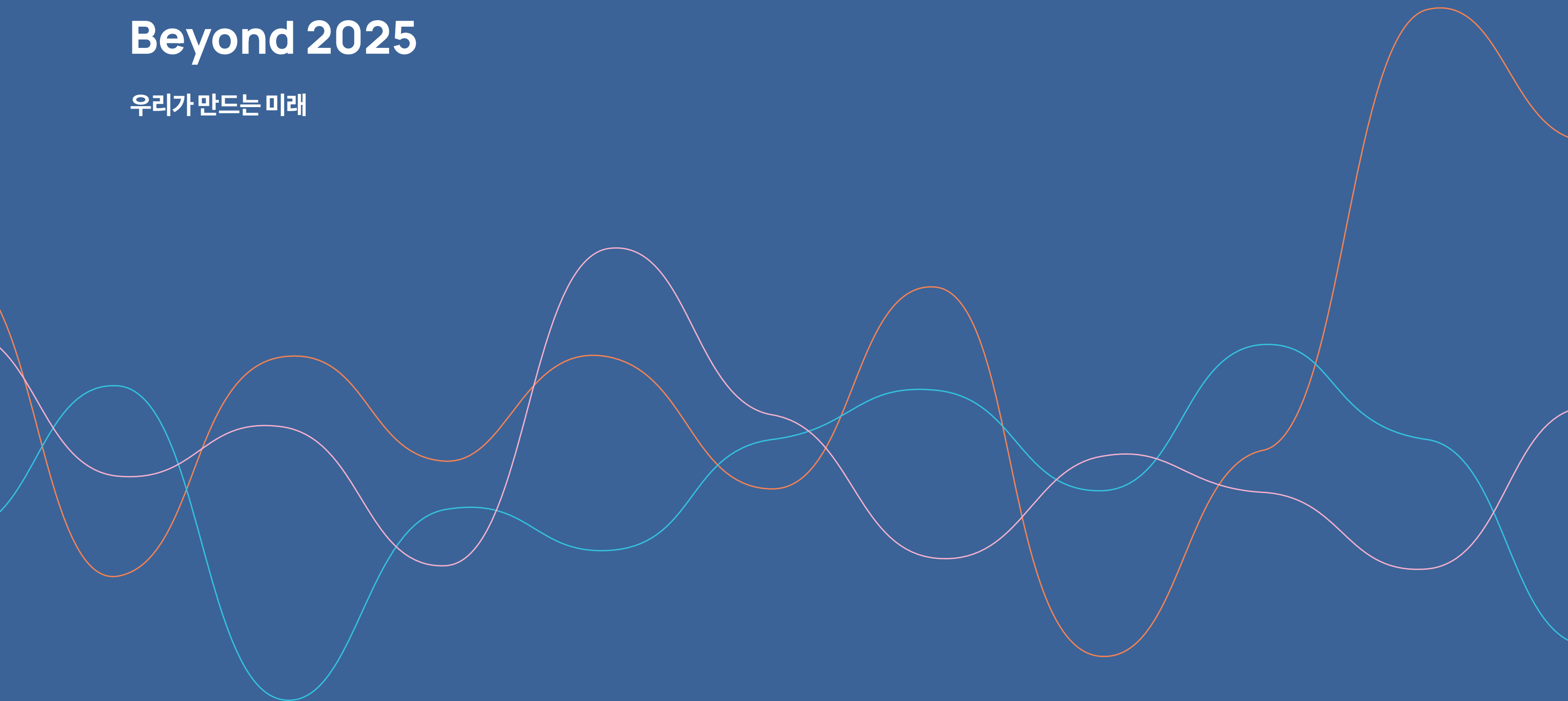
국민의 주목도와 기업의 비즈니스 임팩트가 모두 낮게 평가된 영역에는 복지, 교육, 의료 관련 지원 이슈가 많았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그동안 사회공헌이나 기부 차원으로 연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당 영역에 속한 이슈들은 특수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한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깊은 만큼, 기업의 단순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국민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애드보커시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는 기업의 조직 문화와 임직원 복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위기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CHAPTER 5

Beyond 2025

우리가 만드는 미래



Conclusion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갈등, 일상에서도 체감되는 기후 위기 등 국민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서 나타나는 위기에 대비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미디어 분석, 국민 1,000명 대상 인식조사,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사회문제 심각성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과 종합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현재와 미래, 문제 해결 전략 방안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한국의 문제 해결 수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사회문제 분석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①Urgent : 우선순위 영역, ②Important : 주요 관심 영역, ③Managing : 지속관리 영역, ④Delegate : 위임과 실험 영역 등 4가지 문제 해결 전략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① Urgent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도 커지는 사회문제

우선순위 영역(Urgent)은 문제 해결이 어렵고(난이도 50점 이상),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는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난도와 임팩트가 모두 높기 때문에 해당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위기와 기회 모두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 및 역량을 집중해 문제 해결과 미래 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M → N 2024 → 2025 영역 변화 NEW 순위권 내 신규 진입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커지는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해결 난이도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15	52	90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54	88	90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②→①	43	73	51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②→①	68	89	51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③→①	42	63	85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②→①	49	70	50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72	90	57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83	95	90
해수면 상승	2	12	90
어려운 재취업	73	82	81
폭설과 폭우 증가(폭설과 폭우로 인한 피해) ③→①	56	65	67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51	59	59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10	18	81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③→①	64	71	90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③→①	20	27	72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종합한 값으로 Top 15 이슈를 도출하여 현재-미래 임팩트 차가 큰 순으로 정렬

인구구조 변화 속 고립과 갈등, 격차 해소 우선돼야

‘노인 우울증 소외 증가’,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 생활’ 등 미래에 다가올 고령화 관련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사회 변화와 문제들에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립과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자원과 역량 집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신자 및 1인 가구 증가’, ‘세대 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문제 모두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더 심각해질 난이도 높은 이슈로 꼽힌 만큼 격차로 인해 사회 전반에 나타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재취업’역시 현재보다 10년 후 더 심각해지고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침체, AI로 인한 직업의 재편 등으로 미래에는 현재보다재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직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재교육과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재해 대응 속도, 더 빨라져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해마다 가뭄과 홍수로 인한 토지 황폐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래에 대비가 필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부족’,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이슈가 2025년 새롭게 우선순위 영역에 포함된 만큼, 자연재해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② Important 현재보다미래 임팩트가커지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낮은 사회문제

주요 관심 영역(Important)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문제 해결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난이도 50점 미만)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임팩트가 높지만 난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 영역(Urgent)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과 역량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곧 다가올 미래 문제에 대한 효율적·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보다는 기회가 큰 영역으로 전략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M → N 2024 → 2025 영역 변화 NEW 순위권 내 신규 진입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커지는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해결 난이도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②→①	32	64	24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24	50	30
전력수급 불안정	28	52	41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50	69	19
국가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25	39	7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편견 및 차별 NEW	4	16	19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90	100	1
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NEW	20	28	17
가뭄·홍수 증가(가뭄·홍수로 인한 피해) ④→①	47	54	36
구인 및 인력난	59	66	39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래보다 현재 더 큰 사회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해결 난이도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74	79	41
지진과 쓰나미 증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 NEW	23	28	25
지구 온난화	92	96	44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89	93	21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31	35	49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종합한 값으로 Top 15 이슈를 도출하여 현재-미래 임팩트 차가 큰 순으로 정렬

R&D 지원과 인재 육성 위한 정책 필요

AI 시대가 앞당긴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미래 핵심 인재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문제는 현재 대비 미래 임팩트가 2배 높게 나타나며 주요 관심 영역(Important)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구인 및 인력난(59점→66점)’,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25점→39점)’이슈의 (현재 대비) 미래 영향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융합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R&D 지원과 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슈의 현재, 미래 임팩트가 작년보다 증가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90점→100점)’ 이슈의 미래 임팩트가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 빈곤과 생산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외국인 노동 인력 유입과 연결되는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편견 및 차별(4점→16점)’ 역시 주목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물·에너지 등 기후 적응 관련 리스크 대응 시급

작년에 이어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과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가 10년 후 미래에 더 우려되는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두 이슈 모두 현재보다 미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 온난화(92점→96점)’, ‘가뭄·홍수 증가’(47점→54점), ‘지진과 쓰나미 피해 증가’(23점→28점) 이슈 모두 우선 관심영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을 넘어서, 농업·산업·재난 대응 전반에 연결된 복합적인 기후 적응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3 Managing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미래보다 현재 임팩트가 큰 사회문제

지속 관리(Managing) 영역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래 보다 현재 더 높고, 문제 해결 난도가 높아 꾸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난도가 높은 만큼 문제 해결에 성공하는 경우, 더 나은 사회 변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2024 → 2025 영역 변화 NEW 순위권 내 신규 진입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래보다 현재 더 큰 사회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해결 난이도
청년 일자리 부족	84	60	65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85	67	87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60	46	83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래보다 현재 더 큰 사회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해결 난이도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1→4	37	24	63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93	81	89
성별격차 및 성차별	60	48	73
미세먼지 증가 NEW	66	55	90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부족	26	15	54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1→4	53	43	78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99	92	79
만연한 특권과 편법 1→4	69	62	64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1→4	17	10	60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97	91	55
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4→3	12	6	62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1→4	45	40	65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5 이슈를 도출했다.

소득·고용 격차 완화, 구조적 개혁 필요

‘청년 일자리 부족(84점→60점)’,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85점→67점)’ 이슈가 작년에 이어 지속 관리 영역(Managing)의 상위 이슈로 꼽혔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근로 격차는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26개 국가 중 격차 3위)으로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일·생활 불균형’ 이슈는 현재 임팩트(99점)가 100대 사회이슈 중 2번째로 높고, 10년 후 미래에 나타날 우려도 92점으로 큰 상황으로 고용·임금·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개혁과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됩니다.

사회 갈등과 불평등, 통합과 신뢰 회복 필요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성별 격차 및 성차별’,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만연한 특권과 편법’, ‘이혼율 등 가족해체 증가’ 문제는 국민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고, 난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갈등 현상은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개개인의 선택과 노력의 차원을 넘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투명한 정책 의사결정을 통해 특권과 편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 붕괴로 인해 교육 격차를 겪게 될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4 Delegate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고, 미래보다 현재 임팩트가 큰 사회문제

위임과 실험 영역(Delegate)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래보다 현재에 더 크며, 문제 해결 난도가 낮은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액션을 주도하기 보다는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난도가 낮은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개개인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래보다 현재 더 큰 사회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해결 난이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62	38	14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57	36	27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29	10	11
교육 수혜 격차 심화(조기유학 증가 등) NEW	39	20	5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NEW	48	30	34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소상공인 생존 문제 ③ → ④	63	47	13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71	56	37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81	68	21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② → ④	70	57	16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NEW	94	83	29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② → ④	36	26	46
일자리 정책 문제 NEW	67	57	31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86	76	12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58	49	47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30	21	6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5 이슈를 도출했다.

디지털 성범죄, 마약류 범죄 확산…즉각적 대응체계 필요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이슈는 현재 임팩트가 71점, 미래 임팩트가 56점으로, 현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떠올랐습니 다. 최근 AI와 결합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가 급증했고,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 피해자의 70%가 여 성이었습니다(경찰청·여성가족부 2025).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이슈도 현재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자기소비 목적의 마약 밀수 사 례가 2023년에 비해 58%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유통 플랫폼의 규제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확충, AI 기술 활용 범죄에 특화된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뢰 회복 위한 거버넌스 강화 필요

정부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이슈 해결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소상공인 생존 문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사회시스템 부족’ 이슈들이 위임과 실험 영역(Delegate)에 포함된 만큼, 지역사회·비영리단체·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소통하 며 정부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위기 속 신뢰와 협력의 가치 주목해야

2025년은 국민이 사회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가장 커진 해입니다. 2020년 이후 사회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올 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졌습니다.

2021년 이후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5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국민의 63% 가 자신을 중하위층으로 인식했고, 이들은 국가 경제를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0~40대의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로 ‘물질적 안정(돈)’을 꼽은 국민의 비중도 1년새 크게 증가해, 경기 침체로 인한 우려가 국민의 일상 속에 체감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은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점과도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기업 본연의 역할인 ‘경제적 성장’에 더 집중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성장 보다 ESG 관리가 더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15%p 하락했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으로도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제품 품질 및 안전’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 및 배분’을 중시 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환경과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국민도 많아졌습니다. 국민들이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정한 예산은 경제·사회 테 마와 비교해 2020년 대비 2025년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OECD 주요국 대비 심각성이 가장 급격히 상승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진단됩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고, 세대·연령·지역·가치관에 따라 사회문제를 향한 인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국 민들은 성별·세대·지역·정치 성향·노사 및 소득 격차간 갈등이 모두 심각하다고 평가했고, 이러한 사회 갈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사회문 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20대 이상은 소득 및 주거 문제, 40대 이상은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으며, 보수-진보 성향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사회문제 테마는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국민은 특히 경제와 환경 문 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지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민의 사회문제 관심도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점 수(6.8점/10점 만점)를 받았고, 자신의 자원과 역량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민이 2020년 62.7%에서 2025년 53.5%로 가장 낮아졌습니다. 특히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무력감이 미래의 성장 동력인 20~30대에서 두드러져,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과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진단됩니다.

한편,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선택한 비율이 5년 전 보다 약 23.4%p 증가하면서,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를 효율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을 기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주목도(이해관계자 가치)와 비즈니스 임팩 트(재무적 영향)을 기준으로 기업의 전략적 집중이 필요한 이슈를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 유출, 탄 소 배출 이슈가 이해관계자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가 직결되는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비즈니스 전략에 밀접한 이슈를 모 니터링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침체와 기후 위기, 사회적 갈등과 격차, 불신과 불안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민과 다양한 주체들간의 신뢰 회복과 협력이 어느 때보 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발행일 2025년 10월 18일
기획 및 연구 CSES·Triplelight
디자인 작업실 틈새

2025 일반 국민 설문조사 로데이터와 설문지는
SVhu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ebsite

www.cses.re.kr
www.triplelight.co

주소 Address

0614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역삼동) 17층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04553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1502호 트리플라잇

전자우편 E-mail

research@cses.re.kr
impact@triplelight.co

연구 리포트에 수록된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은 CSES·triplelight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2025 CSES·triplelight. All rights reserved.

픽토그램은 www.flaticon.com의 자료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